



2019학년도 1학기 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2019. 8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교과 스터디

1. 대구팻의 의약화학 쪼개기 (우수)	1
2. 미상 (우수)	7
3. 바돌이 (우수)	9
4. aunt's care	11
5. BHC	13
6. Boche	16
7. drug water	18
8. Young Solbrain	19
9. 과탐S	21
10. 굿다	23
11. 김오투윤	24
12. 꾸꾸까까	26
13. 맨보얼	28
14. 미생완생	30
15. 박혁거세	32
16. 사.약.인	34
17. 식린이	37
18. 아비새	39
19. 약물요정	41
20. 약물치료학치료학	43
21. 약사모	45
22. 약아치	47
23. 인생5회차	49
24. 지원&현아	51
25. 차바이오	53
26. 착착	55
27. 코난	56
28. 통학팸	57
29. 포맨즈	58
30. 해룡육녀	60

비교과 스테디

1. 3100 (우수)	65
2. 나이테 (우수)	68
3. 파나소닉 (우수)	70
4. voca	71
5. YJ	72
6. 마지막 토익	73
7.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75
8.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약학도의 자세	77
9. 우리 스테디 차고다	79
10. 익토익토	81
11. 채대열	83
12. 지원스쿨	85
13. 청춘의흥 잉글리쉬 차차차	87
14. 체인지메이커 1	88
15. 체인지메이커 2	90
16. 토익졸업	92
17. 햄스터디	93

전공 튜터링

1. J호 (우수)	97
2. 드라이버킴 (우수)	100
3. 3포생물학	102
4. Development	106
5. 미래엔 물리가 물리지 않게!	108
6. 생화학은 별거다	112
7. 영합보	114
8. 예비회계마스터	116
9. 유기부셔	117
10. 응급실	118
11. 차취대	120

리딩리더스

1. 로고스 (우수)	125
2. 찰떡 (우수)	127
3. 수소	129
4. 식사	130
5. 아고라	131
6. 인간문화재	133
7. 책꽂이	134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1. 강범석, 장수희 팀 (우수)	137
2. 김초은, 이수현, 조소영 팀 (우수)	139
3. 김민정, 도현주, 장미나 팀	143
4. 김예린, 김수진, 박하늘 팀	144
5. 김은진, 강석원, 김선우 팀	145
6. 박민하, 박현정, 조민경 팀	146
7. 배민재, 이권희, 이예지, 최성웅 팀	147
8. 손령애, 김유정, 김송현 팀	148
9. 엄윤주, 박수진 팀	150
10. 이주영, 함희선, 허선주 팀	151
11. 장윤서, 권민정 팀	152
12. 최연식, 강은규, 김철우, 김민기 팀	153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1. 미소 (우수)	157
2. 두드림 (우수)	159
3. U.P (우수)	163
4. IMPACT	164
5. J호	166
6. Ohio	168
7. 그놈의 자격증이 뭐길래	174
8. 논문보개기	175
9. 데이터분석 준 전문가	176
10. 미생완생	178
11. 바돌이	180
12. 빅데이터공모전팀	181
13. 수지와 동준이	182
14. 암정복조	184
15. 어벤져서	186
16. 워아이니	188
17. 위캔두잇	190
18. 차이나조	192
19. 차차라추추	195
20. 최씨니어	197
21. 컴온컴활	199
22. 컴활마스터	201
23. 한중영보개기	202
24. 함께해요! 약학연구	203

교과스터디

팀명	팀원	학과
대구팻의 의약화학 쏘개기 (우수)	구채림	약학과
	김수연	약학과
	임가연	약학과
미상 (우수)	김희원	미술치료학과
	이정윤	상담심리학과
	최아현	미술치료학과
	한별이	상담심리학과
바돌이 (우수)	송동욱	바이오공학과
	이태환	바이오공학과
	민기태	바이오공학과
	임준우	바이오공학과
aunt's care	이유진	약학과
	한은채	약학과
	윤성원	약학과
	김지수	약학과
BHC	고준영	약학과
	신송이	약학과
	윤서연	약학과
	이현주	약학과
	최선희	약학과
	한승훈	약학과
BoChe	송민선	바이오공학과
	박예림	바이오공학과
	신은소	바이오공학과
	조세연	바이오공학과
drug water	신다영	약학과
	김소인	약학과
	박희정	약학과
	김선우	약학과
	손유나	약학과
	임혜영	약학과
	김성연	약학과
Young Sol-brain	김상욱	약학과
	이영미	약학과
	정진규	약학과
	박예람	약학과
	유영운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과탐S	조병훈	바이오공학과
	홍진우	바이오공학과
	이경민	바이오공학과
굿다	김수민	미술치료학과
	유정하	미술치료학과
	안채현	미술치료학과
김오투윌	김영준	바이오공학과
	윤시은	바이오공학과
	오경대	바이오공학과
	오준식	바이오공학과
꾸꾸까까	전상원	약학과
	이상민	약학과
	민명기	약학과
	박준석	약학과
	최문혁	약학과
	유영운	약학과
맨보얼	김효정	의생명과학과
	박홍범	의생명과학과
	송인석	의생명과학과
	신대웅	의생명과학과
미생완생	김선주	약학과
	박지수	약학과
	배민재	약학과
	오윤정	약학과
	이권희	약학과
	이은혜	약학과
박혁거세	김수진	보건복지행정학과
	공세린	보건복지행정학과
	박하늘	보건복지행정학과
사.약.인	안지은	약학과
	최신예	약학과
	최지환	약학과
	이경록	약학과
식린이	조소현	식품생명공학과
	이소민	식품생명공학과
	김은정	식품생명공학과

팀명	팀원	학과
아비새	한지수	약학과
	조윤서	약학과
	심민호	약학과
약물요정	손효정	약학과
	문소현	약학과
	민은기	약학과
	박현선	약학과
	안재민	약학과
	정서경	약학과
약물치료학치료학	김정현	약학과
	정지은	약학과
	조윤서	약학과
	조석진	약학과
	김수재	약학과
약사모	박성민	약학과
	임수환	약학과
	이희다	약학과
	오해준	약학과
	김도완	약학과
	신기웅	약학과
약아치	김영진	약학과
	최동현	약학과
	이주현	약학과
인생5회차	박주동	의생명과학과
	김상휘	의생명과학과
	김혜령	의생명과학과
	권민정	의생명과학과
	홍지현	의생명과학과
지원&현아	이현아	보건의료산업학과
	박지원	보건의료산업학과
차바이오	신은혜	간호학과
	함초현	간호학과
	최정은	간호학과
착착	진회영	의생명과학과
	이경빈	의생명과학과
	이진주	의생명과학과

팀명	팀원	학과
코난	이하은	바이오공학과
	고아연	바이오공학과
통학팸	조신우	스포츠의학과
	김다운	스포츠의학과
	조윤서	스포츠의학과
	최예은	스포츠의학과
	남주혜	스포츠의학과
	황예원	스포츠의학과
포맨즈	심민호	약학과
	김영진	약학과
	김정대	약학과
	최동현	약학과
	홍선기	약학과
해룡육녀	강예은	약학과
	이수희	약학과
	장윤지	약학과
	한지수	약학과

비교과 스터디

팀명	팀원	학과
3100 (우수)	김주완	데이터경영학과
	염다비	데이터경영학과
	홍유택	데이터경영학과
	박진서	데이터경영학과
나이테 (우수)	최영은	상담심리학과
	김윤성	상담심리학과
	전현정	상담심리학과
	조하은	상담심리학과
파나소닉 (우수)	황장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배형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혜선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향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voCa	송민선	바이오통계학과
	박예림	바이오통계학과
	박홍준	바이오통계학과
	오경대	바이오통계학과
YJ	최유지	미술치료학과
	이예진	미술치료학과
마지막 토익	김세희	식품생명공학과
	마지연	식품생명공학과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이영인	보건의료산업학과
	조효선	보건의료산업학과
	박다영	보건의료산업학과
	박재혁	보건의료산업학과
	박정찬	보건의료산업학과
	이기혁	보건의료산업학과
	이현준	보건의료산업학과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약학도의 자세	하태욱	약학과
	안현빈	약학과
우리 스터디 차고다	추재욱	간호학과
	전진	간호학과
	황유정	간호학과
	황민영	간호학과
익토익토	임시윤	간호학과
	이혜지	간호학과
	오세인	간호학과
	이재은	간호학과
	김윤서	간호학과
채대열	이대현	의생명과학과
	박준열	의생명과학과
	채병준	의생명과학과

팀명	팀원	학과
지원스쿨	양지원	스포츠의학과
	임현수	스포츠의학과
	양희	스포츠의학과
청춘의홍 잉글리쉬 차차차	박성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황장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윤병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조영빈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종현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체인지메이커 1	김다솔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의성	의생명과학과
	최영은	상담심리학과
	전현정	상담심리학과
	김혜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체인지메이커 2	전하제	보건의료산업학과
	박현주	보건의료산업학과
	정다운	보건의료산업학과
	정세빈	보건의료산업학과
	김민희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신재환	바이오공학과
토익졸업	김민우	바이오공학과
	최문범	바이오공학과
햄스터디	김가현	간호학과
	김승민	간호학과
	최하늘	간호학과

전공튜터링

팀명	이름	학과
J호 (우수)	지선영	의생명과학과
	김수완	의생명과학과
	장윤정	의생명과학과
	황민	의생명과학과
드라이버 킴 (우수)	김상욱	약학과
	정민영	약학과
	이한주	약학과
3포생물학	박홍범	의생명과학과
	김혜령	의생명과학과
	김유정	의생명과학과
Development	김지훈	의생명과학과
	고두현	의생명과학과
	송유석	의생명과학과
미래엔 물리가 물리지않게!	장미래	약학과
	유혜정	의생명과학과
	이도현	의생명과학과
생화학은 별거다	김효정	의생명과학과
	박시원	의생명과학과
	이윤지	의생명과학과
영합보	유영운	약학과
	김나현	약학과
	김상욱	약학과
	이상민	약학과
	홍혜린	약학과
	이수정	약학과
예비 회계 마스터	고은서	데이터경영학과
	강유나	데이터경영학과
유기부셔	박용기	바이오공학과
	이인표	바이오공학과
	박홍준	바이오공학과
	지은서	바이오공학과
	김주환	의생명과학과
응급실	정연경	의생명과학과
	조서현	의생명과학과
	권민지	의생명과학과
	하경수	의생명과학과
	연제혁	의생명과학과

팀명	이름	학과
차취대	신대웅	의생명과학과
	차취제	의생명과학과
	백기동	의생명과학과

리딩리더스

팀명	팀원	학과
로고스 (우수)	김예린	보건복지행정학과
	김소림	보건복지행정학과
	박하늘	보건복지행정학과
	방현지	보건복지행정학과
	성진	보건복지행정학과
찰떡 (우수)	박혜원	데이터경영학과
	강다린	데이터경영학과
수소	이소리	바이오공학과
	권수민	바이오공학과
식사	여인봉	의생명과학과
	고정연	의생명과학과
	진수연	의생명과학과
	최윤주	의생명과학과
아고라	선인혜	미술치료학과
	안현지	미술치료학과
	유은하	미술치료학과
	박소을	미술치료학과
	권하윤	미술치료학과
	이도현	미술치료학과
	김도희	미술치료학과
인간문화재	조영준	약학과
	황지연	약학과
	박준석	약학과
책꽂이	박수린	약학과
	임가연	약학과

영글클럽

팀명	팀원	학과
	강범석	스포츠의학과
	장수희	보건복지행정학과
	김초은	미술치료학과
	이수현	상담심리학과
	조소영	미술치료학과
	김민정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도현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장미나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예린	보건복지행정학과
	김수진	보건복지행정학과
	박하늘	보건복지행정학과
	김은진	스포츠의학과
	강석원	스포츠의학과
	김선우	스포츠의학과
	박현정	보건복지행정학과
	조민경	보건복지행정학과
	박민하	보건복지행정학과
	배민재	약학과
	이권희	약학과
	이예지	약학과
	최성웅	약학과
	손령애	의생명과학과
	김유정	의생명과학과
	김송현	의생명과학과
	엄윤주	식품생명공학과
	박수진	식품생명공학과
	이주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함희선	의료홍보미디어학과
	허선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장윤서	바이오공학과
	권민정	바이오공학과
	최연식	바이오공학과
	강은규	보건복지행정학과
	김철우	보건복지행정학과
	김민기	바이오공학과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팀명	팀원	학과
U.P (우수)	박소연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성정화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이주영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다솔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혜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두드림(우수)	진영하	상담심리학과
	최문정	상담심리학과
	현지이	상담심리학과
	한수민	상담심리학과
	이경민	미술치료학과
	박예지	상담심리학과
미소(우수)	곽재인	미술치료학과
	서지원	미술치료학과
	최경아	미술치료학과
IMPACT	윤혜영	미술치료학과
	최선하	상담심리학과
J호	지선영	의생명과학과
	김수완	의생명과학과
	장윤정	의생명과학과
	황민	의생명과학과
ohio	한승훈	약학과
	이한주	약학과
	고준영	약학과
그놈의 자격증이 뭐길래	조병훈	바이오공학과
	이명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논문-보개기	임경진	약학과
	김소연	약학과
	윤성은	약학과
	정지은	약학과
데이터분석 준 전문가	임경진	약학과
	김소연	약학과
	류현우	약학과
	김동준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미생완생	김선주	약학과
	유정위	약학과
	오윤정	약학과
	이권희	약학과
	이은혜	약학과
바들이	송동욱	바이오공학과
	이태환	바이오공학과
	민기태	바이오공학과
	임준우	바이오공학과
빅데이터공모전팀	홍선기	약학과
	최문혁	약학과
	조해람	약학과
	박설	약학과
수지와-동준이	장윤지	약학과
	박소영	약학과
	이영미	약학과
	김동준	약학과
암정복조	박주동	의생명과학과
	김혜령	의생명과학과
	홍지현	의생명과학과
어벤져스	김경은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권세훈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정나윤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박상훈	데이터경영학과
워아이니	유정위	약학과
	오윤정	약학과
	이은혜	약학과
	김선주	약학과
위캔두잇	김다해	상담심리학과
	구나영	상담심리학과
차이나조	고준영	약학과
	박설	약학과
	이권희	약학과
	정서경	약학과
	최성웅	약학과

팀명	팀원	학과
차차라추추	이주원	상담심리학과
	구나영	상담심리학과
최씨니어	최예원	보건의료산업학과
	최현경	보건의료산업학과
컴온컴활	이재은	간호학과
	이혜지	간호학과
	임시윤	간호학과
컴활마스터	김선우	약학과
	박희정	약학과
	손유나	약학과
한중영보개기	김성연	약학과
	김은혜	약학과
함께해요!-약학연구	이수정	약학과
	김나현	약학과
	태소정	약학과
	임혜영	약학과



교과스터디

팀명: 대구팻의 의약화학 쪼개기 (우수)



학습과목: 의약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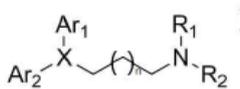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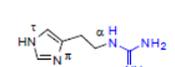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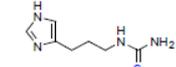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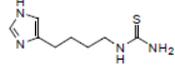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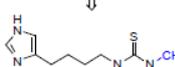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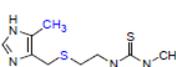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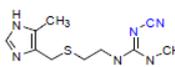
학습장소: 과학관

학습기간: 2019년 03월 28일 ~ 2019년 06월 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3.28	16:00 ~ 19:00	과학관 103호	<p>스터디 하기 전 퀴즈 풀기 진도나간 범위 내에서 각자 3문제씩 만들어오고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제한해서 풀이 후 채점/피드백 함.</p> <p>스터디 진행 이 범위를 먼저 읽어오고 각 챕터마다 다루는 약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물학, 인체생리학, 유기화학 개념을 보충하여 의약화학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께 공부함. 각자 필기한 것을 확인하고, 혹시나 놓쳤던 부분 또는 해설이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짐.</p>
19.04.03	16:00 ~ 19:00	과학관 103호	<p>스터디 하기 전 퀴즈 풀기 1회차에서 스터디 했던 14 ~ 16단원에 대해 각자 3문제씩 문제를 만들어 와서 20분간 퀴즈 및 채점/피드백 함.</p> <p>스터디 진행 17장 천식치료제에 대해서 스터디 함. 천식치료제는 약물학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기때문에 약물학 전공책을 참고해서 공부함. 천식치료제 단원은 약물의 SAR(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SAR을 분석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함. 스터디원들 각자 이면지에 구조를 직접 그리고 치환기도 그려가면서 SAR을 분석함.</p>
19.05.01	15:00 ~ 17:00	과학관 103호	<p>스터디 하기 전 퀴즈 풀기 2회차에서 스터디 했던 17단원에 대해 각자 3문제씩 문제를 만들어 와서 20분간 퀴즈 및 채점/피드백 함.</p> <p>스터디 진행 CH19 이노제와 CH20 ACE inhibitor, Angiotensin II antagonist, 칼슘차단제 부분을 서로 토론하며 공부함. 약물학, 약물치료학 강의에서도 이노제를 다뤘기 때문에 3과목을 통합하여 작용부위, 작용방식, 약물 구조를 함께 엮어 공부함. 그리고 각자 예습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공 책에 있는 오타를 발견함(476쪽 luminal → antiluminal).</p>
19.05.13	16:00 ~ 19:00	현암도서관 3층	<p>스터디 하기 전 퀴즈 풀기 총 세 단원에 대해 퀴즈를 진행함. 출제자가 채점을 하고 확인하면서 자기가 낸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토론을 하고 틀렸던 문제는 피드백을 해주면서 재차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p> <p>스터디 진행 의약화학 2차 시험을 앞둔 스터디였고 21 ~ 24단원에 대해 스터디함.</p>

			<p>2차 시험은 앞서 있었던 1차 시험보다 범위도 많고 내용도 어려웠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고감(ex.생동등체라는 용어와 활성조절구조와의 연관된 의미를 이해하기).</p> <p>이 날은 시험공부로 지친 우리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정의 선물로, 스터디 지원금으로 피자를 먹으며 잠시나마 마음을 달래어봄.</p>
19.05.15	16:00 ~ 20:00	현암도서관 3층에서 스터디 후 이태원에서 스터디회식	<p>스터디 진행</p> <p>2차 시험이 끝난 후의 첫 스터디였기 때문에 퀴즈는 없었음. 2차 시험 전에 진도를 나갔던 CH25 부신피질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호르몬 및 갑상선대사 조절제에서 각자 필기한 것을 확인하고, 놓쳤던 부분 또는 해설이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짐.</p> <p>2차 시험에 대한 피드백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대화</p> <p>스터디가 끝나고 이태원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며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정답과 그 이유에 대해 같이 토론함. 그리고 앞으로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서 SAR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약물이 가지는 화학적 특성에 대해 세세하게 분석해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p>
19.05.30	16:00 ~ 19:00	과학관 103호	<p>스터디 하기 전 퀴즈 풀기</p> <p>지난 스터디 때 공부 한 25장에 대한 퀴즈를 푼 후 채점/피드백 함.</p> <p>스터디 진행</p> <p>26장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분류해서 해당 분류마다의 약물의 특징 구조와 SAR을 토론해가며 진행함. 진통제는 염증매개,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로 우리는 크게 4개의 주요 구조에 대해서 공부함. 4개 구조의 구조적 공통점은 산성기와 산성수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임. 추가적으로 통풍치료제는 요산이 체내에서 배설되지 않고 관절에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xanthin oxidase를 억제해 요산의 생성을 막거나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들이 개발됨.</p> <p>전공과목 '약물치료학' 스터디도 시작</p> <p>스터디의 본 취지는 '의약화학'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는 것이 팀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전공 과목인 '약물치료학'도 같이 공부하기 시작함. 이번 주에는 '감염치료' 단원을 스터디 함. 진행방식은 수업자료를 3등분으로 나눠서 각자가 할당 부분을 설명하고 자료에 함께 있는 case study를 함.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부분을 그 순간 퀴즈를 보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며 또 약물치료학 문제 사이트를 통해 함께 풀어보면서 실제 환자에 적용해 봄.</p>
19.06.04	16:30 ~ 18:30	과학관 104호	<p>스터디 하기 전 퀴즈 풀기</p> <p>지난 스터디에서 공부한 26장의 내용으로 각자 퀴즈를 만들어서 시간 제한을 두고 먼저 풀어봄.</p> <p>스터디 진행</p> <p>27장 항히스타민제 파트에 대해 토론해가며 공부하였다.</p> <p>히스타민은 H1 ~ H4까지 네 종류가 있음.</p> <p>-H1: 알러지 면역 반응으로 인한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 혈관 투과성 및 점액 분비 증가</p>

		<p style="text-align: center;">〈H1 Rc 길항제의 SAR〉</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1) 2개의 방향족은 히스타민의 이미 다졸과는 구조적 유사성이 없다.</p> <p>2) 2개의 Ar은 반드시 서로 다른 평면에 위치해야 한다.</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width: 45%;"> <p>4) 측쇄의 3급아민기는 pK의 값을 가져야함. 이는 생체에서 양성자화되어 암모늄기하여 TM3에 위치한 Asp와 결합하기 위함이다.</p> <p>3) 측쇄구조는 히스타민과 유사하고, 2~3개의 원자로 구성됨으로써 H1항히스타민제의 크기를 5~6Å사이로 유지한다.</p> </div> </div> <p>-H2: 위산분비와 관계가 있고 추가 작용기(extra-functional group)를 도입하여 불활성형태의 수용체에 perfect fit하도록 만들어서 Inactive form으로 수용체 평형이 치우쳐지도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H2 Rc Inverse agonist (역효능제)의 개발과정〉</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1 Guanidine introduction Partial agonis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2 Thiourea introduction hydrogen bonding interaction</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3 Carbon bridge addition increase selectivity</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4 Burimamide developmen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5 Metamamide development</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Step6 Cimetidine Ultimate Evolution</p> </div> </div> <p>S 이중결합(thiourea)으로 치환한 경우 C=S의 EWG 효과로 인해 pKa 감소하는데 이 때 생리 pH에서 이온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ntagonist binding site와 여전히 좋은 결합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온결합보다 수소결합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p> <p>-H3: 중추신경계에 주로 존재하며 수면과 내분비물질의 항상성과 관계.</p> <p>-H4: 비만세포와 호산구에서 chemotactic 반응 조절.</p> <p>3차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 방향성에 대한 대화</p> <p>의약화학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지만 3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뀐 시험 유형에 따른 공부 방향도 같이 얘기해봄.</p>
--	--	--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대구팻의 의약화학 쪼개기’ 스터디는 대구사람 3명이 모여서 전공과목인 의약화학II에 대해서 함께 복습하고 공부하는 스터디이다. 우리가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작년 의약화학 I은 시험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였지만 이번 학기에서는 3차 고사(한 학기에 시험을 총 3번 봄)가 되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의약화학은 과목 특성상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공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매달 있을 시험에 대비해 작년보다 향상된 성적취득을 목표로 해서 함께 스터디를 하기로 결정했다.</p> <p>이번 스터디의 목표달성 및 결과는 2차 고사 성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고사와 3차 고사</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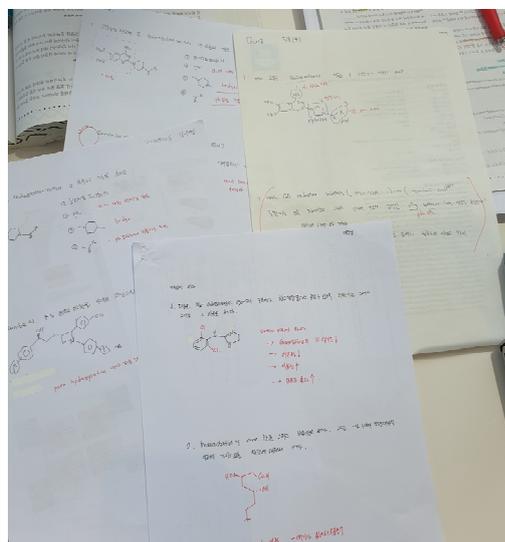
	<p>성적은 모름) 구채림 학우는 상위 4.5%로 전체 45명 중 2등이라는 높은 결과를 얻어내었다. 그리고 김수연 학우와 임가연 학우는 상위 65.9%로 지난 학기 의약화학 I 보다 상승한 결과를 얻어내었다.</p> <p>우리 모두는 스터디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고 스터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 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했다. 스터디가 끝이 난 후 구채림 학우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평소 화학을 좋아해서 약물을 유기 화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약화학이라는 과목에 있어서도 큰 흥미를 느꼈다.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스터디가 재미있었는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어 큰 성취감을 느꼈다. 사실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번 진행되는 거지만 이 스터디를 위해서 전 수업 내용도 복습해야 했고, 퀴즈 문제도 만들어야 했고, 다른 사람이 출제한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전 스터디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복습을 해야 했다. 이번 학기가 특히나 시험과 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주 진행하는 스터디가 심적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학우가 스터디 날짜를 조정해 주는 등 배려를 해주었고, 본인도 힘들 텐데 지친 마음을 다독여 주어서 너무 고맙다. 우리의 스터디는 서로의 장점들이 만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스터디였다고 생각한다.”</p> <p>김수연 학우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 놓친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당시에 해결하지 않고 시험기간에 하자는 생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평소에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과목인 의약화학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닌 3차 고사로 진행되는 시험이어서 유독 시험기간이 자주 다가오는 느낌 이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서로 모여 공부를 하다 보니 시험기간에 수월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서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다른 과목보다 의약화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오히려 의약화학에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번에도 스터디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잘 해보고 싶다.”</p> <p>임가연 학우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2차 고사 성적을 통해서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 했고, 지난 학기에 한 의약화학 I 보다 이번학기의 의약화학 II 에서 확연한 성적상승을 얻어내어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함께 공부를 하면 내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 들을 터득해 낼 수 있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의약화학 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전공과목도 함께 스터디를 해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또 도출해 내고 싶다.”</p> <p>스터디의 마무리와 함께 약대 5학년 1학기도 끝이 났다. 약대에 입학한 후 가장 바쁜 학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학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쏟아져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학기에 스터디를 하기로 생각 한 건 신의 한수였다. 내용이 어렵기도 어렵고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도 정말 많은, 또 시험도 3번이나 친다는 이 부담감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덜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스터디를 즐기고 있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멘탈도 붙잡아주었고 지친 서로의 마음을 다독여 줄때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학기 우리의 스터디는 서로 힘을 주고받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는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성적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다 이루어내었다. 우리는 다음 학기에도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고 그때에는 이번 스터디 진행을 발판 삼아 좀 더 퀄리티 있고 성장한 스터디를 함께 해 보고자 한다.</p>
<p>기타</p>	<p>우리 스터디의 특징은 대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에서 먼 곳에 위치한 포천이라는 낯선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고향이 같다는 공통점 외에도 웃음코드, 대화코드 등이 너무 잘 맞아 언제나 모이면 웃음이 떠나갈 새가 없는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스터디를 할 때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즐겁게 공부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공부를 같이 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혼자서 이렇게 어렵고 방대한 양의 공부를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즐겁고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p> <p>우리의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 그날의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학교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스터디 진행 요일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조절했다. 스터디 진행방식은 ‘퀴즈+전 시간 강의 복습’ 이었다. 우리 스터디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퀴즈’였다. 실제 시험출제유형에 맞추어서 서술형으로</p>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 스터디 한 내용에 대해 3문제씩 문제를 만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의약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약물의 구조활성관계(SAR)가 중요하기 때문에 SAR에 관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실제 시험에서 1문제당 푸는 시간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설정해서 퀴즈 푸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각자 만들어온 문제지를 서로 채점해준 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신기하게도 서로 만들어 온 문제가 겹친 적이 거의 없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내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고 본인만의 생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출제한 퀴즈에 대해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퀴즈가 큰 부스터 역할을 했다. 혹여나 공부를 못하고 왔더라도 문제를 틀림으로서 얻는 학습효과도 상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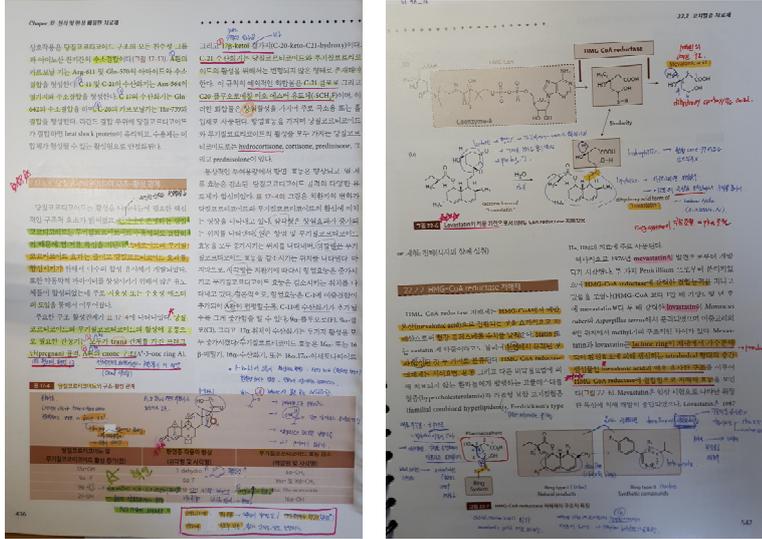
[사진1] 현암도서관에서 스터디하는 모습



[사진2] 매일 스터디 시작 전 진행한 퀴즈 문제



[사진3] 열심히 스터디 한 후의 필기 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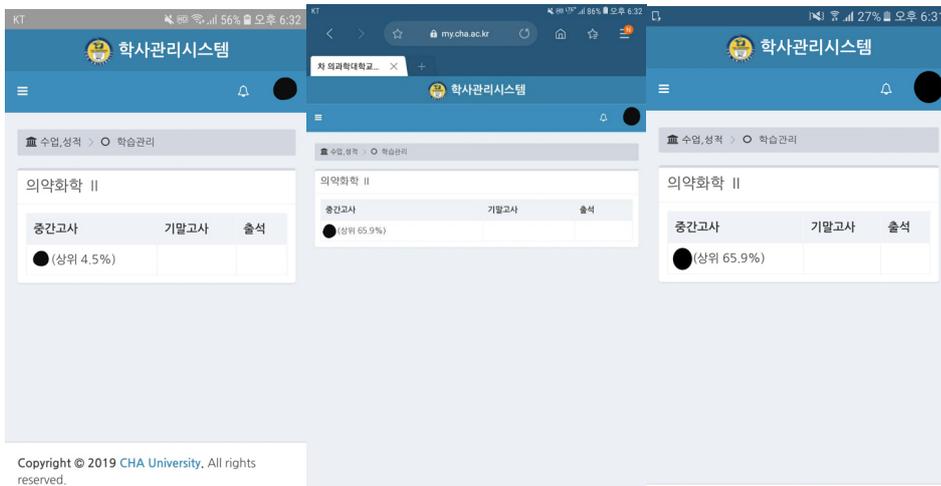


[사진4] 스터디지원금으로 맛있게 먹은 저녁식사



[첨부5] 2차고사 결과

(출처: 차의과학대학교 학사관리시스템/my.cha.ac.kr)



팀명: 미상 (우수)



학습과목: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미학과 미술치료
학습장소: 도서관
학습기간: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5월 2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6	7 ~ 9시	도서관 열린 마루	상담심리학/ 심리학개론 / 미학과 미술치료 등 전공공부
4/2	7 ~ 9시	기숙사 휴게실	중간고사 대비 전공공부
4/9	7 ~ 9시	도서관 북 카페	중간고사 대비 전공공부
5/1	7 ~ 9시	도서관 열린 마루	중간고사 대비 전공 복습, 연습과 교양 공부
5/14	7 ~ 9시	도서관 북 카페	기말고사 대비 및 과제 준비
5/21	7 ~ 9시	기숙사 휴게실	기말고사 대비 전공과 교양 공부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조원1: 혼자 하는 공부가 편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혼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도 1학기 학습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부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공부를 할 때에는 다들 조용히 자신의 공부를 하고,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편하게 친구들에게 물어본 뒤 도움을 얻었습니다. 중간고사 전에는 서로 질문을 만들어 물어보고 대답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서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빠르게 알 수 있었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질문과 대답을 계속 반복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잘 외울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자 할 때는 미뤘었던 공부를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만나니까 미루지 않고 전공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2학기에도 친구들과 함께 학습 소모임을 해서 점수를 점차 향상해 나아가고 싶습니다.</p> <p>조원2: 평소에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학습소모임에 참여해서 친구들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소모임에서 친구들과 공부하는 것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중, 고등학생 때도 친구들과 공부한다고 모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다 떨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소모임 친구들을 모아 공부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소모임 활동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대이상이었죠. 처음에는 다들 처음 하는 학습소모임이라 우왕좌왕 하는 것이 보였는데, 회기가 늘수록 점차 적응하고 각자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안 했을 공부를 친구들과 같이하니 의지도 되고 격려도 되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 더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와 같이하니 모르는 부분도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공부욕도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느꼈습니다. 이번에 학습 소모임에</p>
--------------------------	--

	<p>참여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알았고 다음에도 또 학습소모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조원3: 학습소모임을 시작하기 전, 혼자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서야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을 결성하고 날짜를 정하여 활동을 하니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전공을 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던 중 생기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답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답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단순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대해 보다 깊게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였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다른 것에 주의가 돌려졌을 텐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니 더 노력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신청할 기회가 생긴다면 친구들과 다시 한 번 소모임을 결성하고 싶습니다.</p> <p>조원4: 저는 평소 시험 대비를 약 1주일 전부터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저는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성적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학습 소모임을 시작한 뒤로 함께 모여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네 명이서 같이 모이지 않고 저 혼자 공부할 때에도 약 2시간 정도의 집중력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다른 친구들과의 질의응답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을 친구에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저를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습 소모임을 하면서 질의응답이 결코 이미지를 망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 뒤로부터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이 소모임을 하면서 평소 제 학습법의 문제를 찾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편협한 사고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많은 깨달음을 준 모임인 만큼 다음 기회에도 친구들과 함께 소모임을 결성하고 싶고, 소모임이 아니더라도 지금 모였던 친구들과 다음 시험 기간에도 모여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p>
<p>기타</p>	

팀명: 바돌이 (우수)



학습과목: 회계원리

학습장소: 해룡학사 3층 휴게실

학습기간: 2019년 04월 03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3	19 ~ 22시	해룡학사 3층 휴게실	회계의 의의와 회계정보의 역할
04/16	19 ~ 22시	해룡학사 3층 휴게실	복식부기원리와 회계의 기초
05/03	19 ~ 22시	해룡학사 3층 휴게실	결산수정분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재무제표
06/06	17 ~ 20시	해룡학사 2층 휴게실	재고자산
06/07	17 ~ 20시	해룡학사 3층 휴게실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06/12	17 ~ 20시	해룡학사 3층 휴게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회계원리라는 과목으로 스터디를 시작하였고 이것을 통해 이번 학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가까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회계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 기말고사 준비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느꼈지만 혼자서는 이런 과목을 이해하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스터디를 통해 팀원들과 모르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산수정분개와 재고자산에 대한 개념을 토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고 같이 문제를 풀어본 것이 자격증 대비나 기말고사 준비에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시간을 아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그리고 이번 스터디를 통해 가장 크게 성취감을 느꼈던 부분은 스터디원 전원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학기 초에는 자격증 시험을 두 달 정도만 공부하고 취득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고 모두 경영 전공 학생이 아니라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통해 자격증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서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피드백을 주고받았고 문제풀이 시간을 가지며 자격증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북돋아주며 단합을 하였고 결국 모두 좋은 점수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가 타전공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도전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면 처음엔 어려워 보였던 부분들도 결국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전의 과정에서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	--

	<p>마지막으로 스터디를 통해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공유와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있는 파트는 주도했고 부족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며 좋은 인연 또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를 같이 풀어보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론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였고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였고, 효율적인 협업과정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공유와 협업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스터디 경험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기타</p>	<p>저희는 이번 학기 스터디를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를 참여하여 성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차원에서도 스터디 체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방학 때도 어학 스터디를 신청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학습지원센터에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합니다.</p>

팀명: aunt's care

학습과목: 기기분석-캡스톤디자인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0일 ~ 2019년 05월 30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0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기기분석 과제에 대한 논의.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채택
3/21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기기분석 아이디어 구체화. 지난 모임에서 채택한 아이디어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실행시킬 것인지 논의
4/4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구체화한 아이디어의 디자인을 실현시켜 봄. 아이패드에서 직접 기기 도면을 그림
4/17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기기분석 아이디어 세부 기술 조사. 지난 모임에서 채택한 디자인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실행시킬 것인지 논의
5/1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정수기 디자인을 채택. 물약이 담기는 통의 경우 주사기의 모습과 비슷하게 얇고 긴 형태로 디자인
5/15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채택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기의 디자인을 결정하고 더욱 구체화 시킴. cad로 도면 완성
5/30	4시30분 ~ 5시30분	과학관 102호	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기기 도면을 이용해 시제품을 3D로 구현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 최종 모임</p> <p>aunt's care 팀은 최종적으로 기기 각 부분의 사이즈까지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학생에게 3D printer를 이용해 시제품을 프린트 해달라고 부탁했다. 근로 장학생과 함께 dispenser와 물약 container 도면을 검토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feedback 하며 도면을 수정했고, container 도면 및 locker 기능을 부각시켰다. 며칠 뒤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받아 볼 수 있었고, 물약 container와 물약 꽂는 부분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새롭게 요청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p>
--------------------------	--

√ 최종 결과물



√ 조원들의 의견

- 김지수 - 지난 시간에 보완한 문제점들과 그동안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기를 디자인하니 더 수월하게 잘 디자인 할 수 있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도면으로 실제 제품을 구현해볼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다.
- 이유진 - 기계뿐만 아니라 물약 통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 디테일을 살리고자 했는데 디자인이 잘 나와서 좋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가정용 기기, 물약 container 등 여러 기기를 고안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한은채 - 기기를 직접 디자인해보니 실현시킬 수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3D printer로 실제 제품을 보니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 윤성원 -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고 실용성 있어, 결과물이 좋게 나와 뿌듯했다.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 꿈나무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2019 aunt's care팀 '최우수상'

기타



'꿈나무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2019' 수상팀 안내
[Web발신]
AUNT'S CARE팀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은 학기 중 월요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나오는대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D

-창의인재센터-

팀명: BHC

학습과목: 분석화학1

학습장소: 과학관 105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8일 ~ 2019년 06월 1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 28	4:30 ~ 6:30	과학관 105호	〈1주차 ~ 3주차 복습〉 개요, 용액의 통계 처리, 화학평형을 복습하였습니다. 수업을 들은 후 각자 정리한 요약정리를 공유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조원들이 서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앞부분이기도 하지만 피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였던 내용과 대부분 겹쳤기 때문에 첫 스터디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 11	4:30 ~ 6:30	과학관 105호	〈4주차 ~ 5주차 복습〉 완충용액을 복습하였습니다. 수업을 들은 후 각자 정리한 요약정리를 공유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조원들이 서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문제 풀이를 주로 다루셨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 다시 한 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나와서 조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4. 18	4:30 ~ 6:30	과학관 105호	〈6주차 & 1주차 ~ 5주차 복습 및 중간고사 대비〉 중화적정법을 복습한 것과 더불어,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1주차 ~ 5주차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약정리를 공유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조원들이 서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적정분석법은 피트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도와가며 완벽히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16	4:30 ~ 6:30	과학관 105호	〈9주차 ~ 10주차 복습〉 중화적정법을 복습하였습니다. 2주간 배운 내용의 대부분이 연습 문제 풀이였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 풀이에 쏟았습니다. 또한 각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조원들과 상의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30	4:30 ~ 6:30	과학관 105호	〈11주차 ~ 12주차 복습〉 비수적정법을 복습하였습니다. 비수적정법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생소함이 있듯이, 여태껏 처음 보는 용어, 내용이 섞여있어서 수업 시간에 다소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과 차근차근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여, 문제 풀이를 함으로써 개념을 숙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 13	4:30 ~ 6:30	과학관 105호	〈13주차 ~ 14주차 & 9주차 ~ 12주차 복습 및 기말고사 대비〉 분광분석 개론, 자외가시광선 흡광광도법을 복습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여태껏 학습하였던 기말고사 범위를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간고사 범위 때와 다르게 대부분 처음 듣는 내용, 처음 보는 풀이 방법이 대부분이었기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고준영(약학과 17):</p> <p>이번 스터디에서 조장 역할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었습니다. 편입 전 다닌 학교에서 조장 역할을 맡았을 때는 조원들의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조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동기인 조원들이 평소에 서로 끈끈하게 지내고, 모두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화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계산 문제가 많고, 자칫 한 문제라도 실수하는 순간 시험에서 등수가 낮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 하면서 조원들과 많은 문제를 함께 풀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에서 틀린 점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돕는 과정이 과목에 대한 실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원 모두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져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신승이(약학과 17):</p> <p>지금까지 여러 번의 조모임과 스터디를 참여해 봤었지만, 이번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스터디는 없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하에서 매주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스터디가 느슨해지지 않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학습지원센터에 선발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다면 아무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느슨해지고 결석자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이 있다 보니, 다 같이 분발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기만 하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교과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 과목은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듣는 동안 '이번 주 범위에서 스터디 주제로 어떤 것이 괜찮을까?'와 같은 생각을 하며 한시도 집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이 스터디를 진행한 학우들과 학기 초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스터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통해 동기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보람찬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p>
	<p>이현주(약학과 17):</p> <p>수학이 약한 저에게 분석화학은 정량적 계산 문제가 많아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량 분석을 하는 것은 단위와 자릿수 모두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모여 문제의 풀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조원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더 쉽고 논리적인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학용계산기를 처음 써봤기에 다루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원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이차방정식의 해를 바로 구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계산도 매우 쉽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는 조원들이 있었기에, 저 자신에게 어려운 이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p> <p>대학 과목 특성상 심화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했지만, 조원과 스터디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p>
	<p>윤서연(약학과 17):</p> <p>처음 분석화학 스터디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전공과목 중 제일 계산이 많고 어려워 보여 꾸준히 공부하기 위해 참여하였습니다.</p> <p>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문제에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많고, 같은 문제를 계속 틀려서 의욕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장님과 팀원들이 함께 이끌어주고, 혼자 했다면 포기했었을 문제들까지 배우며 공부하니 점점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p> <p>또한 매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주고, 한 주를 마무리 하며 반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니, 모임을 거듭할수록 제 자신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은 서로의 요약본을 보며 미루지 않고 이해해나갔던 것은 시험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 조원뿐만 아니라 스터디에 참여중이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p> <p>한 번 흥미가 없어진 과목은 학기가 끝날 때 까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p>

이끌어준 조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번 스터디를 통해 너무나도 얻은 것이 많아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조원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한승훈(약학과 17):

저는 화학과를 나왔지만 화학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학을 잘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른 동기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분석화학에 기초가 쌓여 다른 모든 약학 전공과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분석화학 스터디를 선택하였습니다. 분석화학은 다른 약학 전공과목의 실험에 사용되는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론을 현실화 시켜 내가 배운 내용이 구현하는 과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을 현실화 시키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약회사나 다른 공정 과정에 관여할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하여 분석화학 스터디를 선택하였습니다. 다들 PEET라는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당했습니다. 반면에 지식이 많았기에 쌓여있던 오개념은 단단히 굳어 혼자 생각하면 점점 굳어져 더 이상 바꿀수 없게 되기에 서로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가 잘 돌아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내가 배워 가는 것이 있을까? 라는 걱정은 몇 번의 활동으로 인해 싹 지워졌습니다. 예습과 복습으로 수업의 이해도는 높아졌으며 차대 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인해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친밀함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터디로 인해 많은 공부가 되었고, 비록 시험을 잘 치지는 못하더라도 지적자신이 되어 귀중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스터디가 존재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최선희(약학과 17):

처음에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을 지닌 분석화학이라는 학문의 진입장벽이 컸습니다.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실전 문제에 도입하는 훈련 과정까지 두 과정이 모두 어렵고 복잡해 잘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동기들과 함께 여러 번 이론을 반복하고 문제 풀이를 연습하니 어려운 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선 가르치는 자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동기들과 토의를 거치며 자신이 아는 점과 모르는 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해나가며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마운 것은 역시 동기들입니다. 초기에 분석화학이 어려워 잘 따라가지 못하던 저를 옆에 앉아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주며 이해시켜 주었고, 그 덕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런 소모임 학습법과 같은 동기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기타



팀명: Boche

학습과목: 생화학

학습장소: 북카페

학습기간: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5월 27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3.25	18:00 ~ 21:15	북카페	ch2. 수용액에서의 약한 상호작용들
2019.4.1	18:00 ~ 20:40	북카페	ch2. 물, ch3.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ch4. 단백질의 3차원 구조
2019.4.26	12:00 ~ 13:00	북카페	4월 22일에 본 중간고사와 스터디 방식에 대한 피드백
2019.5.13	18:00 ~ 21:30	과학관 220	ch7. 당, 당단백질
2019.5.20	18:00 ~ 21:50	과학관 220	ch9. Nucleotide and nucleic acid
2019.5.27	18:00 ~ 21:00	미래관 311	ch10. Lipids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 은소 공부를 해오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를 남용하는 친구가 있어 아쉬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를 느꼈다. 벌금제는 그저 공부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학기 초반에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좋은 방식이었으나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너무 각자의 타이밍대로만 공부하여 서로 얼마나 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만일 그 시간에 함께 토의를 진행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p> <p>- 예림 바뀐 방법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스스로 공부하려면 다소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의 방법대로 돌아가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더욱 만족스러웠다. 벌금제가 도입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리 공부하고 당일엔 서로 알려주는 것만 하여 시간 역시 절약할 수 있었다. 다만 미리 공부했다는 심리적 안정감 탓에 막상 시험기간에 미뤄두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벌금제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정해 한 명이라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 서로를 끌어주는 스터디가 되기를 바란다.</p> <p>- 민선 시험이 끝난 후에 시험과 스터디 방식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면서 친구들이 우리 스터디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가 있어 조금은 아쉬웠지만 서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함께 스터디를 잘 이끌어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덕분에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열심히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 이번에도 상승된 결과를 기대한다.</p>
-------------------	---

- 세연

이번 학기에 스터디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참여한 일이 빈번했다. 다른 친구들이 새벽까지 공부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공부하며 굉장히 미안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한 부분이라도 완전히 공부하고 참여하기 위해 스터디 시작 전에 30분 정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나보다도 다른 스터디원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학기에는 스스로 생각해도 책임감이 부족했으며, 지난 학기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음 학기에는 정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기타



팀명: drug water

학습과목: 약물학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19일 ~ 2019년 6월 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19	4:40 ~ 5:50	과학관 102호	기초이론: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3.21	4:40 ~ 5:50	과학관 102호	자율신경계 작용약물&심혈관계 및 신장 작용 약물: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3.26	4:40 ~ 5:50	과학관 102호	평활근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약물: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3.28	4:40 ~ 5:50	과학관 102호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4.2	4:40 ~ 5:50	과학관 102호	혈액질환, 염증 및 통풍 치료 약물: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해당 논문 읽기(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확인하는 절차) 중간고사 대비 전체 정리본 공유
5.21	4:40 ~ 5:50	과학관 102호	내분비계 작용 약물, 화학요법 약물: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5.28	4:40 ~ 5:50	과학관 102호	독성학: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6.4	4:40 ~ 5:50	과학관 102호	위장관질환 치료약: 내용 복습, 정리본 만들기, 암기법 공유 해당 논문 읽기(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확인하는 절차) 기말고사 대비 전체 정리본 공유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약물학은 약물의 기원, 물리/화학적 성질, 약동학적 특성(ADME), 생체에 대한 작용 및 그 기전, 독성, 용법/용량 등 기본 지식과 임상에서의 응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약물의 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는 생물학적 기초 지식부터 임상에서 필요한 인체에 대한 여러 학문들의 종합적인 지식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이해와 각 약물의 특징에 대한 암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를 혼자 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런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p> <p>특히 각 약물의 기전을 암기할 때 헛갈리는 점이나 밀도 높은 수업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점을 스터디원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였고 암기법을 서로 공유해 학습 효과를 높였다. 특히 정리하는 사람을 주마다 나누어서 정리했는데 이는 시험기간 준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였다.</p> <p>기초가 부족한 스터디원은 튜터 신다영 학우가 1대1 스터디를 진행하였으며 따로 퀴즈를 통해 복습을 확실하게 하였다.</p> <p>자율신경계 작용약물이나 심혈관계 및 신장 작용 약물 section을 진행할 때 방대한 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절한 개인 복습과 정리본 만들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p>
기타	앞으로도 스터디를 꾸준히 참여하여 약물학에 대한 지식을 원활히 습득하고 싶다.

팀명: Young Solbrain

학습과목: 약물학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6월 20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01	17시 00분 ~ 18시 00분	과학관 102호	약물학의 기초 내용 정리
4.11	15시 30분 ~ 17시 30분	과학관 102호	콜린성 agonist, antagonist의 기전 정리
4.18	15시 30분 ~ 17시 30분	과학관 102호	아드레날린성 agonist, antagonist의 기전 정리
5.22	15시 30분 ~ 17시 30분	과학관 102호	고혈압의 병태 생리와 항고혈압약의 기전 정리
5.27	15시 30분 ~ 17시 30분	과학관 102호	심부전의 병태 생리와 심부전 치료약의 기전 정리
6.14	15시 30분 ~ 17시 30분	과학관 102호	천식의 병태 생리와 천식 치료약의 기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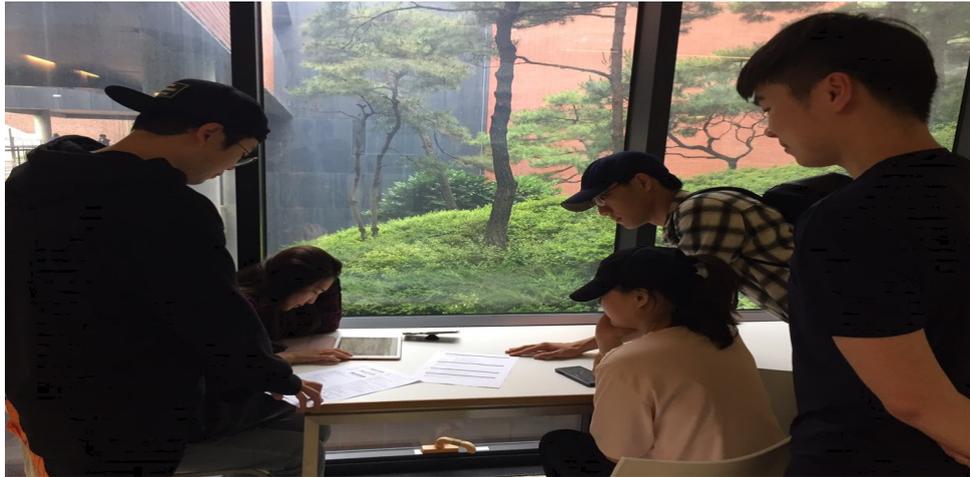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이번 학기 스터디는 우리 조원들의 약물학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약물학이란 과목 특성상 암기해야 할 사항들도 굉장히 많다. 약들의 이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약들의 기전도 다양하고 그 약들에 반응하는 체내 대사도 다양해서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스터디 조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약들에 대해 정리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약물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 약물학 기말 시험을 보는 그 날까지 모두 고생이 정말 많았다. 1학기 약물학을 정리한 페이지 수만 무려 120쪽에 달했다. 약물학을 정리한 노트를 보면 한 학기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듯하다. 고생한 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약물학 지식들을 오래 기억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조원들의 성적도 모두 좋아 더 보람찼다. 앞으로 2학기 때도 스터디를 만들어 약물학을 공부할 계획이다. 이번 1학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부법도 개발해보고 효율적인 스터디 활동을 위해 많은 고민도 더 해 볼 계획이다. 스터디 조원들의 소감을 끝으로 이번 1학기 Young Sol Brain 활동을 마무리하겠다.</p> <p>김상욱: 이번 한 학기 약물학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조원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약물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 했을 것이다. 열심히 참여한 모든 조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p> <p>박예람: 이번 학기 과목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약물학이었다. 약물학을 혼자 했더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조원들 모두에게 고맙다. 2학기 때도 서로서로 도우며 스터디를 잘 진행해보고 싶다.</p> <p>유영운: 이번 스터디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혼자서라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텐데 함께하니 훨씬 수월했다. 약물학은 외울 것도 많고 헛갈리는 것도 많은데 서로의 암기법과 필기를 공유하니 남들보다 더 쉽게 약물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때도 스터디 활동을 통해 약물학 공부를 하고 싶다.</p>
--------------------------	---

이영미: 조원들과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이 야식도 먹으면서 공부도 하니 더 재미있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스터디 활동을 통해 더 재미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정진규: 조원들과의 협력이 아니었다면 이번 학기 약물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지 못 했을 것이다. 시험 기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조원들이 너무 고맙다. 다음 학기에도 이 멤버 그대로 또 스터디 활동을 하고 싶다.

기타



팀명: 과탐S

학습과목: 일반 생물학

학습장소: 해룡학사 313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06월 1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4.04	20:00 ~ 22:00	해룡학사 313호	Ch2. The Chemical Basis of Life Ch3. The Molecules of Cells
19.04.25	20:00 ~ 22:00	해룡학사 313호	Ch4. A Tour of the Cell Ch5. The Working Cell
19.05.23	20:00 ~ 22:00	해룡학사 313호	Ch6. How Cells Harvest Chemical Energy Ch7. Photosynthesis: Using Light to Make Food
19.05.30	20:00 ~ 23:00	해룡학사 313호	Ch8. The Cellular Basis of Reproduction and Inheritance Ch9. Patterns of Inheritance Ch10. Molecular Biology of the Gene
19.06.06	20:00 ~ 23:00	해룡학사 313호	Ch11. How Genes Are Controlled Ch12. DNA Technology and Genomics
19.06.13	20:00 ~ 23:00	해룡학사 313호	교재 Ch8 ~ 12.의 문제를 풀며 기말고사를 대비하였다.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조병훈: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 교육과정을 넘어서까지 스스로 탐구하였다. 대학교에 들어서면서 영어로 일반생물학이란 과목을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과정과 비슷했지만 나에게게는 새롭게 다가왔다.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들은 생물학 영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수업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강의 ppt를 활용하여 영단어도 낮아져지고 교수님께는 강의 시간에 이해가 안 됐던 애매한 질문도 물어보며 수업내용을 복습하게 되어 수업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스터디원 1명이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그림, 비유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각자마다 어떠한 이유든지 모임을 진행하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어서 고마울 따름이다. 다음에도 교과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할 생각이다.</p> <p>이경민: 일반 생물학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 과목은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좋은 성적 받기 힘들겠는데?' 싶었다. 때마침 교과 스터디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마음이 맞는 동기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소모임을 만들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교재가 영어 원서인데다가 공부해야 하는 양도 많아서 소모임 활동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1회 차 때 깨닫고 2회 차부터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일단 교재가 영어 원서로</p>
-------------------	--

	<p>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미리 찾아오는 것은 필수였다. 그래야 좀 더 적은 시간 안에 그날 정해진 분량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 중간에 놓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미리 공부해서 이해한 것들을 알려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 자신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혼자서는 힘들어했을 것들을 스터디원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니까 좀 더 수월했고 모임 후에 복습할 때도 수업 내용이 더 잘 떠올랐다. 만약 2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여 교과 스터디 소모임을 또 만들어 더 큰 성장을 하고 싶다.</p> <p>홍진우: 대학교 입학한 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모임을 창설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스터디 활동이었다. 결과적으로, 동기들과 생물학 스터디를 개설하여 진행하였고, 이상적인 스터디의 모습처럼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스터디 활동을 했던 것 같다. 처음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식의 공유가 일어나는지 굉장히 막막하고 앞으로 이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문도 생겼었다. 하지만 같이 모여서 공부하며, 이론을 학습할 때 의문이 발생한 지점을 서로 말하다 보니, 이런 저런 자신들의 생각이 오고 가며 공유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문점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혼자 공부 했었다면, 혼자 생각하며 공공 않고 있었던 문제들을,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니 보다 쉽고 이해하기 수월했었다. 이런 생각들은 다음 학기에도 스터디를 개설해 토의 공부법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굳혀졌다.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통한 공부 방법이 학업 성적에 도움이 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
<p>기타</p>	<p>아직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아 학기말 성적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스터디원들 모두가 중간고사 일반 생물학 성적이 각 반에서 1,2등을 차지하였다. 수업 이후 소모임 시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복습을 철저하게 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기말고사에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중점으로 공부해 나갈 것이다.</p> <p>원래 계획한 대로라면 수업내용 중에 나오는 영단어를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했지만 일반생물학 이외의 과목들과 보고서들도 준비해야 했기에 영단어는 각자가 숙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모임 진행 전 이미 구비되어있던 생물 기본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려 했지만 문제집에 비해 강의 교재의 수준이 낮아 교재에 있는 복습 문제를 푸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p>

팀명: 굿다

학습과목: 미술치료 진로 세미나

학습장소: 카페, CBC, 교내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5월 2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329	14:30 ~ 16:30	강남역 카페	각자 미술치료의 진로 및 전망을 조사해온 뒤 나누는 시간을 가짐
190405	14:30 ~ 16:30	교내	미술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내가 가진 치료사로서의 약점과 강점을 탐색
190419	19:00 ~ 22:00	CBC	전공 관련 관심분야의 특강에 참관하고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눔
190428	18:00 ~ 21:00	한국심리상담 센터목동지점, 근처 카페	한국심리상담센터에서 뇌파검사를 받은 뒤 나눔을 진행하였음
190509	16:30 ~ 20:00	교내	클레이 질문카드를 사용하여 자기탐색 미술치료 워크샵진행, 질문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논의
190525	13:00 ~ 17:00	잠실새내역 부근 카페	'참만남 카드'를 통한 자기탐색 활동 진행, 지금까지의 교과스터디 활동 총정리 및 소감 나누기, 앞으로의 진로계획 세워보기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한 학기 동안 6번의 모임을 가졌고, 3번은 미술치료의 전망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3번은 치료사로서 소양을 탐색하고 기르는 내용으로 활동했다.</p> <p>4학년으로서 곧 졸업을 앞두고있기에 셋 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 실제 현장에 대한 궁금증, 지금까지 이론만으로 배워왔고 실습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분야가 나와 잘 맞을지에 대한 불안함 등이 있었는데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p> <p>특히 네 번째 모임에서 한 뇌파검사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미술치료의 새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학문과 접목하여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술치료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p> <p>두 번째 모임에서 진행한 미술치료사의 자질에 대한 탐색과 나의 치료사로서 약점, 강점 탐색도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전공수업을 통해 이러한 워크샵을 많이 진행해 왔지만 소규모로, 친한 사람들과만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 더 심도 있게 워크샵을 진행 할 수 있었다.</p> <p>4학년이 되며 각자 다른 수업을 듣는 일이 많아 이전처럼 모여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워크샵을 진행할 기회가 줄어들어 아쉬웠는데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팀원들과 실행해 나갈 수 있어 진로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 뜻 깊었다.</p>
-----------------------	---

팀명: 김오투윤

학습과목: 생화학

학습장소: 과학관,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7일 ~ 2019년 06월 1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7	17:30 ~ 19:00	과학관 104호	생화학의 첫 단원인 물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주변에서 또한 우리 신체에서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물의 특징을 생화학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4/7	17:30 ~ 19:30	미래관 309호	우리 신체에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단백질, 그 중 그 기본 단위를 이루는 아미노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에서도 중요히 여겨지는 효소의 화학적 특징과 정량적인 특징도 살펴보았다.
5/15	17:30 ~ 21:30	과학관 219호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탄수화물은 당이라고도 하며 당의 기본 성분이 단당과 단당이 두 개가 모여 형성된 이당, 그리고 다당의 특징들을 모두 살펴보았다. 당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에너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 골격 등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이다.
5/22	17:30 ~ 21:30	과학관 219호	이 날 스터디 활동에서는 핵산의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와 그에 대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RNA의 구조적인 특성이 주를 이루는 단원이다. DNA와 RNA는 그들의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에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핵산에 담긴 유전 정보, 즉 염기 서열들을 분석할 수 있는(대표적으로 Sanger method) 다양한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기술들은 pyrosequencing과 같은 현대적 기술로도 발전하고 있다.
5/29	17:30 ~ 21:30	과학관 219호	9강은 우리가 앞서 핵산의 구조, 핵산의 연결 방법 등을 배웠다면, 이러한 특성을 응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얻을 수 있도록 조작하는 재조합 DNA를 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단원에서는 재조합 DNA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즉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재조합이 된 DNA를 숙주 세포 내에서 골라낼 수 있는 방법도 숙지해야하며, DNA 클로닝이라는 재조합 기술의 응용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6/5	17:30 ~ 21:30	과학관 219호	본 6회차 스터디 활동은 시험에 비중이 가장 높게 출제되는 7, 8, 9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튜터가 튜티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이번 스터디 활동은 생화학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철저하게 해주었다. 튜티들은 광범위한 범위를 튜티가 정리해서 올려줌으로 인해서 시간 절약 및 핵심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알려주는 튜티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모르는 점 또는 튜티들에게 궁금해할만한 점을 스스로 공부하여 생화학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를 통해 처음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생화학이 철저히 논리적이고 이해하면 모두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깨달았고 이를 통해 생화학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스터디의 좋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다. 튜티가 생화학만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튜티 또한 남들과 같은 학생이므로 튜티들을 알려주기 위해 과하게 공부했어야 하는 점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쉬웠던 점 같다. 또한, 튜티들도 본인들이 해야 하는 공부 과목이 있는데 스터디 활동이 그 시간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스터디 활동이었지만 전공 중 가장 중요한 생화학에 대한 빠른 이해 및 깊은 이해가 앞으로의 진로 및 전공 공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스터디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p>
------------------------------	--

팀명: 꾸꾸까까

학습과목: 기기분석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6월 20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02(1회)	16:30 ~ 17:30	과학관 102호	pharmaceutical analysis에 대해서 공부하였다.
5/14(2회)	18:00 ~ 21:00	과학관 102호	convenient & fasionable IR nail tip
5/27(3회)	15 ~ 16:30	과학관 102호	현재 이슈가 되는 마약을 알아보고 검출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6/3(4회)	15:30 ~ 17:30	과학관 102호	TLC HPLC 등의 크로마토 그래피에 대해서 공부 한다.
6/4(5회)	16:30 ~ 18:00	과학관 102호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NMR에 대해서 공부한다.
6/20(6회)	12:00 ~ 13:30	과학관 102호	micellaneous method 및 바이오기술로 생산한 prodrug 탐구.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과학은 우리 주변의 많은 미지의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내는 학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지의 물질을 분석하고 정량하는 과정은 과학적 분석의 토대가 된다. 분석학은 약학에서도 크게 응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약은 신체에 투여되어 유기적으로 ADME(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의 4단계 과정을 거쳐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미지의 약품의 구조를 규명할 때, 신약을 합성하는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물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 기기분석학은 주요하게 응용될 수 있다.</p> <p>기기분석학이 다분히 여러 분석 장치들의 작동원리와 적용 등의 기술적인 내용을 배우는 학문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거의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기기들의 작동원리와 근간이 되는 것을 잘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였다.</p> <p>약학적 분석 방법의 개괄적인 큰 그림을 학습하고 세부적으로는 마약을 검출하는 내용으로 분석 원리와 방법을 확장시켰으며, 분석법의 약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였다. LSD, Cocaine, marijuana 등 일상생활에 만연한 마약에 대해 파헤치고 분석하여 검출하는 방법을 공부하였다. 이과정에서 누군가는 배움의 적용에 대한 흥미를, 누군가는 약과학자의 진로에 대한 고찰을, 누군가는 식약처 공무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IR을 학습한 날에는 기기분석 장치를 고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날이었다. 장 물질의 물성을 기반으로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이해하였다. 특히 이동상과, 고정상, 시료의 극성에 따른 친화도에 기반 하여 분리가 되는 내용은 3학년 때, 갈고닦은 물리 약학적 원리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빨랐으며 약학을 공부할 때, 탄탄한 기본이 중요함을 절감하였다.</p>
--------------------------	--

	<p>크로마토 그래피를 TCL와 HPLC로 세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공부하였다. 또한 NMR의 특성과 원리를 공부하였고 특히, 예제를 통하여 peak를 보고 실제 화합물의 구조를 도출하는 연습을 하였다. 체내에서 대사되기 전에 좋은 제형을 위해 만들어 놓은 대사체인 prodrug를 공부하였고 생산에 이용되는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p> <p>이렇게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기기분석학에 대한 이해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과목의 학습 목표와 세부 내용들을 잘 숙지하게 되었다. 매주 모임을 하면서 내용을 상기하고 복습을 함으로써, 즉 스터디를 하나의 학습수단으로 심분 활용하면서 교과목에 대한 이해와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시간이었다.</p>
기타	<p>스터디를 통해 조원들의 각각의 강점이 부각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다. 전상원은 조장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였다. 전상원과 유영은 박준석 조원은 학업 이해가 뛰어났으며 다른 조원들의 부족한 이해를 채워주었다. 민명기 조원은 가장 성실하여 스터디가 바로 운영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상민 조원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힘이 있어 막히는 문제의 해답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고 최문혁 조원은 스터디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역할을 맡았다. 또 그러한 강점이 한데 어우러져 훌륭한 학습 시너지를 내는 스터디 활동이었다.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학업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성향을 살린 역할 분담을 배우게 되었으며 구성원들 간에 조화롭게 화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p>

팀명: 맨보얼

학습과목: 분자생물학

학습장소: 차과이어방

학습기간: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05월 30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4(목)	21:00-23:3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1, 2 (~ The structure of DNA)
4/5(금)	21:00-23:0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2, 3 (~ The versatility of RNA)
4/6(토)	19:00-22:3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3, 4 (~ Protein function and regulation of activity)
4/11(목)	21:00-23:3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5 (Protein Structure and Folding)
4/18(화)	21:00-23:3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6 (Genome Organization and Evolution)
4/20(목)	21:00-23:3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7 (DNA Repair Pathways)
5/30(목)	19:00-21:30	차과이어방	분자생물학 Chapter 10 Transcription of Bacteria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신대웅: 3학년이 되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공부할 양이 많았다. 혼자선 도저히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이어서, 전부터 해오던 스터디를 계속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왔다. 한 학기를 끝마친 지금의 느낌은, 스터디가 있었던 덕분에 좀 힘들고 처질 때에도 같이 공부하고 힘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힘들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2학기 때에도 같이 잘 해서 좋은 결과 내면 좋겠다.</p> <p>김효정: 나는 스터디의 효과를 많이 보았다. 혼자 공부하려면 읽다가 졸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을 텐데 각자 공부한 부분 설명을 듣고, 간단한건 스터디 할 때 바로바로 외워버렸더니 시험 칠 때 훨씬 나왔다. 중간고사를 보고 스터디원 4명의 성적이 최상위권에 주르륵 위치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부듯했다. 앞으로도 같이 잘 해보았으면 좋겠다.</p> <p>박홍범: 우리 스터디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어져왔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듯하다. 지옥 같았던 3학년 전공들도, 스터디가 있었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나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줄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함께 라서 이겨낼 수 있었다.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낀다.</p>
------------------------------	---

기타



그림 31 시험 전날 밤샘 스터디 할 때!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팀명: 미생완생

학습과목: 미생물학

학습장소: 과학관 105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06월 1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4.04	16:00 ~ 18:00	과학관 105호	약품 미생물학 1장 (미생물의 역사, 접종, 분석)문제 풀이
19.06.03	16:30 ~ 18:30	과학관 105호	미생물의 유전, 분자생물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 복습
19.06.07	16:30 ~ 18:30	과학관 105호	미생물 대사(glycolytic pathway, TCA cycle)에 대한 내용 학습
19.06.10	17:00 ~ 19:00	과학관 105호	감염 미생물 테이블 암기 및 모의 테스트
19.06.12	16:30 ~ 18:30	과학관 105호	미생물의 유전요약 정리 및 복습
19.06.14	16:40 ~ 18:00	과학관 105호	미생물학1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김선주(약학과 17) - 한 학기동안 학습법 소모임을 하며 여러 느낀 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결실은 동기들끼리 더욱 뭉치고 함께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대 특성상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방대한 양과 어려움을 소모임을 통해 극복한 것 같아 뿌듯하다. 혼자서는 며칠을 고민할 부분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니 빨리 이해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일 역시 뜻 깊었다. 또한 미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약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모임을 통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어 좋았고 부족한 조장이었지만 함께 잘 따라 와준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본교 측에 또 한 번 감사하다.</p> <p>박지수(약학과 17) - 한 학기동안 가장 부담스러웠던 과목이어서, 스터디를 한 것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모의 오랄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 스터디원 전원이 실제 테스트에서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또한 당일 공부한 내용들을 조원들과 토의함으로써 서로 이해가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보충이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려 3차에 걸친 미생물학 시험 전에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의논했었는데, 이게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p> <p>배민재(약학과 17) - 전자공학과에서 배웠던 수식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에서 약학과로 편입한 후 방대한 양의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부는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이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 과목이 미생물학이었습니다. 그래서</p>
-------------------	--

미생물학 소모임에 들어왔고 동기들의 암기 방법과 말하면서 진행하는 공부 방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학기에 익힌 공부 방법을 토대로 다음 학기에 수강하는 미생물학2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윤정(약학과 17) -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터디를 지원해주고 도와준다는 게 처음에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한 학기가 끝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보고 나니 소모임하기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나 스스로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처음 스터디를 기획할 때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약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 하나였던 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는 방향에도 소모임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기로 했는데 소모임 덕분에 아주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권희(약학과 17) - 전 적대에서 차의과학대학교로 새로 편입하면서 기존에 배우던 과목들과는 상당히 상이한 내용의 과목들로 이루어져있어서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다. 공부하는 방식 또한 새로 익혀야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며 의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다. 자연스럽게 강의에 쉽게 적응하게 되고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새 학년 새 학기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된 소모임이었다. 이번 소모임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남은 대학생활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은혜(약학과 17) - 차 의과학대학교에서 맞이하는 첫 학기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할지 두려웠는데 학기 중 학습 소모임을 통해 좋은 동기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원충, 진균,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학명과 계통 명을 완벽히 외워야하는 분량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언제 다 외우지 싶었는데 동기들과 하브루타 방식으로 외우니까 효율적으로 암기 할 수 있었다. 또한 한 학기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같이 끙끙대며 외웠던 때를 되돌아보면, 그 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지만 앞으로 종종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 같다.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었지만 학습 소모임을 통해 조원들과 스터디를 하며 공부할 때마다 서로 격려해줄 수 있어 좋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공유하고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효율적이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을 스터디 원들에게 공유해줌으로써 스터디 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었다.

기타



팀명: 박혁거세

학습과목: 보건학원론

학습장소: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4월 08일 ~ 2019년 06월 1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4.08	12:00 ~ 1:20	미래관 라운지	<보건학의 역사와 발전> - 공중보건학의 정의 - 공중보건학의 역사: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확립기, 발전기 - 21세기 첨단보건산업 - 퀴즈
2019.04.11	12:00 ~ 1:20	차우라홀	<보건학의 연구방법론> - 역학적 방법: 기술역학, 분석역학, 이론역학, 실험역학 - 사회조사와 주요 보건 통계 자료 -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
2019.05.13	11:30 ~ 1:20	미래관	<감염병 관리> - 질병발생 요인 - 감염병 발생 과정 - 법정 감염병 - 문제풀이
2019.05.23	11:30 ~ 1:20	미래관	<식품위생, 영양, 기생충 질환> - 식품 위생의 3대 요소 - 식품으로 인한 질병 - 영양소의 기능 및 역할 -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응답
2019.06.03	11:30 ~ 1:20	미래관	<인구와 보건> - 인구의 보건학적 의미 - 인구의 출생과 사망 지표 - 문제 풀이
2019.06.13	11:30 ~ 1:20	미래관	<식중독> - 식중독의 정의와 종류 - 문제풀이 및 질의응답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공세린: 대학교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대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다. 그러던 중 친구가 학습 소모임을 같이 하자고 했다. 한다고는 했었지만 3명에서 하는 거라 이게 잘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팀장 수진이 덕분에 잘 운영 될 수 있었다. 전공과목이라 양도 많고 어려웠는데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 낼 수 있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p>
-------------------	---

편하게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팀원들과 시험기간에 보건학원론 책에 있는 문제도 풀면서 내용을 익혔다.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한 활동이고 처음으로 잘 마무리한 활동이라서 부듯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팀원들과 시간 조율이 힘들어서 많이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다. 다음 번에 또 친구들과 전공과목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으로 소모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하늘: 혼자서 시험공부를 준비하고 학점 관리하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소모임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자서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날짜를 정해두고 각자 설명해 올 분량을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모임을 갖다보니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자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소모임 때 함께 상의하고 알아가는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동기들과 다과를 같이 즐기면서 공부를 해서 집중도 잘 되었고, 전공 학점을 위해 만났지만, 점수 뿐 만이 아니라 동기들과의 사이도 친밀해져서 새내기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대학생활 동안 모임을 갖기 때문에 소모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조금 더 시간이 넉넉하게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 새내기라서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오히려 새내기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졌다.

김수진: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 다르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소모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교과 스터디 소모임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스터디 활동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했지만 처음 걱정과는 달리 소수 정원이라 더 원활하게 스터디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게다가 팀원들에게 내가 맡은 분량의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공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스터디 활동을 통해 팀원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어서 더 수월하게 학습 할 수 있었다. 팀원들이 잘 협조해 주고 도와준 덕분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팀원들이 스터디 활동에 대해 무관심 했더라면 혼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팀장을 믿고 잘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교과 스터디도 좋지만 전혀 다른 비교과 활동을 해보고 싶다.

기타



팀명: 사.약.인

학습과목: 의약품행정학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06월 07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4.04	4:30 - 7:30	과학관 103	고혈압 환자의 약물치료 / 산 염기 장애, 정맥 혈전색전증, 심부전의 정의, 평가 및 치료
2019.04.11	4:30 - 7:30	과학관 103	산-염기 장애의 약물치료, 정맥혈전색전증의 약물치료
2019.04.30	4:30 - 7:30	과학관 103	A형,B형 간염과 C형 간염
2019.06.07	4:30 - 7:30	과학관 103	당뇨병의 치료 및 계획 수립
2019.06.10	4:30 - 7:30	과학관 103	천식 및 COPD의 병인, 증상, 진단 및 약물치료
2019.06.13	4:30 - 7:30	과학관 103	간염 환자의 약물치료 / 간경변 환자의 약물치료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안지은	혼자 공부할 때보다 여럿이서 같이 공부하다보니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궁금증을 풀어 낼 수 있어서 좋았다.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경록	다 같이 정리를 함으로써 단순히 공부를 그냥 의논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질병 하나에 대해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최신예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질병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에 대해 서로 모르는 것에 대해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해줌으로써 그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번 스터디를 통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다.
	최지환	질병마다 치료계획과 상황에 따라 써야 되는 약물이 매번 달라졌었는데 이번에 표로 정리 함으로써 언제 약을 쓰고 언제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함으로써 보다 머리에 많이 남았던 것 같다.

당뇨병의 종류와 진단 & 증상								
- 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형) : 갑자기 발생, 일반적으로 날씬, 최근 체중 감소, 베타세포의 75%이상 파괴 /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주로 제 1형에서 나타남) - 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형) : 유전적 소인 결합, 비만과 동반되는 경우 70~80% 식이요법/운동요법 등으로 조절 가능, 서서히 발생, 전체 당뇨의 90%, 말단 조직의 당 비효율적 사용 - 임신성 당뇨 : 임신중 혈당조절 이상 시, 출산 후 정상 회복, 산모는 합병증으로 고혈압, 간질, 2형 당뇨 발생 위험 증가, 태아는 거구증, 저혈당, 황달, RDS 등 - * 당뇨병 진단 : 공복후 혈당 (FPG) >126 or 식후 2h 혈당 (2HP) ≥200 당화혈색소 A1c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치 반영 = HbA1C ≥6.5% - 임신성 당뇨병 진단 : 110미미, 임부하혈당 140미미, 당화혈색소 6.5미미 / 4당화혈색소는 임신과 당뇨의 시이 차이 (당뇨 진단) -> 임신성 당뇨 진단 : 기운 = OGTT (Oral glucose tolerance test) → 각각 공복/식후 1시간/2시간의 수치를 살펴보는 경우가 1개 이상인 경우 75g 무수포도당용액 투여 시, ① Fasting>95, ② 1h>180, ③ 2h>155 → ①-③번 중 하나 이상 양성인 경우 임신성 당뇨로 진단 -> 노년사 : 제 1형 당뇨병 환자 케톤체 검사 필요 (케톤산증 의심시), 미세알부민뇨의 진행 추적 위해 단백뇨 검사 진행 (신장 약화 시) - 당뇨병상 : 고혈당, 당뇨, 다음, 다갈, 다식 (보완감 증추 1), 체중감소(1형), 시야흐림, 피로감, 감염증가 손발저림, 자율신경장애, 케톤산증(응급상황, 노케톤체 검사)								
인슐린 종류 (대상 : 1형 당뇨, 임신성 당뇨, 조절x 2형 당뇨, 케톤산증)	발현시간	최고작용(Peak)	작용시간	제1방법	제2방법	제3,4방법		
식사시 인슐린 (Prandial)	초속효성 Insulin Analog Aspart Lispro Gulisine	5~15 min	30~30 min	4~6 h (1/4일)	총용량 2/3중 1)아침식전 Regular 1/3 NPH 2/3	총용량 2/3중 1)아침식전 Regular 1/3 NPH 2/3	1)아침식전 2)점심식전 3)저녁식전 Regular 투여 4)아침 or 저녁 장기간형 or NPH	
		속효성 Insulin Insulin Regular	30~60 min	2~3 h	8~10 h	나머지 1/3중 2)저녁식전 Regular 1/2 NPH 1/2		나머지 1/3중 2)저녁식전 3)취침전 NPH 1/2
		중간형 Insulin NPH	1~3 h	5~8 h	12~18 h (1/2일)	2)저녁식전 Regular 1/2 NPH 1/2		3)취침전 NPH 1/2
기저 인슐린 (Basal) → bolus 투여	장시간형 기저Insulin Analog Detemir Gargine	90 min	없음	20~24 h				
혼합형 인슐린 (Mix)	초속효성/속효성 + 중간형 30/70 (RNPH) 50/50 (RNPH)		Vial 과 Pen 형 인슐린 안에 3:7, 5:5 비율로 섞여 있어 prandial & basal 인슐린 동시 투여가능(편리)		총용량 2/3중 아침식전 30/70 나머지 1/3중 저녁식전 50/50	3회 투여하는 대신 1방범의 Dawn현상 개선		
Somogyi 현상 - 새벽3시에 저혈당의 반작용으로 아침공복 고혈당 → 저녁 인슐린 감소 or 취침 전 투여			Dawn 현상 - 새벽 insulin 저항성 증가로 새벽3시 혈당 정상/증가, 아침공복 고혈당 → 저녁 인슐린 증가시켜야함					
집중 인슐린 치료 : 매일 3회 이상 인슐린 투여 & 4회 이상 혈당 측정 → 식전, 식후, 취침전, 야간식전, 취침전후 인슐린 용량 결정) or 인슐린 PUMP 인슐린 부작용 : 저혈당 (<50mg/dL) 시야흐림, 발한, 떨림, 심계항진, 허기짐, 불안, 혼돈 등) 과민반응(옴, 가렵고 화끈거림), 지방이상증(주사부위에 지방위축)								
인슐린 비교	제 1 방법	제 2 방법	제 3 방법	제 4 방법	기저인슐린투여			

위와 같이 질병마다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다 같이 질병 공부를 해나갔다.
(첨부 1. 결핵)

기타

2형 당뇨병 치료요법						
약물군	작용	약물	특징	부작용	비고	
Sulfonylureas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증가	Chlorpropamide	1세대 긴 반감기(신배설) 간에서 빠른 제거	저혈당, 체중증가 심혈관계 위험 ↑	1세대는 단백질합력 ↑ 약물상호작용 많 신배설	
		Tolbutamide				
		Glyburide	2세대 서방형, 속효성			
		Glimepiride, Glipizide				
Meglitinides		Repaglinides, Nateglinides	Sulfonylurea보다 빠른 작용 혈당의존적 Insulin 분비 신장에 환자 사용가능		금기 : 1형 당뇨, 케톤산증, 고혈압 약물상호작용 많 metformin 병용 단독 / 식전투여	
Biguanides	간 & 말초조직 Insulin 감수성 ↑ 간에서 당 생성 ↓ 위장관 당 흡수 ↓, 말초 당 흡수 ↑	Metformin	2형 당뇨 1차 약물(가장 선호) 체중감소, 저혈당x, 혈중지질개선 식사와 함께 복용	위장관 증상(구역) Lactic Acidosis	산증 환자에게 금기(lactate 대사) 신배설 약물과 상호작용	
α-Glucosidase Inhibitors	위장관에서 α-Glucosidase에 의한 다당류 흡수를 억제, 식후 혈당 ↓	Acarbose Voglibose	식사 첫술 후 복용 체중증가 & 저혈당 없음	소화장애	금기 : 임신부, 수유부, 소화기질환	
Thiazolidinediones	PPARγ의 강력한 선택적 작용제 말과 지질대사 관련 유전자 생성 근육 간 지방의 인슐린 감수성 ↑	Rosiglitazone (시판x) Pioglitazone	혈당강화효과 ↑ 한동안 약물사용제한 조치를 당함	체중증가, 부종, 심부전, 골절	금기 : 중증 심부전, 간장애	
Glucagon-Like Peptide-1	식사후 위에서 분비되는 incretin Hormone(혈당의존적 인슐린 분비)	GLP-1 receptor agonist(Exenatide)	피하주사 체중감소, 저혈당x, 혈중지질개선	오심, 위장장애	신장에 주의	
DPP-4 Inhibitors	Incretin 분해억제, 내인성GLP-1 ↑ by DPP-4 분해 (GLP-1분해효소)	Sitagliptin Vildagliptin Linagliptin	체중증가 & 저혈당 없음	오심, 두통		
Amylin 유도제	Amylin은 식후 인슐린과 함께 혈당조절	Pramlintide	식전 피하주사 / 체중감소 1 & 2형 당뇨에 투여가능	두통, 피로감, 저혈당, 오심	Insulin과 분리 투여	
- 노인관리 : 저혈당 발생 취약 동반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및 노인증후군 (다약제복용, 우울, 통증) 등의 기능장애 동반 가능성 높 병용요법 : Insulin분비자극 + 혈당도 상승 → 2차성 실패환자 대상						
		Sulfonylurea + Metformin HbA1c 감소를 최대	Sulfonylurea + Insulin (usually basal 사용)	Acarbose + Sulfonylurea / Insulin / Repaglinide		
복수상형 혈당관리		입원환자의 180 이상 시 Insulin 투여	소아청소년기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개선, Metformin	노인인 저혈당 발생에 취약		

기타

결핵 세계적인 주요 감염질환. 폐의 결절(tubercule)에서 유래
 잠복성, 전염성, 활동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음. *매년 3월 24일 → 결핵의 날*
 → 적절한 치료 받지 않으면 잠잠적 조직파괴 & 사망
 • 결핵환자 치료 시작 후 전염성 ↓: streptomycin → isoniazid → rifampin
 • 85년 이후 전염성 ↑: AIDS(HIV), 면역억제제, 다제약물내성
 • 세계인구의 1/3 결핵감염 (전부 활동성은 아님)
원인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 사람
 M. kansasii, M. fortuitum, *M. avium complex*(MAC)
 ↓, HIV 환자에게 감염 ↑

염색
 Gram staining 약한 양성이거나 반응 x
 AFB staining Cabot-fuchsin - 산성 알코올 - 탈색 x (빨갭게 남아있음)

진파 공기로 전파 (아주 미세한 침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나옴)

주요 감염원 치료받지 않는 객담도말 양성환자
 → 활동성 결핵환자의 신속한 발견과 치료로 전염을 예방
 (결핵균 감염자 모두가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x → 5-15%만 활동성 결핵)

결핵의 위험인자
 활동성 결핵의 급접 생활자
 AIDS 감염자
 면역 억제제 복용자
 알콜 중독자, 마약 상습자
 영양실조
 만성질환자
 (당뇨, 위궤양, 신부전, 스테로이드제 장기복용) → 면역능력 저하

병태생리
 1차적으로 흡입된 결핵균에 의한 감염 → 공기 양이 많은 폐포에 도달 → 폐포 대식세포의 식균(면역반응개시 & 침박기) → 잠복기에 도달 → 활동성 감염 → 세포매개반응
 ↑ **결핵성 괴사** < 10⁷ RFP (자포모양의 무정형괴사)
 ↑ **가시세포** < 10⁶ PZA
 ↓ **약화 및 공동형성** 10⁶ INH RFP SM
 균수의 급격한 증가 높은 전염성 내성균의 출현

진단 및 검사
 임상증상
 객담도말 검사, 항산균 염색 및 배양 검사, 흉부 X-ray, 피부반응 검사

예방 2-4주
 항산화성균: 강한산, 알칼리에도 잘 견디며, 열과 빛에 약함, 호기성균
 약제학 분야: 인공
 다른 균의 배양 용이 목표가 높음
 생화학이 있어
 영양요구도 다양
 열과 빛에 약함
 호기성균
 산소
 산소

결핵의 분류
폐결핵 / 폐외결핵
 • 폐결핵 - 대부분환자
 • 폐외결핵 - 전체성인 결핵환자의 15% (HIV환자) 소아 결핵의 25%
 (림프관, 비노기 계통, 뼈와 관절, 목막, 신장 등의 대표적으로 침범되는 부위)
일차감염/재감염 또는 재활성화에 의한 감염
 • 90-95%의 일차감염자 → 평생 재활성화 가능성 O
 • 정상인의 5%, 진행 HIV 감염자의 50%
 - 일차감염이 폐결핵, 속립성 결핵, 수막염 등의 폐외 결핵으로 진행

환자에 따른 발병양상

환자	무증상 감염	1차발병	재활성발병	폐외 감염
1년 미만	++	+++	+/-	++
1-5년	++	++	+/-	++
6-10년	++	+	+	+
11-15년	+++	+/-	+	+
HIV -	+++	+/-	+	+
HIV +	+	++	+	++

임상증상 및 합병증
호흡기 증상
 • 기침, 객담, 열, 흉통, 급성배렴 등 (초기: 객담이 적은 기침, 점차 양 ↑)
 • 호흡곤란, 저산소증, 폐포벽의 파괴가 심하거나 기관지에 병소 축
전신증상
 • 식욕감, 신경과민, 집중력 소실,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감소
HIV 감염자
 • 폐 이외의 부위에도 발병
 • 발병 주요부위: 폐출막, 림프관, 뇌, 척추, 신장 - 증상 다양
 • 비전형적 증상, 폐외 결핵빈도 ↑

진단을 위한 필수검사
 ① 객담검사 - 객담 AFB 도말, 객담 AFB 배양
 ② 방사선 검사 - chest X-ray

팀명: 식린이

학습과목: 식품공학

학습장소: 카페엔젤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6월 2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9	14:00 ~ 18:00	미래관 410, 카페엔젤	식품공학 Basic 전체적인 내용 복습 후 문제풀이
4/1	18:00 ~ 21:00	과학관 104	Units & Dimensions 전체적인 내용 복습 후 문제풀이
4/2	13:00 ~ 17:00	카페엔젤	Units & Dimensions(2) 전체적인 내용 복습 후 문제풀이
4/15	13:00 ~ 21:00	북카페	Material & Energy Balance 문제풀이
4/16	14:40 ~ 18:00	카페엔젤	Energy & Enthalpy Balance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
5/20 5/21(회식)	16:30 ~ 22:00 18:30 ~ 21:00	스타벅스 (송우점)	2차 중간고사 시험 준비(유체역학) 및 회식
6/5	15:30 ~ 17:00	카페엔젤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위한 개념 정리(열전달)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우선 소모임을 하기 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동기들과 함께 더 색다르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취지부터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소모임을 통해서 같은 과 동기들과 시간을 내서 만나고 공부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목이 어려운 만큼 소모임 친구들과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만큼 해냈다는 것이 뿌듯했고 교수님도 우리가 항상 모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 더 뿌듯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소모임을 통해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함께 머리를 모아 공부를 하니 실제 결과로도 갈수록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소모임을 하고 시험을 볼수록 성적도 오른 것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식품공학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좋았고, 공부를 함께 있어서도 같은 수업을 받는 동기끼리 서로 도와주며, 어려운 점을 채워가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p> <p>평소와는 다르게 모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난 것이기에 작은 동아리 같은 느낌도 있었고,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좋았고, 공부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많이 의지되어 더욱 돈독한 사이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p> <p>이처럼 이번 스터디는 동기들과의 친목을 동시에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p> <p>친목도 다지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공부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해준 학교에 감사합니다!!</p>
기타	<p>우리 소모임만의 장점: 서로가 소모임 구성원들 외에 친구가 없어서 소모임 시간 맞추기가 수월했다. 음식 취향이 비슷해서 간식을 준비하거나 회식을 하기 좋았다. 서로 말이 잘 통한다. 다들 착해서 말을 잘 듣는다.</p>



팀명: 아비새

학습과목: 약제학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8일 ~ 2019년 05월 30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 03. 28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4. 04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4. 12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4. 18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02	12:00 ~ 14:0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09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23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30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학업 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시작하였다. 약학과 공부를 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터디라고 생각을 했다. 특히 약제학의 경우, 약학과에 전문성을 띤 과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과목들과는 다른 느낌의 과목이라 생소함이 컸다. 암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가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조원들과 서로의 공부법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학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누구나 빠진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조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면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정리가 되는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 할 수 있어서 부담도 덜하고 시험기간에 훨씬 수월하게 공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다.</p> <p>스터디를 하면 규칙적으로 일정분량을 지속적으로 학습 할 수 있어서 습관이 조금 생김으로서 공부할</p>
-------------------	---

	<p>때도 덜 힘들었던 것 같고,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책임감도 가지고 활동하게 되다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p> <p>매주 돌아가면서 조원들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 질의응답을 했다. 또한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 요약해 와서 조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깊게 공부할 수 있고, 요점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혼자 공부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스터디를 하면 조원들에게 편하게 질문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공부 방식이지만, 서로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p> <p>결과적으로 이번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조원들이 모두 이번학기가 매우 힘들지만 스터디를 함으로써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성적향상의 목표를 두고 시작한 스터디이지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는 스터디였고, 앞으로도 조원들과 서로 많은 도움을 주며 공부를 할 생각이다.</p>
<p>기타</p>	<p>스터디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원들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약학과에서는 수업을 듣는 과목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과목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노력을 했다.</p> <p>주기적으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스터디에 임하다보니 나중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다.</p> <p>학습량이 많아서 혼자 공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집단 학습효과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공부의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줌으로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p> <p>앞으로도 동기들과 계속 좋은 스터디를 하고 싶고, 다른 프로그램 또한 많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 인 것 같다.</p>

팀명: 약물요정

학습과목: 약물 물리 화학

학습장소: 과학관 105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7일 ~ 2019년 06월 0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7	14시 ~ 18시	과학관 105호	자료의 과학적 해석 방법과 물질의 상태에 대해
4/17	14시 ~ 18시	과학관 105호	액체상을 포함하는 2성분계에 대해 토론
5/20	16시30분 ~ 19시	과학관 105호	공비 혼합물에 대한 이해와 토론
5/28	16시30분 ~ 18시30분	과학관 105호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이해와 토론
6/3	16시30분 ~ 19시	과학관 105호	전해질의 성질에 대한 이해와 토론
6/5	16시30분 ~ 18시30분	과학관 105호	전해질에서의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이해와 토론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한 학기 동안 약품물리화학 교과목에 관한 소모임에 참여하였다. 소모임에서 우리는 물질의 상태에 따른 특징들과 유용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공부했다. 또한, 비전해질용액과 전해질용액의 특징을 알아보았고 두 용액이 총괄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공부 하였다.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실험 데이터를 보며 어떤 약이 더 좋은 약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좋지 못한 약이라면 더 좋은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 인지 고민해 보았다. 개선점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분자간의 힘과 2성분계, 3성분계, 공용혼합물, 동결건조, 다형,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법등 많은 이론들을 생각해보고 적용해 봄으로써 약학도의 자질을 키웠다.

스터디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였다.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한사람이 발표자가 되어 다른 친구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험이 다가오는 기간 동안에는 하부르타식 공부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 하부르타 공부법은 눈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말을 통해서 익히는 학습법이다. 우리는 서로 돌아가면서 말을 통해 시험범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확인받고 확인해주었다.

약품물리화학의 과목 특성상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배운 주제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과 소모임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었다. 소모임에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설명해보고 친구들이 이해한 방식도 들어 봄으로써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었고 교과서를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p>또한, 우리는 소모임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만의 자료를 만들어 나갔다. 소모임 활동으로 매주 수업을 요약하고 서로 공유하였는데 그 자료들이 모여 우리들만의 하나의 약품물리화학 책이 되었다. 이 자료는 시험공부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자료인 만큼 내용이 알차고 조원들 모두 만족스러운 중간고사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기말고사를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조원들은 모두 소모임 활동에 만족하여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교과 소모임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학기 소모임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활동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2019년도 1학기 소모임을 마쳤다.</p>
<p>기타</p>	

팀명: 약물치료학치료학

학습과목: 약물치료학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월 2일	16:00 ~ 17:3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각자의 질문사항에 서로 답변하며 토론, 실제 사례를 분석함.
5월 2일	15:00 ~ 16:4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각자의 질문사항에 서로 답변하며 토론, 실제 사례를 분석함.
5월 22일	16:30 ~ 18:3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각자의 질문사항에 서로 답변하며 토론, 실제 사례를 분석함.
5월 27일	16:30 ~ 18: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각자의 질문사항에 서로 답변하며 토론, 실제 사례를 분석함.
6월 3일	17:00 ~ 18:3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각자의 질문사항에 서로 답변하며 토론, 실제 사례를 분석함.
6월 12일	16:30 ~ 18: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각자의 질문사항에 서로 답변하며 토론, 실제 사례를 분석함.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학업 적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시작하였다. 약학과 공부를 하면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스터디 라고 생각을 했다. 특히 약물치료학의 경우, 약학과에 전문성을 띤 과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과목 들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다. 암기만 열심히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가 꼭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조원들과 서로의 공부법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학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스터디를 하면 규칙적으로 일정분량을 지속적으로 학습 할 수 있어서 습관이 조금 생김으로써 공부할 때도 덜 힘들었던 것 같고, 매주 스터디를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책임감도 가지고 활동하게 되다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p> <p>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누구나 빠진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조원들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알려주면서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정리가 되는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 할 수 있어서 부담도 덜하고 시험기간에 훨씬 수월 하게 공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다.</p> <p>매주 돌아가면서 조원들과 지식을 나누고 서로 질의응답을 했다. 우선 수업시간에 진도를 나간 부분을</p>
-------------------	---

	<p>혼자서 공부를 해오고, 이해 안 되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였다. 조원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지식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도움을 받은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혼자 공부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스터디를 하면 조원들에게 편하게 질문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공부 방식이지만, 서로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p> <p>결과적으로 이번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조원들이 모두 이번 학기가 매우 힘들지만 스터디를 함으로써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느꼈고, 앞으로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성적향상의 목표를 두고 시작한 스터디이지만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는 스터디였고, 앞으로도 조원들과 서로 많은 도움을 주며 공부를 할 생각이다.</p>
<p>기타</p>	<p>스터디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원들과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약물치료학이라는 과목이 많은 양을 단기간에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조원들과 같이 공부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고, 주기적으로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스터디에 임하다보니 나중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다.</p> <p>학습량이 많아서 혼자 공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집단 학습효과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공부의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줌으로써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p> <p>이런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동기들과 계속 좋은 스터디를 하고 싶고, 성적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p>

팀명: 약사모

학습과목: 약물치료학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03일 ~ 2019년 06월 2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4.5	18시30분 ~ 21시30분	미래관 3층 스터디 테이블	전해질 불균형, 산과 염기 장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부정맥의 정의에 대해 공부
2019.5.1	18시30분 ~ 21시30분	미래관 3층 스터디 테이블	뇌졸중에 대한 공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각 약물치료법의 적절한 시간은 무엇인지 알아봄
2019.5.15	20시 ~ 22시	과학관 102호	갑상선에 대한 질병을 공부.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에 대해서 공부한 뒤 서로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
2019.6.3	16시30분 ~ 18시30분	과학관 102호	당뇨병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 공부. 특히 제 2형 당뇨병을 위주로 사용하는 약물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봄
2019.6.12	16시30분 ~ 18시30분	과학관 102호	간섬유화 및 간경변증의 원인과 치료약물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 알려주는 하부르타를 함
2019.6.14	16시30분 ~ 18시30분	과학관 102호	갑상선 질환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였다. 스터디에서 필기를 정리하여 팀원들 간 공유함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한 학기 동안 스터디 팀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수업에 대한 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주로 미리 공부할 범위를 학습해 와서 동기들에게 설명하는 하부르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직접 말로 개념을 설명하고 팀원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공부법이라는 것을 전 특강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이번 스터디는 하부르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p> <p>스터디를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스터디 지원금을 이용해서 약물 치료학 case가 모여 있는 교재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였는데 다른 것보다 case를 많이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약물 치료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p> <p>팀원들 중에는 필기 정리를 잘하는 사람, 팀원들이 헛갈려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주는 사람, 조언해 주는 사람 등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고, 그 결과 팀원 중 몇몇은 중간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몇몇은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에 비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기에 비해서 이번 학기는 좀 더 진지하게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p> <p>이번 학기에 약물 치료학 말고 다른 과목도 스터디를 했으면 더 수월하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대 공부가 혼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서 스터디원과 범위를 정해서 서로 설명해주는 방식인 하부르타를 한다면 그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꼭 학교에서 지원하는 소모임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팀원들과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	---

	<p>아쉬운 것은 소모임의 효과를 5학년 때 느꼈다는 것입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대를 입학하고 여러 번 스터디를 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하였다면 좋았을 뿐 했습니다. 전에 했던 스터디는 친구들과 밥 먹고 노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낀 것을 앞으로 공부할 게 많은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고, 이번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발전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p> <p>가장 좋은 것은 공부를 하면서 팀원인 동기들과 더욱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리하고 만든 자료를 팀원들과 공유해 서로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공부하다가 힘들 때는 서로 다독여주고 위로 하여 팀원들이 힘든 시험을 버틸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p> <p>5학년 1학기는 선배님들이 아주 힘든 학기가 될 것이라고 겁을 주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여태 생활 중 가장 힘든 학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힘든 학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약사모 팀원들에게 고맙고, 스터디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준 차 의과학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p>
<p>기타</p>	<p>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식적인 멤버는 아니었지만 약사모 팀원과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같이 하였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중간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팀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팀명: 약아치

학습과목: 약물치료학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6월 09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6	17:00 ~ 19: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수업 후 모여 복습 및 필기 자료 정리
4/4	17:00 ~ 19: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수업 후 모여 복습 및 필기 자료 정리
4/9	17:00 ~ 19: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수업 후 모여 복습 및 필기 자료 정리
4/16	17:00 ~ 19: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수업 후 모여 복습 및 필기 자료 정리
4/30	17:00 ~ 19: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수업 후 모여 복습 및 필기 자료 정리
6/9	17:00 ~ 19:00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 수업 후 모여 복습 및 필기 자료 정리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약물치료학이라는 과목은 3, 4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을 종합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의 임상증상과 각종 검사결과를 보고 질병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약물치료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태생리학과 약물학을 기본으로 한다. 양이 많은 과목이니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을 서로 물어보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번 학기 교과 스터디를 신청해 진행하게 되었다.</p> <p>우리는 수액 및 전해질요법을 시작으로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감염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약물치료요법을 공부하였다. 우선 수업을 들은 후, 다음 사항을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각자 가졌다. ①질환의 기초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과 결부시켜 해석했다. ②질환에 대한 주요 증상과 증후를 파악했다. 추가적으로 질병 진단법은 따로 정리하였다. ③교수님께서 주신 PBL case study의 환자 사례들을 보며 적용해보았다. 효과적인 약물치료 요법을 설계하고 환자에게서 그 약물치료 요법이 관촬은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평가했다. 스터디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시간배분이 가능했다.</p> <p>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표시해두었다가 스터디를 할 때 서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르는 부분은 서로 물어보았다. 교과 스터디 덕에 눈으로만 읽는 공부가 아닌 구두로 말하는 공부법(하브루타)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주요 개념을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 물어보면서 복습하기도 했다.</p> <p>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은 따로 적어서 교수님께 여쭙보았다. 단순히 질문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우리는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임상약학 분야에서 오래 일해 본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으로부터 실제 환자사례와 문제발생 시 대처법, 병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 근로환경 등 그 분야에</p>
-----------------------	--

	<p>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교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p> <p>뿐만 아니라, 교과 스터디 덕에 한 과목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약물치료학이라는 과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p>
기타	

팀명: 인생5회차

학습과목: 인체생리학

학습장소: 과학관 218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6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5	3시간	학생회관	인체생리학 4장 에너지와 세포대사, 발생학 Chapter2 How Development Works
4/1	3시간	과학관 218호	인체생리학 5장 막의 역동성 발생학 Chapter3 Developmental genetics
4/22	3시간	과학관 218호	발생학 시험대비 전체 Summary
5/9	3시간 30분	과학관 218호	인체생리학 8 강. 뉴런:세포와 네트워크의 특성 시험 대비
5/16	3시간 30분	과학관 218호	인체생리학 8강. 뉴런: 세포와 네트워크의 특성 인체생리학 10 강. 감각생리학 시험 대비
5/27	3시간 30분	과학관 218호	발생학 7강. Xenopus
6/3	3시간 30분	미래관 2층 로비실	발생학 10강. Mouse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박주동: 학교를 3년 만에 복학하는 것이어서 공부에 대한 감도 많이 떨어지고, 생각이 안 나는 내용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서, 3년이란 시간동안 잃었던 공부하는 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며, 시간효율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더불어 후배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친분도 쌓을 수 있어서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p> <p>김상휘: 스터디 소모임을 통해 '지식'과 '학우애'를 얻은 것 같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이 함께할수록 더욱 친해지며 더 원활히 스터디를 할 수 있었다. 다들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 줌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하고 싶고 다른 학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p> <p>김혜령: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동안, 많은 것들을 했다는 것이 느껴졌던 스터디였다.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한 것부터 무려 3시간동안 스터디를 할 때까지 모든 스터디 활동이 재밌었고 뿌듯했다. 어려웠던 학문들을 쉽게 배우고, 공부해나가는 방법이 스터디임을 깨닫게 되었던 한 학기였다.</p> <p>권민정: 3학년이 되면서 원래도 어려웠던 전공과목들이 모두 양도 많아지고 내용도 어려워져서 스터디를 통해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함께하며 재밌게 잘 이어나간 거 같다.</p>
-----------------------	---

팀명: 지원&현아

학습과목: 보건의료세미나

학습장소: 카페엔젤,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6월 2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3	12:00 ~ 13:00	북카페	소모임 활동 계획 작성 및 희망하는 세미나 보고서 주제 선택
4/5	12:00 ~ 13:00	카페엔젤	각자 선정한 기관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 피드백 진행
4/9	16:00 ~ 17:00	북카페	각자 관심주제를 정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보고 첨삭 진행
4/10	11:00 ~ 12:00	카페엔젤	제안요청서 수정 및 첨삭 진행
4/12	12:00 ~ 13:00	미래관	제안요청서 수정 및 첨삭 진행
4/23	12:30 ~ 13:30	카페엔젤	진행했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제 재선정 및 피드백 진행
4/24	11:30 ~ 12:30	미래관 강의실	연구보고서 목차 작성을 위해 재작성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피드백 진행
4/30	11:30 ~ 13:00	미래관 강의실	완성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목차를 작성해보고 피드백을 진행하여 수정
5/3	10:00 ~ 11:00	미래관 강의실	목차를 재작성 및 피드백을 진행
5/7	12:00 ~ 13:00	카페엔젤	보고서 목차 중심 보고서 서론 작성 및 피드백
5/9	11:30 ~ 13:30	카페엔젤	보고서 목차 중심 보고서 본론 작성 및 피드백
5/10	12:30 ~ 13:30	미래관 강의실	보고서 목차 중심 보고서 본론 작성 및 피드백
5/14	16:00 ~ 17:00	미래관 강의실	보고서 결론 작성 및 피드백
5/21	16:00 ~ 17:00	미래관 강의실	보고서 결론 작성 및 피드백
5/28	16:00 ~ 17:00	미래관 강의실	보고서 결론 작성 및 피드백
6/10	16:00 ~ 17:00	미래관 강의실	최종 보고서 작성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한 학기동안 '보건의료세미나'를 수강하면서, 전공에 관련된 자유 주제를 선정하여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p> <p>일주일 최소 한 번씩 반드시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부족하면 개인의 시간을 쪼개서 소모임을 진행하였다.</p> <p>서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보고서의 방향을 잡아갔고, 그로 인해서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법(제안요청서(RFP) 작성, 목차, 보고서) 그리고 보고서의 주제였던(해위환자유치, 노인 커뮤니 케어)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p>점심시간이나 서로의 수업시간을 쪼개어 서로의 보고서 피드백을 거듭하면서 시너지가 배가 되는 것 같아 만족스러웠고, 미처 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 보고서를 마무리</p>
-------------------	--

해서 보다 부듯하게 학기를 보낸 것 같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계속되는 피드백과 수정의 반복으로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돌이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교과 스터디이다 보니 소모임 활동 결과를 학점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학점을 떠나서 4학년 학생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써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 학기 소모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소모임을 신청해서 이번 학기처럼 부듯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습목표
달성
결과물

보건요청서(Requset For Proposal) 연구자료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방안

2019년 1학기

**보건의료산업학과
20143220 박자림**

보건요청서(Requset For Proposal) 연구자료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2019년 1학기

**보건의료산업학과
이인아**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연구 주제	자출산, 고령화 사회, 국내 고령화산업의 발달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방안 제시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산업의 발달을 위해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기대 연구결과	국내 고령화산업 발달 촉진 방안 제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연구 주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기대 연구결과	ICT를 활용한 원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연구 주제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기대 연구결과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연구 주제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기대 연구결과	의료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개선 방향

팀명: 차바이오

학습과목: 생물학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행복마루, 과학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8일 ~ 2019년 06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3.28	2:30 ~ 4:00	행복도서관 행복마루	Ch 01. Introduction: Biology today & Ch 02. Essential Chemistry for Biology (복습, 토의)
19.04.04	2:30 ~ 4:00	학생회관 토프레스	Ch 02. Essential Chemistry for Biology & Ch 03. The Molecules of Life (복습, 토의)
19.04.22	2:00 ~ 3:00	학생회관 토프레스	Ch 05. The Working cell & Ch 06. Cellular Respiration & Ch 08. Cellular Reproduction (복습, 토의 및 중간고사 대비)
19.05.13	11:30 ~ 1:00	과학관 카페엔젤	Ch 21. Unifying concepts of animal structure and function (복습, 토의 및 써 용어 암기 테스트)
19.05.27	11:30 ~ 1:30	시크릿가든	Ch 23. Circulation and Respiration & Ch 24. The body's defenses (복습, 토의 및 용어, 원리 테스트)
19.06.03	11:30 ~ 1:00	미래관 3층 학습 공간	Ch 25. Hormones & Ch 26. Reproduction & Development (복습, 토의 및 인체 용어 & 호르몬 도표 암기 테스트 & 기말고사 대비)

활동

소감 및 종합 의견	<p>[간호 19 신은혜] 차의과학대학교에 입학한 첫 학기에 진행한 소모임인 만큼 첫 진행에 있어서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팀원들과 함께 팀을 꾸려 나갔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모임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첫 발걸음인 인체의 기본, 일반생물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착실한 복습과 이해를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매 회 차 학습 범위와 주목할 점을 공지하며 저 또한 복습과 학습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모르는 범위에 대하여 질문하며 그저 지나쳤던 범위 또는 학습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학습하였다면 하지 않았을 인체 작용 이해에 대한 구두 테스트와 여러 인체 기관 및 조직 용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함을 통해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곧바로 복습과 암기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첫 소모임 활동인 만큼 서툴렀던 면도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팀장인 저를 믿고 매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p> <p>[간호 19 함초현] 사실 문과였던지라 과학에 대한 지식이 알아 생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활동을 통해 저의 지식의 부족함을 보충하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갖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지식도 한 번 더 복습하며 더욱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의 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제가 모르는 것을 팀원들에게 질문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심화학습을 할 수 있었</p>
-------------------	---

	<p>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찾아보며 끝까지 파고들다보니 암기가 아닌 이해를 하게 되고, 더욱 기억에 잘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들어와 첫 소모임인지라 처음만 열심히 하고 갈수록 소홀해지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자극도 많이 되었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간호 19 최정은]</p> <p>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생물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뤄뒀을 공부를 소모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시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영어 용어들로 인해 막막했는데 소모임에서 테스트를 하며 미리 외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교수님께 질문 하기 간단한 문제나 헷갈렸던 개념들을 소모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처음 하는 소모임 이라 걱정도 부담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어 부듯했습니다. 소모임을 하면서 모르는 내용 들도 잘 알려주고 다방면에서 고생하신 팀장님께 고마웠고 다음번에도 소모임 활동을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기타</p>	<p>소모임 활용 자료: CAMPBELL essential biology with physiology (5판), JMK cengage Human Biology (11판),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ppt 자료, 각자의 자료 등.</p>

팀명: 착착

학습과목: 발생학

학습장소: 미래관

학습기간: 2019년 04월 05일 ~ 2019년 06월 18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4.05	4:30 ~ 6:00	미래관	발생학 용어 정리
19.4.19	4:30 ~ 6:00	미래관	중간고사 대비와 발생학 스터디
19.5.21	4:30 ~ 6:00	미래관	zebra fish의 발생과정에 대해 숙지, 생화학 복습
19.5.22	4:30 ~ 6:00	미래관	발생 과정에 대한 리뷰
19.06.05	4:30 ~ 6:00	미래관	mouse 발생과정 숙지, 및 기말고사 대비
19.06.18	4:30 ~ 6:00	미래관	기말고사 대비 공부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우선 이 스터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p> <p>혼자 하기에는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 대부분인데 친구들과 토론해가면서, 시험이라는 압박 없이 미리 공부했기 때문에 스터디가 재미있었고 큰 도움이 되었다.</p> <p>주로 발생학에 대해 공부하는 스터디인데, 우선 이경빈 학생과 진회영 학생은 16학번이기 때문에, 발생학 수업을 들었지만 이진주 학생의 경우는 18학번이기 때문에 내년에 배울 발생학에 대해 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였다.</p> <p>특히 이경빈 학생이 발생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오면서 나머지 팀원들은 발생학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쉬웠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유튜브, 블로그, 논문) 등을 보면서 더 흥미 있는 스터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p> <p>평소에는 궁금한 점이나, 발생학의 "발생과정"을 차근차근 짚는 식으로 공부하다가,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각각 필요한 과목을 자습하는 식으로도 진행하게 되었다.</p> <p>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진주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언니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터디하는 게 매우 즐거웠다.' 진회영 학생은 '어려운 내용을 서로 공부해서, 친구들이 알려주니까 발생학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이경빈 학생은 '팀원들이 서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오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스터디하니까 유용한 시간이 되었다.' 라고 이 스터디를 평가하였다.</p>
-------------------	--

팀명: 코난

학습과목: 생화학1

학습장소: 분임토의실, 카페엔젤

학습기간: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6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4.01	9:30 ~ 12:20	분임토의실	전 시간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학습하였다.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은 설명하였고 예상문제를 만들어 서로 풀어 봄으로써 이해도를 높였다.
2019.04.29	9:30 ~ 12:20	분임토의실	탄수화물과 당생물학을 공부하며 예상 문제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토의하며 서로에게 설명해 주었고 이해가 어려운 고리형 구조에 대해 토의하였다.
2019.05.13	9:30 ~ 12:20	분임토의실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산에 대해 공부하였으며 이 둘에 대한 차이가 가장 중요하여 서로 암기하여 확인하였으며 예상 문제를 통해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2019.05.20	9:30 ~ 12:20	카페엔젤	DNA에 대해 헛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상문제를 통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였고 어떤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하고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서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2019.05.27	9:30 ~ 12:20	카페엔젤	지질에 대해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짚어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였으며 토의를 통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를 예상 문제를 통해 확인하였다.
2019.06.03	9:30 ~ 12:20	카페엔젤	생명 신호에 대해 6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인터넷과 책을 참고해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처음에 스터디는 매우 낯설고 어렵기만 했는데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 혼자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예상 문제를 만들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시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수업에서 놓치는 부분도 상대방이 잘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공부할 때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자료나 책 자료도 혼자 찾아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이해도도 훨씬 높아졌다. 앞으로도 스터디와 같은 공부법을 스스로 찾아 이해도를 높여 학습에 대한 성취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함께 공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기보다 즐겁고 이해도가 훨씬 높은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상대방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웠다. 2학기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팀원 전원 밝힌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된다.</p>
-------------------	---

팀명: 통학팸

학습과목: 운동과 건강

학습장소: 학교

학습기간: 2019년 03월 20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3-20	2:30 ~ 4:30	열린마루	전공 '운동과 건강' 2차시 와 관련된 전공스터디
2019-04-03	2:30 ~ 4:30	열린마루	전공 '운동과 건강' 3차시 와 관련된 전공스터디
2019-04-25	9:30 ~ 11:30	차우라홀	전공 '운동과 건강' 5,6,7 차시 와 관련된 전공스터디
2019-05-17	12:30 ~ 1:30	미래관101호	전공 '운동과 건강' 8,9,10 차시 와 관련된 전공스터디
2019-06-05	2:30 ~ 4:30	과학관219호	전공 '운동과 건강' 12,13 차시 와 관련된 전공스터디
2019-06-12	2:30 ~ 4:30	과학관219호	전공 '운동과 건강' 기말고사 대비 정리 및 개인공부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6회 차 동안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선 다들 처음 대학에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들고 전공 공부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이 프로그램인 소모임을 통해 공부와 친목 도모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또한 소모임은 스터디 그룹과는 달리 조금 편한 분위기에 서로 각자 평소 이야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공부뿐만 아니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혼자서 공부하라고 하면 안 했을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 하니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전에 배워왔던 것을 나중에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미리 시험 대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소모임을 진행하면서 각자 준비와 조사를 통해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소모임을 진행하였는데 자신이 정리하고 준비해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준 것 때문인지 각자 말았던 부분에서는 더 잘 알 수 있었다. 또 친구들이 말았던 부분에서는 친구들이 수업내용을 잘 정리하고 자료까지 만들어주어서 수업내용 중 이해가 안 되거나 놓쳤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친구에게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을 친구에게 알려주면서 서로 win-win 하는 공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소모임을 진행하는 내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이 소모임에 관해서 궁금해하거나 조금이라도 해볼 의향이 있다면 적극 추천한다. 친구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쌓으면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점이 좋은 취지인 것 같다. 소모임이라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p>
-------------------	--

팀명: 포맨즈

학습과목: 임상약물동태학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6월 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 03. 26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4. 02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4. 11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4. 18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15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20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5. 28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19. 06. 04	17:00 ~ 19:30	과학관 103호	수업시간에 제공되는 PPT 및 필기정리, 암기법과 학습법 공유 및 해당 범위에 대한 예상문제를 출제하며 문제풀이 진행.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임상약물동태학이란 3,4학년 때 기본 이론 및 약물의 구조, 작용 기전 등을 배우는 과목과 다르게 약물이 어떻게 인체로 흡수되고 흡수된 약물이 인체에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따라서 임상약물동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적 지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의약화학, 생화학, 약물학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했고 이번 학기에는 수학적인 지식 또한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서로간의 지식 공유 및 설명을 통해 해소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기 위하여 교과 스터디를 진행하였다.</p> <p>수업을 듣고 스터디 모임을 하기 전 각자 진도가 나간 부분을 학습하고 주요 개념에 대하여 서로 설명 하였으며 이외에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답해주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었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설명을 들으며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알고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면서 한 번 더 복기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학기 임상약물동태학 수업에서 상당히 많은 공식, 공식에 대한 증명, 그래프 등이 등장하였는데 수학적으로 뛰어난 학우가 설명을 해줌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p>
--------------------------	---

시험기간에 진행한 스터디는 이전 스터디에서 진행한 내용을 복습하였으며 등장한 개념, 이론,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았다. 이 때 단순히 개념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공식이 어떻게 파생되는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한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통합하여 물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덕분에 시험에 나온 개념, 그래프, 공식 등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데 어려움이 적었다.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스터디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제공이었다.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면 어떤 주는 복습을 하는 반면 또 다른 주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스터디를 하면 강제성이 부여되므로 규칙적인 복습을 할 수 있었고 학우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학업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만들어주었다.

이번 임상약물동태학 스터디는 다양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결과적으로 스터디를 통해 지난 학기 보다 임상약물동태학을 깊이 이해하고 보다 나은 학업 성취도를 올릴 수 있었다.

팀명: 해룡육녀

학습과목: 약물치료학

학습장소: 과학관 103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6월 09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4.02	17시 ~ 18시	과학관 103호	전해질 불균형 및 고혈압과 관련된 환자 케이스 스터디
2019.04.15	17시 ~ 18시	과학관 103호	산-염기 장애 및 정맥 혈전색전증 환자 케이스 스터디
2019.05.03	16시 30분 ~ 19시 30분	과학관 103호	약물치료학에서 배운 당뇨 질환에 대한 내용과 당뇨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 및 약물에 대한 내용을 복습
2019.05.17	16시 ~ 18시	과학관 103호	저번 주 약물치료학 강의에서 배운 COPD & ALLERGIC RHINITIS 내용을 같이 필기를 공유하며 서로 모르는 것을 질문
2019.05.27	17시 ~ 18시	과학관 103호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약물 치료법의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제시된 환자 케이스에 대해 토론
2019.06.09	17시 ~ 19시	과학관 103호	간경변에 대한 약물치료에 관한 내용 복습/질문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5학년이 들어선 이후 처음 접한 약물치료학 과목은 우리 모두에게 겁이 나는 과목이었다. 약사가 되기 위해 3,4학년 동안 배운 생리학, 병태생리학, 약물학 등의 과목이 모두 약물치료학이라는 과목에서 꽃을 피우는 느낌이었다. 한 학기에 소화해야할 양도 어마어마한 양이었기에 혼자 공부하기에는 매우 벅찬 양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사는 같은 과동기들 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학교에서 스터디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더욱더 지원동기를 북돋아 주었다.</p> <p>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 전 주차의 내용을 배운 직후 복습을 한 후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위해 모였기 때문에 매주 벅차게 스터디가 돌아갔던 것 같다. 약물치료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약화학 3차 고사를 치르기에 중간 중간 시험이 있었고, 중요한 양이 방대한 과목들이 가득했기에 약물치료학 스터디만 하는 것도 숨이 차게 진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교과스터디 프로그램이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하는 시스템이었기에 더욱 뒤쳐지지 않고 꼬박꼬박 스터디를 하러 모였던 것 같다. 혼자 공부했더라면 매우 힘들고 지치고 점점 미루기 쉽았을것을 약물치료학 공부가 여럿이서 하여 서로 의지하며 공부했다.</p> <p>지금까지 모이면서 4명의 소감들을 요약해보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염이 어떤 질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하는지 체계를 머릿속에 잘 넣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터디 팀원들과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수업시간에 빠르게 지나가서 놓친 부분을 팀원들과 같이 되짚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리되지 않았던 간염 치료제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 같이 환자 케이스도 미리 복습하여 스터디에서는 환자에 대한 분석보다 치료법 위주로 정리했다’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려운 과목인 만큼 스터디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느꼈다’ ‘혼자 하려면 의지부족으로 못 할 공부를 여러 명이서 다 같이 하다 보니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등의 의견을 통해 매번 스터디마다 모든 4명의 조원이 스터디를 통해 업무부담의 감소, 효율적인 공부를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처음 공부해보는 과목이라 처음에는 공부 방법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 주차 시간이 쌓일수록 참 많은 요령이 생겼고 훈련이 반복 될수록 무엇을 정리, 암기, 버려야할 지 파악이 되었고 사람이 4명이다보니</p>
-------------------	--

그 발전 속도는 빨랐던 것으로 느껴졌다. 2019년의 1학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음 모였을 때는 매우 쌀쌀했지만 이제는 반팔 없이는 못 돌아다닐 날씨인데 이 4명의 조원들 덕분에 약치를 더욱 재밌고 알차게 공부할 수 있었다. 약치스터디로 스터디프로그램을 신청은 했지만 약물치료학 이외의 과목들도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필기를 공유하는 등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기에 더욱이나 알차던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다른 과목도 서로 도움을 주는 등 올해 상반기 중 가장 알차던 활동이 아닐 수 없다. 다음 2학기 때도 약물치료학 과목이 있는데 그때도 이 멤버 그대로 스터디를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들 한 학기동안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소감을 마무리하겠다.



비교과 스터디

팀명: 3100 (우수)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미래관 402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0일 ~ 2019년 05월 2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3.20.	16:30 ~ 17:30	미래관 402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형태 알기 /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확인한 뒤, 단어테스트
2019.3.27.	16:30 ~ 17:30	미래관 402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수식어, 품사 중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공부 /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확인한 뒤, 단어테스트
2019.4.4	16:30 ~ 17:30	미래관 402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동사 중에서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 시제에 대해 공부 /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확인한 뒤, 단어테스트
2019.5.8.	16:30 ~ 17:30	미래관 402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 뒤 part5 공부를 위해 to부정사, 동명사, 분사 공부하기 /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확인한 뒤, 단어테스트
2019.5.15.	16:30 ~ 17:30	미래관 402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 뒤 part5 공부를 위해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공부하기 /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확인한 뒤, 단어테스트
2019.5.22	16:30 ~ 17:30	미래관 402호	토익 모의고사 풀기로 실전 연습 / 일주일간 개인공부를 확인한 뒤, 단어테스트

학습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학습법 소모임을 하기 전에는 토익 시험을 응시하는 것도 두려운 팀원들이 있었는데 다같이 체계적으로 매 주 LC,RC 파트별 분량을 정해서 공부를 하니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두 목표점수를 달성해서 3100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각자 목표한 점수에 근접했고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합니다.</p> <p>박진서(목표 점수 700, 최종 점수 655)</p> <p>혼자서 공부할 때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는데 소모임을 통하여 정해진 분량을 약속하여 매일 공부하고, 스터디 시간 외에도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는 등 적극적이고 꾸준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 간에 호흡이 좋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소모임을 진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LC 점수와 전반적인 점수는 올랐지만 목표 점수인 700점을 받기 위해 방학동안 RC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p>
------------------------------	--

현재 기준 유효한 성적 내역입니다.
(성적 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일자	LC	RC	TOTAL
2019.05.26(일)	410	245	655
2019.05.12(일)	345	215	560

김주완(목표 점수 700, 최종 점수 620)

처음 본 토익 성적이 많이 낮았는데 학습법 소모임을 하면서 목표한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전치사, 가정법 등 문법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매주 팀원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마지막 점수보다 260점 향상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재미를 느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에 이어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갖고 팀원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부듯했습니다.

현재 기준 유효한 성적 내역입니다.
(성적 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일자	LC	RC	TOTAL
2019.05.26(일)	375	245	620
2018.08.26(일)	255	105	360

염다비(목표 점수 950, 최종 점수 955)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 준 소모임이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도 공부하고,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실력을 더 잘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표했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좋았지만,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문법 부분에서 100%를 달성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 팀원들과 돈독해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것도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얻은 값진 선물입니다.

현재 기준 유효한 성적 내역입니다.
(성적 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일자	LC	RC	TOTAL
2019.05.12(일)	490	465	955
2017.05.28(일)	445	435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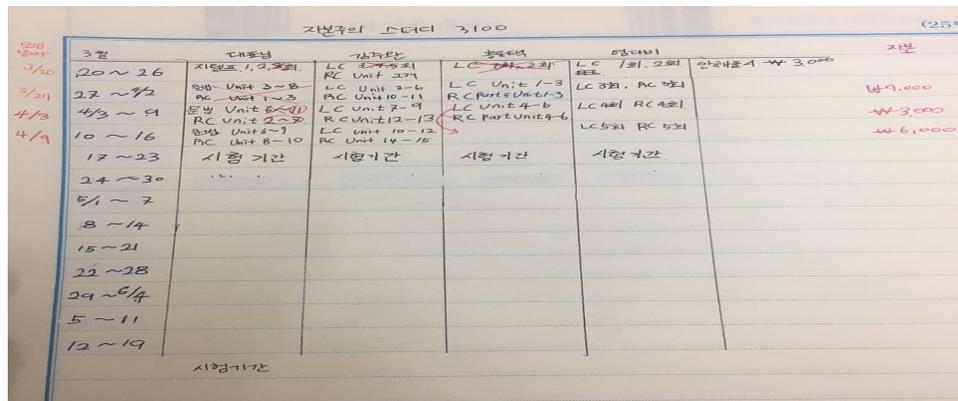
홍유택(목표 점수 750, 최종 점수 540)

비록 목표한 점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처음 본 시험 이기에 유의미한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응시조차 미루고 있었을 텐데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해서 얻은 것이 많습니다. 이를 이용해 방학 기간에도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해서 목표한 점수를 꼭 달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학습법 소모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즐겁고 부듯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기준 유효한 성적 내역입니다.
(성적 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일자까지)

일자	LC	RC	TOTAL
2019.05.26(일)	320	220	540

기타



매주 모임에 작성한 학습 분량 일지



마지막 주 결과 보고서 작성 모임

팀명: 나이테 (우수)



학습과목: 한국사

학습장소: 미래관 306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06월 1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4	2시간	미래관 306호	한국사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공부하였다. 시간의 흐름대로 써가며 공부했다.
04/11	2시간	미래관 306호	한국사 고려 시대를 주제로 공부하였다. 서로 상호 간의 이야기를 하며 학습을 이어나갔다.
05/23	2시간	미래관 306호	한국사 조선 전기 시대를 공부하였다. 조선사는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너무 많아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학습하였다.
06/11	1시간 30분	미래관 315호	한국사 조선 후기 시대를 공부하였다. 문제 풀이를 통해 모르는 내용을 피드백하며 학습하였다.
06/12	1시간 30분	미래관 408호	한국사 일제 강점기 시대를 공부하였다.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역사를 학습하면서 마음이 아파왔다.
06/13	2시간	미래관 306호	마지막 활동은 직접 모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치러보았다. 진짜 시험시간대로 50분을 맞춰서 시험을 보았다.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활동한 소감></p> <p>최영은: 나이테를 활동하기 전, 필수교양과목이었던 한국사를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에 친구들을 모아 소모임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직접 기획을 하며 활동을 하니 더욱 재밌었던 활동이었다. 방대한 양의 한국사를 혼자서 하려 했다면 아마 선사시대에서 진도가 멈췄을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하니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학기 활동 동안 한 번도 투정부리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잘 해준 우리 부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낀다. 부원들이 잘 해준 덕분에 첫 소모임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다른 주제로 소모임 활동을 해보기를 바란다.</p> <p>김윤성: 한국사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양이 많고 방대하여 보통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즐겁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어 좋았다.</p> <p>전현정: 한국사는 암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잘 외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에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마무리 정리를 한 것 또한 도움이 많이 되었다.</p> <p>조하은: 소모임을 시작하기 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한국사는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야 하는 것들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공부할 양도 많아지기에 미리 해둬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공부해보고자해서 시작했었다. 친구들과 한국사 공부를 하면서 각자의 외우는 팁들을 공유도 하고 눈높이로 설명도 해주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던 한국사를 친구들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회였다.</p>
-------------------	---

〈비교과 스테디의 효과〉

비교과 스테디는 서로 잘 맞는 친구들, 원하는 목표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다. 우리 부원들은 모두 같은 학과다 보니 스케줄도 거의 비슷해서 시간 맞추기도 수월했다. 혼자서 했다면 힘들거나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과 스테디로 활동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

→ 최영은: 모의 한능검 고급: 65점 ~ 고급 2급 합격



→ 김윤성: 모의 한능검 중급: 70점 ~ 중급 3급 합격



→ 전현정: 모의 한능검 중급: 87점 ~ 중급 3급 합격



→ 조하은: 모의 한능검 중급: 75점 ~ 중급 3급 합격

기타

팀명: 파나소닉 (우수)



학습과목: 공모전

학습장소: 행복도서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6월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9	20:00 ~ 22:00	행복도서관	파나소닉 PR챌린지 OT전 회의
4/3	21:30 ~ 23:30	행복도서관	파나소닉 팀 SNS 및 콘텐츠 회의
4/9	21:30 ~ 23:30	행복도서관 외 2곳	파나소닉 카메라 루믹스 (GF10, LX100M2) 제품 리뷰/홍보 콘텐츠 제작
4/13	18:30 ~ 20:30	학과 실습실	파나소닉 카메라 드라이브, 구강세정기 제품 리뷰/홍보 콘텐츠 제작
5/23	22:00 ~ 23:50	미래관 305호	공모전 2차 제품리뷰 및 교내 이벤트 기획, 현재 까지 상황 정리
6/4	20:00 ~ 22:00	현암기념관	파나소닉 공모전 영상/인쇄 광고 기획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학습지원센터에 '파나소닉'팀의 스터디 계획서를 냈을 당시, 파나소닉 PR챌린지 공모전에 우리 팀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최초 100팀안에 선정이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공모전 특성상 100팀을 뽑아 놓고, 경쟁하여 팀을 줄여가는 시스템이었기에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 학습지원센터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에 스터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깨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최종 18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 우리 팀의 공모전 성적을 아직 알 수 없지만, 활동보고서를 쓰며, 꾸준히 당일에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덕분에 공모전에서 '교내 실행 이벤트, 다양한 제품 리뷰, 페이스북/블로그 팀 계정 운영'의 많은 과제들이 있었는데도 성실하게 끝낼 수 있었던 성공 요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는 스터디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실행 한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길을 한번 뒤 돌아볼 줄 아는 우리 팀은 이번 공모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준 학습지원센터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나마 전해드립니다. 이번 학기 내내 공모전을 하며, 없는 시간 쪼개가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고생 해준 후배님들 또한 정말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6월 말에 있을 공모전 결과 발표에서, 수상을 하여 나중에 제가 쓴 이 글을 봤을 때, 스터디의 추억을 즐겁게 회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	--

팀명: voca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미래관 303호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1일 ~ 2019년 06월 16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내용
3/28	11:00 ~ 13:20	예비창업자 보육실	기간 정한 후 단어시험, mp3녹음파일 이용하여 듣기력 향상, 틀린 단어를 이용한 예문 만들기, 벌금부과
4/13	12:30 ~ 14:30	예비창업자 보육실	단어 재시험 및 시험, 단어어원 찾기, 단어응용문장 만들기, 벌금부과
5/9	15:30 ~ 16:30	미래관303	복습의 의미로 단어 재시험, 이번 것 단어시험, 벌금부과
5/16	12:30 ~ 13:30	미래관303	단어시험, 재시험 및 벌금부과
5/24	16:30 ~ 17:30	예비창업자 보육실	단어 재시험 및 시험, 단어어원 찾아오기, 응용문장 만들어오기, 벌금 부과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어 10번 써오기
5/30	12:30 ~ 13:30	미래관303	단어시험, 재시험 및 벌금부과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의견	<p>우리 스테디의 가장 큰 목적인 토익 고득점 달성을 위해, 단어는 그것에 대한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번 스테디를 통해 얻은 것은 새로운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단어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테디 방식으로 교재 한 권을 모두 암기한다면 토익 고득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 학기에 교재 한 권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학기까지 장기적으로 꾸준히 암기해야 하고 방학 때 따로 스테디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외워야 한다.</p> <p>처음에는 모두 의욕을 가지고 외우려 하였다. 그러나 처음의 마음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부원들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원래하던 방법을 줄여서 해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외우지 않는 사람을 고치기 힘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벌금을 도입하였지만 흔쾌히 승낙한 후 외우지 않았다. 그래도 그나마 벌금 감면을 위해 10번씩 써오는 것은 해왔고 이후 다음스테디에는 단어를 외워왔다.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단어를 외워왔다.</p> <p>단어는 알다시피 토익의 기초이지만 단어의 기초는 어원이다. 어원에서 파생되는 단어를 알아가면서 단어에 대해서 퍼즐 맞추기 놀이를 한다는 기분이 들어 더 재밌게 외울 수 있었다.</p> <p>또한 단어를 이용해 문장 만들기를 하면서 단어의 품사나 문장에서의 역할을 좀 더 확실히 기억 할 수 있었다.</p> <p>단어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멀지않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뉘서는 안 될 과목이다.</p>
------------------	---

팀명: YJ

학습과목: 청소년 상담사 3급

학습장소: 카페엔젤, 실습실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9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스터디 상세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3/29	오후 1 ~ 3	카페 엔젤	시대에듀 청소년 상담사 인강 들은 후 각자 문제를 제출하여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며 오답노트 작성하기
2019.04.05	오후 1 ~ 3	카페 엔젤	시대에듀 청소년 상담사 인강 들은 후 각자 문제를 제출하여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며 오답노트 작성하기
2019.04.12	오후 1 ~ 3	카페 엔젤	시대에듀 청소년 상담사 인강 들은 후 각자 문제를 제출하여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며 오답노트 작성하기
2019.05.24	오전 11 ~ 오후 1시	면학관 실습실	시대에듀 청소년 상담사 인강 들은 후 각자 문제를 제출하여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며 오답노트 작성하기
2019.05.31	오후 1 ~ 3	면학관 실습실	시대에듀 청소년 상담사 인강 들은 후 각자 문제를 제출하여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며 오답노트 작성하기
2019.06.12	오후 1 ~ 9	시크릿 가든	시대에듀 청소년 상담사 인강 들은 후 각자 문제를 제출하여 풀어보고 서로 풀이하며 오답노트 작성하기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청소년 상담사 3급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처음 책을 받았을 때 총 7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을 보고 과연 내가 혼자 잘 준비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과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p> <p>그 와중에 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스터디 공고 모집을 보고 함께 자격증을 준비할 친구와 소그룹 스터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p> <p>이 스터디를 통해 매 주 점검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인강이라는 특성상 쉽게 풀어지고 완강을 하기가 어려운데 스터디원과 서로 격려하고 다독여주며, 또한 때로는 경쟁하며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 회 차 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번 회 차 때 부족했던 점을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다음 회 차를 준비할 새로운 전략들도 같이 짜보며 공부에 대한 흐름도 잡고 단지 인강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p>매 주 서로에게 문제를 제출해보며 출제자의 마인드로 문제를 바라보고 주요 개념들을 다룰 수 있었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내가 낸 문제의 개념들은 절대 까먹지 않게 되었습니다.</p> <p>스터디를 통해 함께 공부하는 것의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고 다음에도 스터디를 진행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p>
-----------------------	--

팀명: 마지막 토익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강의실 410호 등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5월 1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 / 2	4:30 ~ 6:00	강의실 410	주어, 동사 빈출 문법 정리와 Part7 시간에 맞춰 문제 풀이 후 오답 정리
4 / 9	4:00 ~ 5:30	강의실 410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빈출 문법 정리와 Part7 시간에 맞춰 문제 풀이 후 오답 정리
4 / 16	4:30 ~ 6:00	송우리 요거프레소	동사의 형식과 시제 빈출 문법 정리와 Part7 시간에 맞춰 문제 풀이 후 오답 정리
4 / 30	4:30 ~ 6:00	스타벅스 송우리점	Part5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 이론정리 및 품사가 혼동되는 명사들 짚지시험
5 / 7	4:30 ~ 6:00	강의실410	Part 5 전치사의 기본의미 암기와 주요 전치사+명사 또는 동사+전치사 유형 문제풀이
5 / 21	4:30 ~ 6:30	강의실410	Part 5 관계 대명사와 분사/분사 구문 이론정리와 관계부사 종류 암기, 오답률 높은 분사 구문 오답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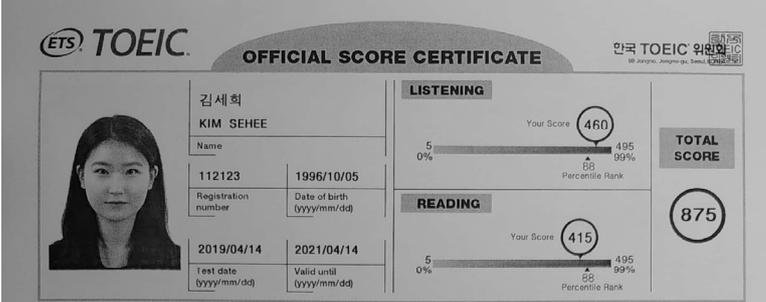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우리는 4월 2일의 스터디를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완료하였는데 처음 계획한 대로 스터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p> <p>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였을 텐데 동기와 스터디를 하게 되니까 만약 내가 숙제나 약속을 어길 시 같이 공부하는 동기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숙제와 약속을 잘 지켜왔던 것 같다. 또한 외워야 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암기가 이뤄져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p> <p>그리고 마지막 스터디에서는 실전 토익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LC 파트와 RC 파트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서 실제 토익 시험을 보는 것 같았고 실전 준비를 할 수 있었다.</p> <p>우리 '마지막 토익' 조의 학습방법은 매주 Chapter 별로 빈출 문법 포인트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후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에 대해 서로 알려주며 정리하였다. 독해 부분에서는 매 스터디마다 10분 ~ 15분 동안 4지문 ~ 6지문씩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잡아 제한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였다.</p> <p>또한 매일의 숙제를 정하여 독해 능력과 문제 풀이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매일의 숙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 문제의 패턴이나 감을 쉽게 익힐 수 있으나 시간이 없어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된다면 오로지 감에 의한 문제를 푸는 방법만 터득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적은 양의 문제지만 정확하게 시간 내에 푸는</p>
-------------------	--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스테디를 해보니 적은 양의 문제로도 충분히 문제의 패턴과 감을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 풀이의 양도 중요하지만 꾸준함과 정확한 문제 풀이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모임을 통해 토익 성적이 향상되어 매우 부듯했고 혼자 하는 공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던 거 같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매주 동기와의 스테디와 매일의 숙제가 이번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로 설명해줌으로써 개념정리를 확실히 할 수 있어서 학습 효과가 더 증대되었다.

기타



ETS TOEIC OFFICIAL SCORE CERTIFICATE

김세희
KIM SEHEE
Name

112123 1996/10/05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yyyy/mm/dd)

2019/04/14 2021/04/14
Test date Valid until (yyyy/mm/dd)

LISTENING Your Score: 460 (495, 99% Percentile Rank)

READING Your Score: 415 (495, 99% Percentile Rank)

TOTAL SCORE 875

발급번호 : 023121-0311007701

한국TOEIC시험은 성적표, 확인표 및 부정사용 필자를 위해 스테디용 및 TOEIC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조회권 서비스용 제공되고 있습니다. YBM NET 앱을 통해 성적표 확인 후, 성적표 조회 QR코드 또는 성적표 인쇄용 QR코드를 사용하여 성적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하며 자세한 이용방법은 TOEIC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앱 설치 및 서비스 이용 방법 >

1. YBM NET 앱을 앱스토어에서 검색하거나, 부록에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해 설치합니다.
2. YBM NET 앱을 실행 한 후, 화면의 안내에 따라, 성적표 조회용 QR코드를 스캔합니다.
3. 스캔 화면에서 성적표에 인쇄된 '성적조회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성적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YBM 앱 다운로드 QR코드

안드로이드용 아이튠즈용

LISTENING

Your scaled score is between 400 and 495. Test takers who score around 400 typically have the following strengths:

- They can infer the central idea, purpose, and basic context of *short* spoken exchanges across a broad range of vocabulary, even when conversational responses are indirect or not easy to predict.
- They can infer the central idea, purpose, and basic context of *extended* spoken texts across a broad range of vocabulary. They can do this even when the information is not supported by repetition or paraphrase and when it is necessary to connect information across the text.
- They can understand details in *short* spoken exchanges, even when negative constructions are present, when the language is syntactically complex, or when difficult vocabulary is used.
- They can understand details in *extended* spoken texts, even when it is necessary to connect information across the text and when the information is not supported by repetition. They can understand details when the information is paraphrased or when negative constructions are present.

To see weaknesses typical of test takers who score around 400, see the Proficiency Description Table, www.toiec.co.kr/table

READING

Your scaled score is between 350 and 450. Test takers who score around 350 typically have the following strengths:

- They can infer the central idea and purpose of a written text, and they can make inferences about details.
- They can read for meaning. They can understand factual information, even when it is paraphrased.
- They can connect information across a small area within a text, even when the vocabulary and grammar of the text are difficult.
- They can understand medium-level vocabulary. They can sometimes understand difficult vocabulary needed, unusual meanings of common words, and idiomatic usage.
- They can understand rule-based grammatical structures. They can also understand difficult, complex, and abstract grammatical constructions.

To see weaknesses typical of test takers who score around 350, see the Proficiency Description Table, www.toiec.co.kr/table

If your performance is closer to 450, you should review the descriptors for test takers who score around 450.

ABILITIES MEASURED	PERCENT CORRECT OF ABILITIES MEASURED	ABILITIES MEASURED	PERCENT CORRECT OF ABILITIES MEASURED
Can infer gist, purpose, and basic context based on information that is explicitly stated in short spoken texts	98 76	Can make inferences based on information in written texts	77 67
Can infer gist, purpose, and basic context based on information that is explicitly stated in extended spoken texts	94 76	Can locate and understand specific information in written texts	69 60
Can understand details in short spoken texts	93 65	Can connect information across multiple sentences in a single written text and across texts	64 71
Can understand details in extended spoken texts	94 82	Can understand vocabulary in written texts	61 60
Can understand a speaker's purpose or implied meaning in a phrase or sentence	90 70	Can understand grammar in written texts	100 70

HOW TO READ YOUR SCORE REPORT:

Percentile Rank: Percentage of the global TOEIC Secure Program test takers in 2016 through 2018 scoring below your scaled section score.

Percent Correct of Abilities Measured: Percentage of items you answered correctly on this test form for each one of the Abilities Measured. Your performance on questions testing these abilities cannot be compared to the performance of test-takers who take other forms or to your own performance on other test forms. The average for each ability is the averaged percentage of items answered correctly by the test-takers of the TOEIC Secure program on this form.

Note: TOEIC scores more than two years old cannot be reported or validated.

팀명: 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학습과목:

학습장소: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8일 ~ 2019년 06월 1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3.28	16:30 ~ 18:30	미래관 411호	이번 학기 스터디에 대한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세부적인 모임 날짜 및 시간을 정함
2019.4.4	16:30 ~ 18:30	미래관 411호	지도교수님이신 박승민 교수님과 만남,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의 들음
2019.4.18	16:30 ~ 18:30	카페엔젤, 코엑스	2019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참관해 관심 있는 기업을 인터뷰함
2019.5.2	16:30 ~ 18:30	미래관 201호	뉴스레터 내용 구상 1차 회의를 진행함
2019.5.9	16:30 ~ 18:30	미래관 403호	뉴스레터 내용 구상 2차 회의를 진행함
2019.5.16	16:30 ~ 18:30	미래관 201호	졸업생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함
2019.5.28	16:30 ~ 18:30	미래관 411호	박승민 교수님과 만나 기사 내용과 디자인 관련 피드백을 받음
2019.6.4	16:30 ~ 18:30	미래관 201호	박승민 교수님 피드백에 따른 수정 결과 및 기자단원 상의 통해 내용을 추가함
2019.6.13	16:30 ~ 18:30	미래관 201호	기자단 마지막 활동 리뷰 및 뉴스레터 발간 작업을 진행함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번 기자단 활동은 전년도 대비 더욱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1학기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다. 프리미어 사용법 숙지를 비롯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작문법에 대해 더욱 깊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롭게 기자단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첫째 주에 한 학기동안의 활동계획에 대한 회의를 토대로 활동을 매주 진행했는데,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의 여러 이슈들을 비롯해 관련 분야 사회동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바이오코리아나 메디컬코리아에 참석하여 인터뷰한 내용도 진로에 있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학기에도 기자단에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데 학과 동구나 선후배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보건의료산업학과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학과 홍보 영상을 제작 및 학과 SNS를 개설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키메스와 바이오코리아, 메디컬코리아와 같은 기업 탐방을 하고, 세미나를 들으며 전공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한 것 같다. 특히 직접 인터뷰를 함으로 기자단의 역할을 한 것 같다. 다음으로 학과 뉴스레터를 직접 디자인해봄으로써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든 것 같다. 이번 학기, 유익한 활동을 했던 것 같다.</p> <p>기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수정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기사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하다. 이번 스터디를 통하여 길게 늘어뜨려 장황하게 글을 쓰던 기존 습관을 고쳤다. 또한 기사 쓰기를 배우며 작문 능력이 향상되었다. 기사는 팩트만 전달해야 한다. 어느 사건에 허구를 전달하는 것은 기사의 객관성을 무시하므로 글을 꾸며 쓰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p>
-------------------	--

	<p>또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해 배우면서 조금은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 보건의료산업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바꾸는 인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공부는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처음에는 배울 때 힘들고 이것을 왜 배우는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사회에서 업무 수행 시 효율적인 일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배움은 끝이 없고 결과는 내가 만들어간다. 99%의 실패 가능성을 믿지 말고 1%의 성공가능성을 내다보고 그 일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미래에 창의적인 인재가 되고 싶다.</p> <p>이번 교과스터디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기존 기자단 활동을 좀 더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자신과 생각이나 의지가 같더라도 체계적으로 활동을 장려하거나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교과스터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원하는 바와 계획했던 바를 무사히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특히 이번 기자단 형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들과 많은 교류를 하거나 보건의료에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접해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기사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다. 2학기 때도 이러한 활동이 있다면 그 때는 이 때의 경험치를 살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활동 할 수 있을 것 같다.</p>
<p>기타</p>	<p>한 학기 동안 스터디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비교과 스터디를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p>

팀명: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약학도의 자세

학습과목: 파이썬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6월 07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1	17:00 ~ 18:00	과학관 102호	파이썬의 기본 기능 둘러보기(숫자-정수, 우선순위, 진수, 형변환, int의 크기 등)에 대해 공부했다.
4/26	17:00 ~ 18:00	과학관 102호	파이썬의 기본 기능 둘러보기(문자열-이스케이프 문자, 결합, 복제하기, 문자 추출, 슬라이스, 문자열 길이, 대소문자와 배치, 대치하기 등)에 대해 공부했다.
5/13	17:00 ~ 18:00	과학관 102호	파이썬의 기본 기능 둘러보기(파이크리스트-코드구조) [1]을 수행했다.
5/21	17:00 ~ 18:00	과학관 102호	파이썬의 기본 기능 둘러보기(파이크리스트-코드구조) [2]를수행했다.
5/28	17:00 ~ 18:00	과학관 102호	docstring, 예러 처리하기, 파이 포장하기에 대해 공부했다.
6/7	17:00 ~ 18:00	과학관 102호	본격적으로 파이썬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과 단순 계산뿐 아니라 규칙을 갖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법에 대해 터득했다.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파이썬을 이용한 약학 연구를 하기 중에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한 학기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class에 대한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약학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다. 필자는 이번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인원들 모두 이전부터 실험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개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실험과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더 싼 값에 더 빠르게 더 다양한 약을 사람들이 제공받아 더 기회적으로 공평한(존 롤스가 주장했던 정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번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인원들 모두 분자수준에서의 약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적인 공부 또한 이어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설정할 수 있었다. 물리화학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virtual screening, word cloud 등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약학도로써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비교과 활동에서의 인원은 두 명 뿐이었는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함께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여 보다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모임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p>
--------------------------	---



기타

보다 훌륭한 전문인으로써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신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구성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다면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명: 우리 스터디 차고다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열린마루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06일 ~ 2019년 05월 2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3.06	16:00 ~ 17:30	의정부역 카페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단어시험, ETS 단어 day1 20개 시험 > 셀프 스터디 1회차 오답 풀이 > ETS LC 오답확인 및 ETS RC 수업내용 중 8품사와 문장의 필수요소 학습 > 다음스터디까지 할 과제 정하기 > 스터디 피드백 시간
2019.04.04	14:30 ~ 15:30	열린 마루	먼저 토익 단어 시험을 본 후 글로벌 영어 시간에 배운 학습내용을 복습
2019.04.11	16:00 ~ 17:30	열린 마루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단어시험, ETS 단어 day2 20개 시험 > ETS LC 파트2 학습 및 ETS RC 수업내용 중 대명사파트 정리 > 스터디 피드백 시간
2019.04.30	16:00 ~ 17:30	열린 마루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단어시험, ETS 단어 day3 20개 시험 > ETS LC 오답확인 및 ETS RC 수업내용 정리 > 스터디 피드백 시간
2019.05.07	15:30 ~ 16:30	열린 마루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단어시험, ETS 단어 day4 20개 시험 > ETS LC 오답확인 및 ETS RC 수업내용 정리 > 스터디 피드백 시간
2019.05.23	15:30 ~ 16:30	셀프 주방	해커스토익 기출보카 단어시험, ETS 단어 day4 20개 시험 -> ETS LC 오답확인 및 ETS RC 수업내용 정리 -> 스터디 피드백 시간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전 진: 차의과학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동기들과 같이 한 활동이 토익 스터디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 한 것보다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정말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서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들은 생각하면 처음으로 스터디를 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 때는 스터디가 처음이라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동기들과 같이 하는 것을 알고서 다 같이 계획을 세우고 의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영어 시간에 모의토익을 보고 스터디원들과 의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스터디라고 생각하니 공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수 있어서 스터디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했던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터디모임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시작한 스터디였는데 막상 마지막 스터디를 하닌 학교생활도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정말 뜻 깊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였습니다.</p> <p>추재욱: 일단 처음에 스터디를 하자고 했을 때 지원금도 제공되며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계획 세운 게 빠듯했고 모임도 자주 할 걸 생각하니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맞춰서 모임도 갖고 하다 보니 단어도 매일 외우게 되고 꽤나 재미있었습니다.</p>
-------------------	--

특히 매 주마다 단어 시험을 제일 잘 본 동기 지역으로 가서 스터디도 하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할 때는 귀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임이 종료되어서 앞으로 또 스터디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게 된다 생각하니 참 아쉽습니다. 스터디 하다 보니 우리 차고다 친구들 정도 많이 들었고 정말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우정 변치 않고 잘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스터디 차고다 짱짱!!

황민영: 혼자 학습했다면 도중에 지치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팀원들끼리 모여 함께 공부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암기를 요하는 부분은 서로 확인해주며 활동을 이어가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며 학습능력을 기른 것 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영단어 시험의 벌금으로 걷은 금액을 사용해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고 격주로 많은 모임을 가져 후에도 계속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비교과 스터디, 다음 학기에도 도전하고 싶어 졌습니다.

황유정: 처음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같이 토익시험을 잘 보자는 마음으로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단어시험도 치고 서로 힘들 때마다 격려와 위로도 해주면서 힘을 내어 토익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욕이 넘쳐 단어시험에서 틀린 개수마다 벌금을 걷어 좀 더 토익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면서 학습능력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벌금으로 같이 놀이공원도 가고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시시콜콜 얘기도 하면서 추억도 많이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끝나고 종강을 한다고 해서 많이 아쉽지만,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차고다 멤버들과 같이 또 힘내서 스터디 모임을 가지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학기에는 원하는 토익점수를 얻진 못하였지만, 다음 학기에 하게 된다면 다음 학기에는 꼭 목표도 이뤄보고 싶습니다.

기타



팀명: 익토익토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도서관, 북카페

학습기간: 2019년 03월 27일 ~ 2019년 06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7	7:30 ~ 9:30	도서관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와 문법의 기초 뼈대 잡기
4.4	7:30 ~ 9:30	도서관,북카페	실전의 감을 익히기 위한 토익rc 100문제 풀어보기
5.1	7:30 ~ 9:30	북카페	실전의 감을 익히기 위한 토익rc 100문제 풀어보기
5.15	7:30 ~ 9:30	북카페	영국 발음 익히기
5.29	7:30 ~ 9:30	북카페	글영 단어 재시험을 대비하여 다같이 단어를 암기하고 나머지 1시간 20분 동안 문법 (교재: ets 토익기출 공식 입문서)
6.3	7:30 ~ 9:30	북카페,토프레스	낮선 영국 발음 익히기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김윤서: 혼자서 라면 절대 꾸준히 못할 영어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을 계획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 처음 모의 토익을 접했을 때는 지금까지 접해본 적 없었던 영국식 발음과 수능 보다 더욱 자세한 문법이 많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지만, 조원들과 함께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서로 알려주며 혼자 답안지를 보고 공부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모임을 통해 '셜록홈즈' 라는 영국드라마를 알게 되어서 이번 방학 때 꾸준히 영어 듣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어공부를 하면서 조원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서만 공부하기보단 여러 명의 사람들과 공부함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p> <p>이재은: 처음 소모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살짝 고민을 했는데 막상 시작 해보니 동기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느꼈다. 물론 혼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들과 모르는 부분은 얘기를 하며 서로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리에 더 잘 들어왔던 것 같다.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지지는 않았지만 영어를 접하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나면서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고 예전보다 확실히 영어를 봐도 아는 단어도 많아지게 되었다. 후에도 소모임을 한다면 다른 분야로 참여해보고 싶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만나서 토익을 했던 것을 토대로 하계방학기간 에도 나 혼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토익 공부를 하는 습관을 유지해 나가야겠다.</p> <p>이혜지: 이번에 토익상승을 목표로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경험 이었던 것 같다. 특히 대학에 와서 이제 수능공부가 아닌 토익을 목표로 처음 공부해 보는 것이 라서 조금 낯설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소모임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었다. 특히 서로 모르는 문제를 공유하고 각자 설명해주면서 가장 실력이 빠르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역시 다 같이 힘을 합치니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는 토익 말고도 다른 주제로 소모임을 진행하여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기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싶다.</p>
-------------------	---

임시윤: 토익 성적 상승을 목표로 만든 소모임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 처음 토익스터디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아직 학기 초이고 다른 친구들도 토익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살짝 조장으로서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팀원들도 적극적으로 모임에 임해주어서 좋은 활동이 되었던 것 같다. 수능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틀에 정해져있던 공부라 아니라 영국 드라마를 본다던지 함께 다과회를 하며 공부를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혼자 토익을 공부할 때나 나중에 기회가 되어 다시 소모임을 진행할 때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 같다. 또한 글로벌 영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따로 시간을 내어 복습하지 않아도 팀원들과 토익 하는 방법을 통해 쉽게 익힐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었다.

팀명: 채대열

학습과목: 텡스

학습장소: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19일 ~ 2019년 04월 1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3/19	3:30 ~ 4:30	미래관	텡스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텡스란 어떤 시험인지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익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텡스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했다 세명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텡스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목표점수로 텡스 400점을 잡았다.
19/3/26	5:30 ~ 6:30	혜화역	청해영역에 대해서 브리핑했는데 청해영역은 40분에 40문제를 푸는 것이고 독해영역은 40분 35문제를 풀어야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주 토요일에 첫 실전모의고사를 풀 예정인데 책 선정과 장소 선정 준비사항 등을 얘기했다.
19/3/30	2:30 ~ 6:00	강남역	실전모의고사를 모여서 풀어봤다. 스터디룸을 빌릴 계획이었지만 자리가 남는 스터디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카페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청해영역은 각자 노트북을 챙겨왔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풀었고, 보카 리딩 파트는 타이머를 재고 풀었다 3명 모두 절반정도 맞췄는데 점수로 환산하면 200중 후반 정도의 점수이다. 카페라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풀다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도 여유롭게 먹고 풀다보니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아쉬웠다.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는 집중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봐야겠다.
19/4/2	10:30 ~ 12:40	미래관	2회차 모의고사를 진행했다. 저번 시험과 비슷하게 문제를 틀렸는데 시간을 줄여야 하는 파트에서 너무 오래 붙잡아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멍 때리다가 몇 문제를 그냥 흘렸다는 인원도 있었다. 그래도 연습이니까 오답 노트 할 게 많아져서 지금 틀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휘력이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기존에 시험을 보던 보카책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 보카도 정리해서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어량이 조금 부담되기는 하지만 이왕 하는거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공부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19/4/9	10:30 ~ 12:40	미래관	3회차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단어 시험을 보았다. 어느 정도 텡스라는 시험의 유형에는 익숙해졌지만 아직 기본기가 부족하여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토익과 좀 다르게 문장을 꼬거나 추론해서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나간 문제에 정신을 빼앗기거나 보기 하나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할 점으로 피드백을 나누었다. 청해영역을 다들 어려워해서 외부에 텡스 고득점자의 팁을 나누었다.
19/4/13	2:30 ~ 4:40	미래관	텡스시험을 5월에 볼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전처럼 환경을 조성하여서 문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무겁지 않게 기본기를 다지는 식으로 공부하였는데 시험처럼 공부하기로 하였다. 가장 단기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문법파트를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 토익처럼 문법정리를 하기로 했다. 오답노트 때 가장 많이 틀렸던 유형인 시제 분사 구문 관사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다.

활동 소감

템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학원을 다니려고 했지만 뜻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 마침 학교에서도 학습법 소모임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한 학기 동안 비교과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다.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암기한 단어량? 문법 실력? 독해 실력? 외국인처럼 들을 수 있는 귀? 전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끈기와 의지이다 엄밀히 말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어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어 능력보다는 얼마나 오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았는지가 템스는 물론이고 각종 영어 시험에서 고득점과 저득점자가 나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혼자 시작했으면 어영부영 학기가 지나갔을 것 같았는데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

박준열 채병준 학우는 목표점수를 얻지 못하였고 이대헌 학우는 무릎 수술 때문에 시험조차도 치루지 못 하였다. 그럼 우리의 비교과 스터디 모임은 실패한 것일까?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교과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세 친구가 각자의 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공유하게 되었고, 서로 응원해주고 도와주게 되었다.

또 스터디가 끝난 후 맛집을 찾아다니다보니 서울 곳곳에 괜찮은 식당 장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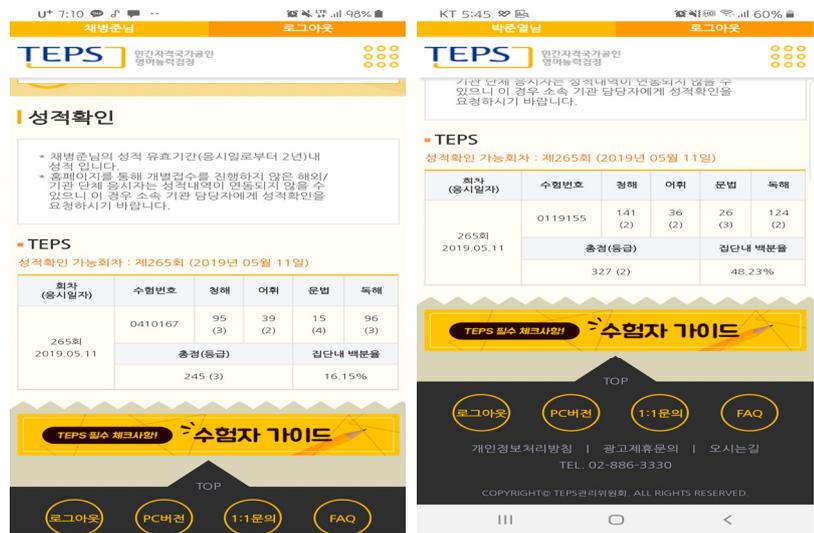
우리들이 템스를 3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전공 공부도 하고 연구실 인턴도 준비하다보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노력을 400점을 받을 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400점을 못 받은 것이지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스터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단단하게 다진 기반이 언젠가 포텐셜이 터질 것임을 믿는다.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에서 오랜 시간 인내 후에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깨달음으로 템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때 이번 학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학습법 소모임이 추억으로 생각날 것 같다.

소감 및 종합 의견

기타



이대헌은 무릎 수술로 시험못봄

팀명: 지원스쿨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과학관

학습기간: 2019년 04월 05일 ~ 219년 06월 1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5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L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4/12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R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4/19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L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4/26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R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5/10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L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5/17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R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5/24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L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5/31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R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6/7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L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6/14	1:30 ~ 4:00	과학관	토익영어 RC 듣기문제풀이 및 오답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양지원 스포츠의학과 19 : 늘 성국형 교수님이 나눠주시는 영단어 프린트만 열심히 외웠었는데 친구들과 소모임 때 필기한 것을 공유해보니깐 강의 시간에도 꽤 많은 단어를 알려주셔서 놀랐습니다. 마지막 소모임 때 친구들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해보자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활동비를 토익과 관련된 책을 사는데 사용하자고 의견을 냈고 친구들도 동의해서 책을 샀습니다. 앞으로 정말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목표하는 바를 이룰 때 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p> <p>양희 스포츠의학과 19 : 평소 듣기는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기 또한 추가적으로 암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익이라는 것이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소모임 마지막이라고 끝이 아닌 계속해서 공부하기 위해 평소처럼 똑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여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p> <p>임현수 스포츠의학과 19 : 단어 외우는 것이 평소에 취약했는데 친구들과 꾸준히 하다보니깐 단어 암기 시간도 줄어들고 암기 하는데 요령도 생긴 것 같아서 부듯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벌써 최종 보고서를 쓸 만큼 시간이 빨리 갔다는 것이 아쉽고 그동안 소모임을 통해 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2학기 때도 계속해서 소모임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p>
-----------------------	---

기타



팀명: 청춘의홍 잉글리쉬 차차차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학과실습실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5월 2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25	16:00 ~ 18:00	자취방	토익 (시험, 학습공유, 각자공부)
4/3	17:30 ~ 19:30	미래관 202호	토익 자체공부 및 단어 시험
4/9	19:30 ~ 21:30	학과 실습실	토익 자체공부 및 단어 시험
5/2	19:30 ~ 21:30	학과 실습실	모의 토익 재검토 및 단어 시험
5/12	19:30 ~ 21:30	학과 실습실	토익 취약파트 보완과 단어 시험
5/15	17:30 ~ 19:30	자취방	단어 시험 및 학습 소모임 마지막 공부 정보 공유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지금껏 동기들과 모이는 일은 수업을 늘 때, 딱 한 가지였다. 학과 특성상 남자가 적다보니, 항상 우리 끼리 뭉쳐 다녔고 그만큼 친하게 지냈는데, 함께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많이 뭉칠수록 다들 바보가 되는 사고뭉치들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어느덧 고학년이고 복학생이라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지만, 함께 할 때면 신입생보다 어린 아이처럼 노는 것이 우리의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항상 동기들과 모이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토익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함께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다. 복학을 하고 처음으로 같이 공부를 해본 동기들은 열심히 해줬고 서로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며 도움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모두 중간고사 모의 토익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는 기말고사에 있을 모의토익을 공부하였는데, 다들 처음보다 더 의욕이 넘쳐 올라 더 열심히 해줬다. 아직 기말고사 시험을 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기말고사 또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에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터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매일 놀기만 했던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어, 노는 시간도 저번 학기보다 많이 줄었고, 함께 성장을 하니 처음으로 동기들이 의젓해 보였다. 또 한 가지 얻어간 게 있다면, 다들 시간 약속을 잘 지키게 되었다. 항상 약속을 잡으면 길게는 한 시간씩 늦던 우리인데, 토익 스터디를 하면서는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들 옛날 보다는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 서로서로 믿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번 스터디가 동기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대학 생활, 벌써 입학한 한지 4년이 넘었다. 벌써 학교생활을 한지 절반이 넘었고, 각자 대학에서 수업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1학년 때 만큼 자주 붙어있지도 못하고, 정기적으로 동기들과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매주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 젊다 할 수 있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일기에 비교과 토익스터디라는 한 줄의 추억을 동기들과 담아 간 것 같아 너무 뿌듯하다. 다음 학기에도 더 성장된 모습으로 동기들과 스터디를 하면 좋겠단 말이 있었고, 가능하다면 그대로 혹은 몇 명 추가해서 2학기에도 소모임을 신청할 것 같다.</p> <p>1학년 때부터 차의과학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구호가 있다. 모두 힘내서 CHA! CHA! CHA!</p>
기타	첫 모임에서 기말고사 기간은 피하자는 의견이 있어 6월 전에 모임을 마치고 공부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팀명: 체인지메이커 1

학습과목: 사회

학습장소: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11일 ~ 2019년 06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3	오후 6시	미래관 306호	한 학기의 계획과 활동 방향 설명 및 대면식
4/9	오후 4시 30분	미래관 309호	각자 동물 보호 관련하여서 하고 싶은 캠페인 의견 공유
4/30	오후 10시	해룡학사 셀프주방	상반기 활동 구체화 (동물 비하 인식 개선 / 동물의 상업화 / 유기 동물 관련 포스터) + 동물 관련 굿즈 판매 및 수익금기부
5/8	오후 6시	미래관 306호	캠페인 별 중간 점검+피드백
5/13	오후 6시	미래관 311호	체인지메이커 소모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홍보팀 / 기획팀 나누기 및 체인지메이커 로고 선정
5/20	오후 6시	미래관 201호	동물 비하 발언 개선(UCC제작), 동물의 상업화(포스터 제작 및 학생들의 인식개선), 유기동물(포스터 제작) 캠페인 팀별로 모임을 가짐. 캠페인 마무리단계 작업을 하며 피드백시간을 가짐.
5/27	오후 12시	미래관 1층	동아리제 부스 운영을 진행함.
6/3	오후 5시 30분	미래관 202호	굿즈 판매 수익금 정리, 앞으로의 계획 발표, 캠페인 별 피드백, 전체적인 피드백 및 한 학기 소감 발표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1. 유기동물 활동내용</p> <p>유기동물팀에서는 유기동물 시설 실태와 유기동물 예방책에 대해 알고자 포스터제작을 하였다. 포스터 내용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템플릿을 사용한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자료조사과정과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2017년 기준 버려진 동물들이 10만 마리 이상이고,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운영자의 동물보호 의식이 전혀 없을 뿐더러 입양 후 사후관리가 열악하고 과잉사육 확대로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설의 실태와 더불어 예방법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유기나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펫파라치, 애니멀플러스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입양 전에 신중한 고민을 한 후 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버려지는 동물의 수를 막기 위한 예방책임을 알게 되었다.</p> <p>2. 공모전 활동내용</p> <p>차의과학대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고양이들을 뱃지로 만들고 판 뒤, 그 수익금을 고양이들의 병원비로 보태자는 취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뱃지 및 물품의 도안은 공모전을 통해 학교</p>
-----------------------	---

학생들에게 맡기기로 했다.

차냥이 뱃지 공모전 팀은 3명이서 각자 맡을 역할을 먼저 나누었다. 뱃지 제작을 알아보고, 뱃지 단가를 알아보고, 홍보글을 작성할 사람 한명, 홍보용 포스터를 1차로 기획할 사람 한명, 그리고 포토샵으로 포스터의 최종본을 만들 사람 한명을 정하였다.

차냥이 공모전 팀은 각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에브리타임'에도 홍보하였다. 또한 포스터를 인쇄한 뒤, 학생지원처에서 홍보물 부착 허락을 받고 포스터들을 교내 게시판에 부착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뱃지 제작을 맡길 업체를 꾸준히 알아봤다.

홍보물을 보고 도안을 보내주신 학생 분들의 도안을 받으면서, 뱃지로 제작할 도안 하나를 뽑았다. 원래는 뱃지 하나만 제작하기로 하였지만, 공모전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의 도안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스티커랑 거울도 같이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제작하기로 확정된 도안들을 각자 업체를 통해 주문을 하고, 물품들을 포장할 포장지를 구매하여 판매하였다.

물품들은 사고 싶은 학생들이 네이버폼을 작성하여 미리 입금을 하고 동아리제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아리제 날에 부스에서 품을 작성 안하신 분들도 당일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날씨 문제, 학생들 유도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물품이 많이 남아서 2학기 때 다시 판매해보자는 계획을 세운채 마무리되었다.

3.부스운영

05 / 28 미래관 104호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유기동물 그리고 차냥이에게 기부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굿즈판매활동을 진행하였다.

차냥이 도안 뱃지, 손거울, 스티커를 동아리제 때 부스를 운영해서 판매하였다. 원래 야외에서 부스를 운영하기로 기획되었지만 5월 28일에 비가 온 관계로 미래관 104호에서 부스를 진행하였다. 그전에 우리의 부스운영에 대한 홍보포스터와 이벤트포스터를 학교 에브리타임과 체인지메이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였다. 28일 우리는 만나서 104호 테이블을 설치해 우리가 판매할 물품들을 진열하였고 미리 만들어 둔 포스터를 뽑아 부스운영테이블 근처에 붙여두었다. 우리는 먼저 네이버폼을 이용해 선주문을 받고 부스로 찾아오는 사람한테 물건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물론 현장에서도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번 우리 체인지메이커 컨셉이 차냥이인 만큼 차냥이의 병원비를 위해 모인 사람들과 같이 진행하였다. 또한 SNS 이벤트도 진행하였다 우리 체인지메이커 인스타를 팔로우한 사람들에게 차냥이도안 스티커를 제공하였다. 비가 와서 야외에서 판매를 못하였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주었고 차냥이 뱃지, 손거울, 스티커를 좋아해주고 구매했었다. 이 판매금은 기부를 할 예정이다. 이 부스 운영을 위해 체인지메이커 조원들이 하나가 되어 판매 및 홍보와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팀명: 체인지메이커 2

학습과목: 사회

학습장소: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11일 ~ 2019년 06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3	오후 6시	미래관 306호	한 학기의 계획과 활동 방향 설명 및 대면식
4/9	오후 4시 30분	미래관 309호	각자 동물 보호 관련하여서 하고 싶은 캠페인 의견 공유
4/30	오후 10시	해룡학사 셀프주방	상반기 활동 구체화 (동물 비하 인식 개선/ 동물의 상업화 / 유기 동물 관련 포스터)
5/8	오후 6시	미래관 306호	캠페인 별 중간 점검
5/13	오후 6시	미래관 311호	홍보팀 / 기획팀 나누기 및 로고 선정
5/20	오후 6시	미래관 201호	캠페인 별 모임. 캠페인 마무리.
5/27	오후 12시	미래관 1층	부스 운영
6/3	오후 5시 30분	미래관 202호	현재 수익금 정리, 앞으로의 계획 발표, 캠페인 별 피드백, 전체적인 피드백 및 한 학기 소감 발표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1. 동물의 상업화 캠페인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의 상업화 캠페인은 동물의 상업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알아보 고자 한 질문은 '제시된 동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다 함께 스티커 판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함께 의견을 모아 조사할 동물 로 사막여우, 판다, 황새, 늑대, 샴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필요한 물품인 우드락과 스티커를 준비하여 5 월 8일에 스티커 판을 만들었다. 스티커 판 상단에는 동물 사진을 배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하 단에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사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p>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활동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하여 스티커 판을 결과로 한 포스터를 만들지 못 했다는 점이다. 함께 스티커 판을 만들고,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물의 상업화라는 것의 문제 점과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p> <p>2. 동아리제 체인지메이커 부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 운영은 5월 27일 동아리제가 진행된 날 이루어졌다. 1학기는 동물을 주제로 활동을 했던 만큼, 학교 주변의 길고양이인 '차냥이'를 모티브로 한 굿즈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차냥이 치료비와 유 기동물센터에 기부에 목표를 두었다. <p>일단 체인지메이커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스티커 - 1000원, 손거울 - 3000원, 차냥이 뱃지 - 5000 원)이었는데,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스티커 1장씩을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렇게 이 벤트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수익을 내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찰해보았다.</p>
-----------------------	---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비가 오는 날씨.

행사 당일, 날씨가 비가 내려 사람들이 학교 밖에서 사람을 보는 건 드물었고, 야외에서 실내로 바뀐 장소는 미래관 1층의 깊은 강의실이었기에 외부 판매의 홍보 효과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스티커는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이벤트를 하면 1장씩 받을 수 있었기에 굳이 돈 주고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손거울은 같은 크기와 모양의 손거울을 다른 매장에서 구매했을 수 있기에 차남이가 그려진 손거울이더라도 실리적인 것을 따진다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이유는 뱃지 수령의 시기.

뱃지를 주문제작을 하였으나, 제작 기간이 길어서 물품 수령이 당일까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물품인 뱃지를 예약으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타격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조정해서 2학기 때 남은 굿즈 판매에 힘쓴다면 처음의 부스 운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나 한다. 많은 이익이 생기지 못해 이를 유기동물센터에 기부는 하지 못하였고, 차남이 치료비에 전액을 쓰기로 수익금 용도를 정했다. 우리의 첫 활동이었기에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의 활동들은 더욱 보완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3. 동물 비하 인식 개선 UCC

캠페인 1팀은 직접 UCC를 제작했다. UCC의 주제는 '동물 비하표현 인식 개선'이고, 한 대학생의 일상 중 하루를 비춰주고 그 안에서 어떤 동물비하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바라보며 직접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저 정보제공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하루를 보여주며, 우리 삶과 맞닿는 부분부분들을 포착해서 재밌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개새끼, 진지충, 돼지 같다, 개같다' 등 동물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심각한 표현들이 점점 대중화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상황들을 재연하기 위해 주인공을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로 설정하여 시청자들이 상황에 좀 더 영상에 흥미를 가지고 빠져들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마지막 마무리로 그 상황들 속에서 쓰인 비하표현들을 되짚어주며 메시지를 담아내려고 하였다. 또한 '개조심, 말조심'이라는 주제문을 사용하여 개조심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는데 반해서 동물을 비하하는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의 현 모습들을 강조해주며 동물 비하 표현 사용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영상을 완성해내었다. 비록 영상 완성 후 학기말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UCC를 진짜 상영하는 목표까지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학기 때 다시 비교과 소모임을 결성해 이 캠페인을 뒤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을 찍으며 팀원들안에서도 대중화된 동물 비하표현들을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체인지 메이커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이루어내자고 다짐하였다.

팀명: 토익졸업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미래관

학습기간: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6월 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19.03.26	12:30 ~ 13:30	미래관313	토익공부(LC, RC,기출문제)
19.04.04	16:10 ~ 16:40	미래관313	토익공부(LC, RC, 기출문제)
19.04.15	15:30 ~ 16:30	미래관303	토익공부(LC, RC, 기출문제, 단어시험)
19.04.17	15:30 ~ 16:30	과학관103	토익공부(LC, RC,기출문제, 문장 만들기)
19.05.16	15:00 ~ 16:30	과학관315	토익공부(특강자료복습), 영화로 영어공부
19.05.30	15:30 ~ 16:30	과학관315	토익공부(현재까지 내용 복습)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우리가 스터디를 처음 할 때 그냥 시큰둥하게 시작했었다.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스터디를 신청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붙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그냥 그냥 시작하였고 전공보다는 조금 만만한 비교과 스터디 그중에서도 영어 스터디를 진행했다. 같이하는 만큼 피하는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왕 시작했으니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보겠다 라고 생각 하면서 스터디에 임했다. 처음 스터디모임을 시작할 때 계획에 맞춰서 스터디를 진행 하려고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계획한 대로 진행하는게 어려웠다. 시간도 맞아야 되고 각자 원하는 공부가 달랐다. 그래서 기초 위주로 한 명이 가르치고 한명이 배우는 식으로 진행했고 중간에 영화도 보면서 지루함을 달래기도 했다.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공부하니까 좋은 점도 많았다. 둘 다 주로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지만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한 명은 쉽고 질문하기도 편하고 진도도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배우는데 좋았고 한 명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더 기억에 오래남고 응용도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일종의 약속을 잡게 되고 그래도 친구끼리의 약속이라고 지키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였다. 책임감도 가지고 공부했다. 정말 귀찮고 공부하기 싫었는데도 같이하는 동기에게 피하는 주지 말아야지 스터디모임 수도 얼마 안 남았으니 해야지 하면서 버틴 것도 있다. 서로를 믿고 끌어주면서 좋은 스터디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p> <p>스터디하면서 건의사항이나 뭐가 필요한게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해봤는데 큰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공부할 만한 장소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행복도서관의 북카페는 조용하고 로비는 늘 자리가 있어서 우리는 수업이 일찍 끝난 강의실에서 했다. 시간이 지나면 강의실도 못쓰니 약간 그런 장소도 많으면 좋을 것 같다.</p>
-----------------------	---

팀명: 햄스터디

학습과목: 토익

학습장소: 열린마루, 북카페 등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2	16:00 ~ 18:00	열린마루	토익 기본기 다지기(ETS 토익 공식입문서 RC/LC & 해커스 토익 보카)
04.30	16:00 ~ 18:00	북카페	토익 기본기 다지기(토익 단어 암기 및 LC/RC 질문 오답정리 설명해주기)
05.02	14:00 ~ 16:00	북카페	토익 기본기 다지기(토익 단어 암기 및 LC/RC 질문 오답정리 설명해주기)
05.16	19:00 ~ 20:00	과학관	토익 기본기 다지기(토익 단어 암기 및 LC/RC 질문 오답정리 설명해주기)
05.21	14:00 ~ 15:00	카페엔젤	토익 기본기 다지기(토익 단어 암기 및 LC/RC 질문 오답정리 설명해주기), 전치사 접속사 부사 93제 암기시험
06.12	15:00 ~ 17:00	셀프주방	토익 기본기 다지기(토익 단어 암기 및 LC/RC 질문 오답정리 설명해주기), 글로벌영어 수업내용 총정리 및 복습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평소 혼자 공부 할 때에는 규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귀찮아서 미루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을 질문 할 곳이 없고, 수업시간이나 이메일로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거나 다시 학습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p> <p>하지만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팀원들과 서로 설명해주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단지 내가 모르는 것을 묻고 설명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설명해주고 알려주며 자신의 허점이나 모르는 점을 새롭게 인지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p> <p>또한, 세 명에 불과하지만 서로 스케줄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체크하고 소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며 단어시험, 숙제를 빠뜨리지 않도록 서로 케어해주고 점검해주니 미루는 일도 줄어들고,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토익 학습이 되었습니다.</p> <p>소모임과 토익 준비가 처음이라 모두 미숙한 점이 꽤 있었지만, 혼자가 아닌 팀이어서 잘 해결해나가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학습법 소모임 팀을 꾸려 토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준비, 전공시험 준비 등 다양한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p> <p>이번 소모임을 통해 모든 부원이 토익 공부를 완벽히 하여 시험을 볼 정도의 실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단어암기,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기를 통해 토익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한 토익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토익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	---

기타



A decorative background featuring a large, stylized sun with rays. The sun is composed of several overlapping semi-circular segments in shades of light gray. The rays are represented by various shapes: some are simple lines, some are thicker strokes, and some are small circles, all in light gray tones, radiating from the sun.

전공 튜터링

팀명: J호 (우수)



학습과목: 분자생물학

학습장소: 과학관 310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2일 ~ 2019년 06월 1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월 22일	12시 00분 ~ 14시 00분	미래관 310호	분자 생물학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단원인 DNA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즉, 분리의 법칙, 독립유전의 법칙, 우성의 법칙과 불완전 우성에 대해서 정리 하였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DNA→RNA→단백질로 가는 정보의 흐름을 센트럴 도그마(central dogma)를 학습하였다. 진행방식으로는 한명이 학습하여 나머지 조원에게 설명해주는 방법을 선택하여 학습함으로써 내용을 한 번 더 훑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월 29일	12시 00분 ~ 14시 00분	미래관 310호	분자 생물학의 2단원인 DNA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는 반복된 소단위의 긴 사슬 또는 중합체인 DNA 1차구조, B-DNA, A-DNA, Z-DNA의 2차구조, 특히 3가지의 2차구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였다. 진행방식으로는 튜터, 튜티가 각자 맡은 부분을 공부해와서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보며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5월 10일	12시 00분 ~ 14시 00분	미래관 310호	10장 Transcription in bacteria에 대한 내용을 학습 및 복습하였다. 이 장에서는 센트럴도그마 단계중 하나인 Transcription 과정을 Bacteria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polymerization이 일어나는 부위이며 core enzyme과 core enzyme에 붙어 holoenzyme을 이루며 결합되었을때 non-specific binding을 하는 sigma factor가 complex를 이뤄 완전한 기능을 가진 holoenzyme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다.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들에게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토의하였고 전공 수업을 다시 복습하였다.
5월 24일	12시 00분 ~ 14시 00분	미래관 310호	11장 진핵생물에서의 transcription에 대한 내용을 학습 및 복습하였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polymerase의 종류에 대한 기능 및 위치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는 다음과 같다 박테리아는 RNA polymerase 하나였다면 진핵생물은 여러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에 존재하는 RNA pol 1, 핵내에 존재하는 RNA pol 2, 3 그리고 RNA pol 4,5 가 있다. 또한 진핵 기관에서의 RNA pol이 있는데 mitochondrial RNA pol, Chloroplast RNA pol이 있다. 진행 방식으로는 저번 스터디에서 배운것인 원핵생물에서의 전사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튜터가 설명하고 다 같이 토의하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월 12일	12시 00분 ~ 14시 00분	과학관 307호	RNA 가공과 전사 후 유전자 조절에 대해서 학습 및 복습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splicing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 총 5가지로, Group I Intron과 Group II Intron, 핵산내부분비효소에 의해 이어 맞춤되는 Archaea Intron, Intron을 가지는 어떤 핵 tRNA, 그리고 접합소체 Intron이다. 진행방식으로는 튜터가 튜티에게 설명해주고 모르는 것에 있어서 서로에게 질문하며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월 14일	12시 00분 ~ 14시 00분	미래관 310호	시험에 나올 것들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려웠던 13, 14장에 대해서 했다. 그 중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것을 뽑아 문제를 만들고 답을 달았다. 생각 했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Group 1 intron vs Group 2 intron 2) Spliceosome 3) translation initia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Translation Elongat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지선영: 특히 이번 전공튜터링은 전공 공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3학년이 됨으로써 전공도 많아지고 전공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져서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튜터가 공부해서 튜티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모르는 것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어려움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았다. 또한 돌아가면서 튜터를 하니 그만큼 더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라고 생각하여 더 읽어보고 더 생각해보고 했던 시간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나올만한 것을 정리함에 있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 전공 튜터링을 통해 공부법, 가르치는 법, 성적 향상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p> <p>김수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내용의 깊이는 깊어지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낀다. 아무래도 이번 학기 전공 멘토링을 하지 않고 혼자 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기는 힘이 들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전공교과목 멘토링 학습을 통해 공부를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또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가 함께 공부를 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각자가 이해한 것이나 잘 아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해주시니 그 내용에 대해 부족했던 사람은 정보를 더 채워갈 수 있어서 좋고 가르쳤던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말로 설명하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나가니 더 좋은, 효율적인 공부가 되었던 것 같다.</p> <p>장윤정: 다사다난했던 한 학기가 또 흘러갔다. 전공특성상 3학년의 교과과정이 가장 어렵고 많아 심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불안함과 부담이 많았는데 동기들과, 조원들과 함께함으로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많은 범위도 나누어 각각 정리함으로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토론 및 토의를 거치어도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나 같이 같은 공부를 함으로써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그간 함께 학습한 조원들에게 애정을 듬뿍 담은 감사와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p> <p>황 민: 이번 학기동안에 수강했던 전공 수업에는 작년에 비해 유독 어려운 내용이 많이 다뤄졌어서 혼자 학습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 전공튜터링을 통해서 마냥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공서적들을 좀 더 흥미롭게,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 것 같아 기뻐다. 혼자서 공부했다면 제풀에 꺾였을 법한 그런 광범위한 내용들을 네명이서 함께 다가가니 부담이 덜어졌고, 돌아가면서 맡은 부분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맡은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p>
<p>기타</p>	<p>우리 팀은 계속 해서 스터디를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에 어떻게 설명해 주면 더 잘 내용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 같다. 2) 다들 인내심과 좋은 성품을 가졌다. 만약 누구 한명이 공부를 못 해와서 또는 전공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럴 때 마다 우리 팀원들은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 등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3)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한 포부, 다짐 이번엔 다들 3학년이 되면서 많은 전공 때문에 예민하고 힘들어 하였지만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들과 강한 포부,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고 또는 팀원들에게 해줌으로써 더욱 스터디를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다.</p> <p>이번 스터디에 대한 것을 삼행시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한다.</p>

스: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팀원들과 이야기하며 풀어나가고
터: 터득함으로 써, 더욱더 전공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포기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스터디가
우리는
디: 디 ~ ~ 따 좋았고, 스터디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이 같이 했던 노력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19-1 스터디였다!!



팀명: 드라이버킴 (우수)



학습과목: 물리약학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28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3월 28일	17시 ~ 18시	과학관 102호	처음 튜터링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물리약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목차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 전반적인 목차의 구성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또한 물리약학의 약학 분야에서의 역할, 제형에 대한 정의와 예,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특히 제형과 약물 전달 시스템은 물리약학의 핵심 개념으로 대표적인 약물 Procardia XL 서방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월 10일	17시 ~ 18시	과학관 102호	용질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용질의 양(농도)에 따라서 용액의 성질이 결정되게 된다. 즉,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그 수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된다. 이는 다음의 네 가지 특성의 원인이 된다. · 순수한 용매에 대한 비휘발성 용질이 용해된 용액의 증기압 내림 · 끓는점 오름 · 어는점 내림 · 삼투압 현상 이를 용액의 총괄성이라 부르며, 용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농도에만 의존하는 용액의 특성 값들이다.
5월 16일	17시 ~ 18시	과학관 102호	세 번째 튜터링 스터디에서는 물리약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분체와 분산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기에 이 두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이해를 목표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이 두가지에 대한 지식이 사용되어 수행하는 약학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크기에 따른 세세한 분류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5월 24일	15시 ~ 16시	과학관 102호	0차반응 속도 반응, 1차 속도 반응, 유사 0차 반응 속도 * 0차 반응 속도 - 반응속도는 반응물 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약물 방출 속도에 적용할 수 있다. → 0차방출속도 * 1차 반응 속도 반응 속도는 반응물 농도에 비례한다.
6월 7일	18시 ~ 20시	과학관 102호	기말예상문제 대비 퍼짐계수의 정의 및 활용 퍼짐계수 (S) = 부착일 - 응집일 부착일: 서로 다른 분자들 간의 인력을 깨뜨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클수록 부착력이 크며 다른 물질끼리 잘 섞인다) 응집일: 서로 같은 분자들 간의 인력을 깨뜨리는 필요한 에너지 (클수록 응집력이 크다) 2. 흡착, 흡수 정의 흡착: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국한된다. 3. 계면활성제의 정의 및 활용
6월 12일	17시 ~ 18시	과학관 102호	Liso 값을 이용한 삼투성 계산 등장완충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삼투성과 pH를 조절하는 방법) I 부류 방법(어는점 내림법, 염화나트륨 당량법) II 부류 방법(White-Vincent법, Sprowls 법) 용해도의 표현, 액체 중 액체의 용해도 표현: 완전섞임성, 부분섞임성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우리 조는 3월부터 6월까지 튜터가 튜티들에게 교과 과목의 기본과 중요한 요소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제대로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친목을 다지는 스터디를 형성해 한 학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물리약학은 약학대학의 첫 학기에 배우게 되는 과목인데, 분자와 분자간의 성질을 중심개념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약과 약물전달 시스템의 설계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몹시 중요하고도 약학의 핵심적인 교과목이지만, 방대하고 난해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이 교과 스터디로 인해서 멘티들은 혼자서 공부하기에 자칫하면 오래 걸릴만한 부분이나, 혹여 오개념이 생길일이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티들이 배우는 도중에 궁금증이 생길시, 멘토가 접근성이 좋으며,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바로바로 질문하기 편했기 때문에 저마다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할 수 있었기에 실력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에서 개념 설명이 끝나면, 즉석에서 멘토가 요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때, 학생들은 답하기 위해서라도 집중해서 멘토의 설명에 경청하게 되었습니다.</p> <p>멘토는 공부할 과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할하여 학습내용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최대한 알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다각도에서 모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력 또한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질문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학생들이 어려워할 내용을 찾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 연구를 하다 보니, 작년보다도 물리약학이 더 익숙하고, 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p> <p>학교에서의 지원 또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스터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p> <p>우리 스터디는 이러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조를 선택하여 지원해준 차의과학대학교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 덕분에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을 선택하여 비교적 여유롭고 걱정 없이 공부하여 학업의 부담을 덜 채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제공될 경우, 우리는 다들 다음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려 합니다.</p>
<p>기타</p>	

팀명: 3포생물학

학습과목: 세포생물학

학습장소: 면학과, 미래관 등

학습기간: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06월 16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3.26	17:30 ~ 18:00 (30분)	면학과 예비창업자 보육실	세포생물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용어들을 summary하였음. 모든 cell 들은 prokaryotes와 eukaryotes로 나뉘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nucleus의 유무임. eukaryotes는 nucleus를 지니며, 이는 'compartment'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러한 eukaryotes에서 동물세포와 식물 세포로 나뉘는데,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함.
2019.05.20	16:00 ~ 17:30 (90분)	미래관 309호	생물학적으로 기능적, 구조적 'compartment'를 나타내는 핵막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핵막에서 two envelop membrane, nuclear pore complex, nuclear lamina 세가지 구성요소가 가장 중요하며, 핵으로 ptn들이 transport되는 system이 가장 중요함. importin system에서는 NLS를, exportin system에서는 NES를 가장 중심으로 설명함.
2019.05.22	16:00 ~ 17:30 (90분)	~	지난 import/export system에 대하여 복습하고, 이전에 가장 핵심 중 하나였던 NLS system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RNA transport에 대하여 학습함. NLS system에서는 protein Lysin이 이를 조절하며, RNA transport system에서는 transcription factor가 inhibitor가 결합하여 inactive할 때 phosphorylation을 통해 active됨을 알 수 있었음.
2019.06.04	17:00 ~ 19:30 (150분)	미래관 402호	Protein이 NE로 들어가는 과정과 intergral membrane protein이 membrane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함. protein이 ER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SRP가 가장 큰 역할을 하며, protein의 folding에는 chaperon이, 이들 중 BIP에 대해 중점으로 설명함. intergral membrane protein이 membrane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는 stop-transfer sequence, Normal N-terminal signal sequence을 중점으로 설명함.
2019.06.13	18:00 ~ 19:30 (90분)	미래관 2층 복도 테이블	세포의 바로 바깥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부하였음. Extra cellular matrix는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들을 통틀어 칭하는 단어이며, ECM이라고 함. ECM에는 물이 대부분 존재하며, 이러한 바깥의 물과 물을 lipid로 compartment한 것이 세포임. ECM의 역할은 cell과 cell 사이를 채우며, cell 과 tissue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함. ECM은 fibrous protein(콜라겐, 엘라스틴), polysaccharide(disaccharide의 중합체인 GAG), adhesion protein, fibroblast, fibrous protein, ground substance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러한 구성물질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함.

2019.06.16	17:00 ~ 18:30 (90분)	..	기말고사 직전 총 정리를 진행함. 단원은 9,10,12,14단원을 진행함. 9단원은 compartment를 중심으로 prokaryote와 eukaryote의 차이와, import/export system에 대하여 복습함. 10단원은 protein sorting and transport에 대하여 복습하였고, 12단원은 cytoskeleton에 대하여 역할과 종류를 중점으로 하여 복습함. 14장은 ECM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함. 최종적으로 서로 질문하면서 시험을 대비하였고, 구성원 모두 단원을 나누어서 문제를 만들어오고, 이를 풀어 보면서 세포생물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remind하는 시간을 가짐.
------------	------------------------	----	---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소감]</p> <p>박홍범: 이번학기 전공 교과목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년도의 전공과목을 튜터링 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준비하기에 바빠서 모든 내용이 중요 하지만 주로 교수님께서 얘기해주셨던 부분들, 또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만 집중해서 공부 하게 되고 그 부분들만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번 튜터링을 통해서 빼먹고 넘어가고 잊고 있었던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3학년 전공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들이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전공의 내용들이 하나의 매커니즘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본다면 2학년 전공의 느낌은 큰 그림을 보는 느낌이었었는데 자세히 보기에 앞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3학년 전공인 분자생물학이나, 인체생리학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김혜령: 지난학기 때 모자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을 보완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세포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지난 학기에는 너무 어렵고 높은 벽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번에 학과 친구들과 함께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세포생물학도 어찌면 재미있는 과목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2학년 과목을 친구에게 배운다는 것 때문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에 휩쓸려 잘 못 따라갔는데, 이제는 벌써 튜터링이 끝나버리고 세포생물학을 훑어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학년 전공에도 세포생물학 관련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놀랐고, 이렇게 튜터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졸업시험과 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고,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동안 같이 튜터링을 잘 진행해나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p> <p>김유정: 이번학기 생화학과 함께 어려운 전공과목으로 꼽히는 세포생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한 와중에 이렇게 세포생물학 전공튜터링을 진행하게 되어서 시험공부에 있어서, 전공공부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함께 튜터링을 이끌어간 선배들에게 고맙고, 앞으로의 공부에도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년부터 심화전공을 공부하기 시작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세포생물학이 아닌 다른 과목도 쉽게 공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학년 과목인 분자생물학과 인체생리학과 발생학 등에 세포생물 학의 개념이 곳곳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더욱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부가 지금 공부의 심화과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세포생물학 과목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Integrin에 대한 개념이 어려웠고 mechanism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것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나갔던 것이 가장</p>
------------------------------	---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학기는 전공공부에 대하여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 한 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공부도 재미있게 헤쳐 나갈 수 있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

한 학기 동안 전공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전공과목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던 튜티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비했던 튜터 까지 함께 공부해나가면서 쉽게 배워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집중이 필요했던 파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저 전공 책을 읽는 연습, 공부하는 방식의 부분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생물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은 서적으로 튜터링을 준비하였기에 튜터, 튜티 모두 앞으로의 전공과목이나, 기초적인 베이스가 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효과를 본 튜터링이었습니다.

또한 튜터링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더 도움이 되고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튜터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들을 통해 앞으로 튜터, 튜티 각자 스터디를 진행하게 될 때 진행방식이나, 스터디 방식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이 되었던 튜터링이었습니다.

기타





팀명: Development

학습과목: 발생학

학습장소: 분임 토의실

학습기간: 2019년 04월 12일 ~ 2019년 06월 1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4.12	13:00 ~ 16:00	분임토의실	Essential developmental biology chapter2: How development works
2019.05.17	13:00 ~ 16:00	분임토의실	Essential developmental biology chapter7: Xenopus
2019.05.24	13:00 ~ 16:00	분임토의실	Essential developmental biology chapter8: Approaches to development genetics: developmental genetics
2019.05.31	13:00 ~ 16:00	분임토의실	Essential developmental biology chapter9: The chick
2019.06.07	13:00 ~ 16:00	미래관4층 책상	Essential developmental biology chapter10: The mouse
2019.06.14	13:00 ~ 16:00	미래관4층 책상	Essential developmental biology chapter11: Drosophila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오늘로서 한 학기 동안의 짧고 굵은 스터디가 끝이 났다. 군대 전역 후 3개월 후, 즉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와서 혼자 공부하러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변에 친한 동기들은 거의 다 졸업하거나 시기가 다르게 군대에 가버리는 바람에 내 주위에는 친하게 지내던 선배 한명, 기숙사를 같이 살았었지만 먼저 군대 갔다 와서 미리 복학하고 있었던 동기 형 한명,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세 명이 다 함께 서로 도와가며 공부를 한다는 발상을 하게 해준 것이 스터디였다. 우리 중 가장 고학번이고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던 외향적인 성격의 지훈이형을 멘토로 삼아서 나랑 동기 두현이 형이 같이 서로 학습 지도 및 공부 습관 피드백을 해주면서 우리는 성적 향상과 동시에 우정을 나누며 한 주, 한 주 스터디를 진행해 나갔다. 물론 중간 중간에 서로 일정이 안 맞아 못하고 지나가는 구간도 있었고, 식사 때문에 식곤증이 와서 스터디는 하긴 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버린 경우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6번을 모두 채웠고, 이제 남은 건 기말고사다. 꼭 시험을 잘 봐서 우리의 목표가 빛을 발하도록 남은 시험기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p> <p>나는 공부를 할 때 보통 혼자 공부하는 편이었다. 그러다 전공 튜터링을 통해 친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같이 공부하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차라리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덧 스터디를 계속하면서 느낀 것인데 내가 혼자 공부할 때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 더 공부한 것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고 생각이</p>
--------------------------	---

들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았을 때는 생각보다 아는 것이 많이 나왔고 서술형, 주관식 대부분을 다 적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혼자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분업하며 공부를 해보니깐 다른 사람과 공부를 하는 것도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며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친분을 더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학교생활에도 도움이 된 것 같고 스터디를 마쳤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돌이켜보며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팀명: 미래엔 물리가 물리지 않게!

학습과목: 일반 물리학

학습장소: 상록학사 107호

학습기간: 2019년 03월 30일 ~ 2019년 06월 09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3.30	16:30 ~ 18:30	상록학사 107호	2 운동의 기술: 일차원에서의 운동학 3 이차원 운동학: 벡터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문제 풀기
04.16	16:03 ~ 18:30	상록학사 107호	4 동역학: 뉴턴 운동법칙 5 원운동과 중력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문제 풀기
04.20	21:30 ~ 24:30	상록학사 107호	6 일과 에너지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문제 풀기
04.21	21:30 ~ 24:30	상록학사 107호	7 선운동량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문제 풀기
06.06	11:00 ~ 15:00	상록학사 107호	8 회전운동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문제 풀기
06.09	21:00 ~ 24:00	상록학사 107호	11 진동과 파동 개념을 학습하고 연습문제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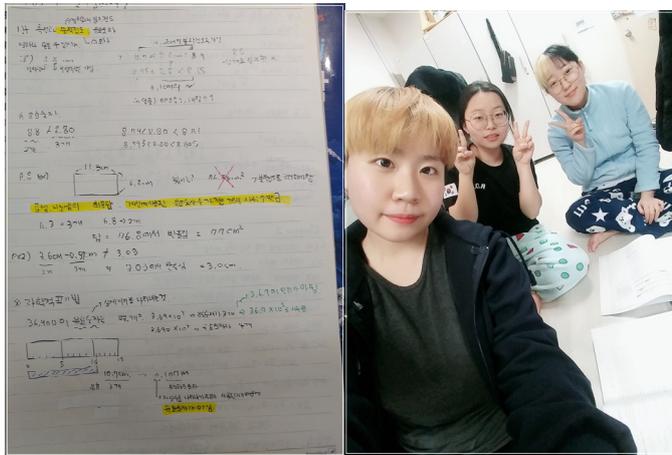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장미래: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 풀이를 도우며 개념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고, 어떤 개념을 어떤 문제에서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p> <p>유혜정: 친구와 함께 학습을 하다 보니 좀 더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었고, 학습을 즐겁게 할 수도 있어서 좋았다. 함께 이야기 하며 문제를 풀다 보니 개념이 더 잘 이해되었고, 어떤 점을 알지 못해서 문제를 잘 풀지 못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학과 특성상 물리 부분이 낯설고 취약한데, 가까운 곳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기 쉬웠다. 과제를 준비할 때 간단한 문제임에도 헛갈리고 갑자기 어떻게 풀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기간 내에 빠지지 않고 제출할 수 있었다. 퀴즈를 보기 전에는 주요 공식들이나 개념들을 함께 정리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되짚어볼 수 있었다. 중요 개념 및 공식 관련 문제들을 뽑아내어 다시 풀어보고 복습하는 시간 역시 퀴즈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기숙사에서만 스터디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너무 편해져서 집중력이 흐려지는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시험기간 전후에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다.</p> <p>이도현: 어릴 때부터 흥미도 없었고, 너무 어려웠던 물리를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듣게 될 줄 몰랐었다. 전공과목이 열리지 않아 전공 학점을 채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수업이었는데 이왕 듣게 된 거 학점은 잘 받고 싶어서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됐는데,</p>
-------------------	---

그래도 룸메이트끼리 하는 것이니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아예 물리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었던 나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었고, 쉽게 설명해주려고 노력해줘서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중간고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실망했었는데, 계속 격려해주면서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줘서 고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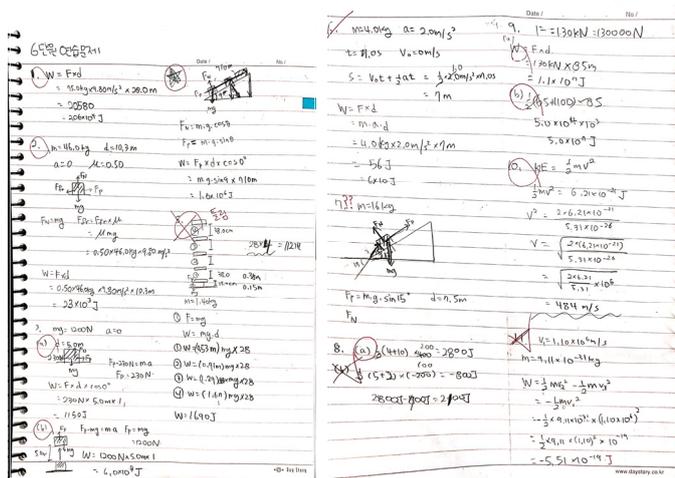
기숙사에서 튜터링을 진행하여 장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점이 편했고, 지정한 튜터링 시간 외에도 수시로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긴 시간동안 튜터링을 하지는 못했지만 시험공부 중 의문이 드는 부분이나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물어보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1회차〉



기타

〈▼2회차〉



〈▼3회차〉

Chapter 9. 선운동량
 9.1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문제 7.2
 $m = 1.5 \text{ kg}$, $v = 20 \text{ m/s}$, $v = 0 \text{ m/s}$
 $P = mv = (1.5)(20) = 30 \text{ kg}\cdot\text{m/s}$
 $P = mv = (1.5)(v_f) = 30 \text{ kg}\cdot\text{m/s}$
 $v_f = 20 \text{ m/s}$
 문제 7.3
 $m_1 = 1000 \text{ kg}$, $v_1 = 24.0 \text{ m/s}$, $v_2 = 0 \text{ m/s}$
 $m_2 = 0.020 \text{ kg}$, $v_2 = 620 \text{ m/s}$
 $m_2 v_2 = 12.4 \text{ kg}\cdot\text{m/s}$
 $P = m_1 v_1 + m_2 v_2 = 24000 + 12.4 = 24012.4 \text{ kg}\cdot\text{m/s}$
 $P = m_1 v_1 + m_2 v_2 = 0$
 $0 = (0.020 \text{ kg})(620 \text{ m/s}) + (15 \text{ kg})v_f$
 $v_f = - (0.020 \text{ kg})(620 \text{ m/s}) / 15$
 $v_f = - 0.827 \text{ m/s}$
 문제 7.4
 $m = 1.0 \text{ kg}$, $v = 2.0 \text{ m/s}$
 $m = 1.0 \text{ kg}$, $v = 0 \text{ m/s}$
 $P = m_1 v_1 + m_2 v_2 = 2.0 \text{ kg}\cdot\text{m/s}$
 $P = m_1 v_1 + m_2 v_2 = 0$
 $0 = (1.0 \text{ kg})(v_1) + (1.0 \text{ kg})(v_2)$
 $v_1 = -v_2$
 $P = m_1 v_1 + m_2 v_2 = 2.0 \text{ kg}\cdot\text{m/s}$
 $2.0 = (1.0 \text{ kg})(v_1) + (1.0 \text{ kg})(-v_1)$
 $2.0 = 0$
 문제 7.5
 $m_1 = 2.0 \text{ kg}$, $v_1 = 3.0 \text{ m/s}$
 $m_2 = 3.0 \text{ kg}$, $v_2 = 1.0 \text{ m/s}$
 $P = m_1 v_1 + m_2 v_2 = 6.0 + 3.0 = 9.0 \text{ kg}\cdot\text{m/s}$
 $P = m_1 v_1 + m_2 v_2 = 0$
 $0 = (2.0 \text{ kg})(v_1) + (3.0 \text{ kg})(v_2)$
 $v_1 = -1.5 v_2$
 $9.0 = (2.0 \text{ kg})(-1.5 v_2) + (3.0 \text{ kg})(v_2)$
 $9.0 = -3.0 v_2 + 3.0 v_2 = 0$
 $v_2 = 0$
 $v_1 = 0$



〈▼4회차〉

문제 9.6
 $F = 50 \text{ N}$, $d = 2.0 \text{ m}$
 $W = Fd = (50 \text{ N})(2.0 \text{ m}) = 100 \text{ J}$
 문제 9.7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frac{1}{2} (1.0 \text{ kg})(2.0 \text{ m/s})^2 = 2.0 \text{ J}$
 문제 9.8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문제 9.9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문제 9.10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문제 9.11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5회차〉

문제 9.12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문제 9.13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문제 9.14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문제 9.15
 $m = 1.0 \text{ kg}$, $v = 2.0 \text{ m/s}$
 $K = \frac{1}{2} m v^2 = 2.0 \text{ J}$
 $W = \Delta K = 2.0 \text{ J} - 0 = 2.0 \text{ J}$



<▼6회차>

A. 음수일 - 문제 : 가속도가 0이 될 때?
 (a) $x = -4$ (b) $x = 0$ (c) $x = -A$ (d) $x = -A, 0, A$ (e) 이차방정식 X

B. 자동차가 1.25km/s라면 100m를 정지하는 시간은
 (a) 12.5s (b) 125s (c) 80s (d) 0.5s

1.25km/s \rightarrow $\frac{1.25 \times 10^3}{1000} = 1.25$ \rightarrow $\frac{100 - v_0 t}{1.25} = 0$ \rightarrow $\frac{100}{1.25} = 80s$

C. $x = -A$ 에서 마하 속도의 5%가 되어
 (a) 마하 속도의 5%가 증가
 (b) 마하 속도의 5%가 감소
 (c) 마하 속도의 5%가 변하지 않음

1.25km/s \rightarrow $\frac{1.25 \times 10^3}{1000} = 1.25$ \rightarrow $\frac{100 - v_0 t}{1.25} = 0$ \rightarrow $\frac{100}{1.25} = 80s$

2. $x = -A$ 에서 마하 속도의 5%가 되어
 (a) 마하 속도의 5%가 증가
 (b) 마하 속도의 5%가 감소
 (c) 마하 속도의 5%가 변하지 않음



팀명: 생화학은 별거다

학습과목: 생화학

학습장소: 면학과 예비창업 보육실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6월 1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4-02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면학관 예비창업보육실	The foundations of Biochemistry (1.1) cellular Foundation (1.2) Chemical Foundation (1.3) Physical Foundation
2019-04-28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면학관 예비창업보육실	Amino acid, Peptides and protein (3.1) amino acid (3.2)Peptides and protein (3.3)Working with proteins (3.4)Structure of protein
2019-05-14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면학관 예비창업보육실	The Tree-Dimensional structure of proteins (4.1) overview of protein structure (4.2) Protein secondary Structures (4.3) Protein Tertiary and Quaternary structure (4.4) Protein Denaturation and Folding
2019-05-21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면학관 예비창업보육실	Protein function (5.1) Reversible binding of a protein to a ligand: oxygen binding proteins
2019-06-04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면학관 예비창업보육실	Enzymes (6.1) physiological significance of enzymes (6.2) Origin of catalytic power of enzymes (6.3) chemical mechanisms of catalysis (6.4) Mechanisms of chymotrypsin and lysozyme (6.5) Description of enzyme kinetics and inhibition
2019-06-11	오후 5시 30분 ~ 8시 30분	면학관 예비창업보육실	Biological Membranes and Transport (11.1) The composition and Architecture of Membrane (11.2) Membrane Dynamics (11.3) Solute Transport across Membranes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윤지: 생화학을 처음 배우는데, 세포생물학과 달리 원서도 너무 어렵고, 생물 관련 기사를 화학적 단위로 바라보아야 해서 쉽게 와 닿지 않았다. 또한 1학년 때 제대로 복습해 놓지 않았던 게 큰 복병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튜터 분이 친절하게 내가 몰라서 질문하는 부분들도 설명해주셔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튜터 분이 이미 생화학을 다 배웠던 선배여서 생화학의 전체적인 흐름 및 작용 기작들을 큰 부분부터 흐름을 잡아주셔서 헛갈리지 않게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고 좋았다. 그리고 3학년 전공 때문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영상 자료부터 학습지까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다. 덕분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방향도 잡을 수 있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p> <p>박시원: 2학년이 되어 생화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렵게 다가왔고 양도 많아서 힘들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해주는 튜터 분이 있었기에 생화학이라는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심성한 교수님께서 효소 단원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생화학이란 과목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나름 재미있게 효소를 공부할 수 있어서 생화학에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려운 부분은 그냥 건너 띄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하고 유튜브 강의도 찾아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3학년 전공공부의 양도 정말 많지만 틈틈이 알려주시고 많은 자료를 챙겨주시려고 노력해주셨던 선배님께 감사드린다.</p>
-----------------------	--

팀명: 영합보

학습과목: 의약품 제조화학

학습장소: 과학관 102호

학습기간: 2019년 04월 25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4.25	17시 00분 ~ 19시 00 분	과학관 102호	Loratadine, Indomethacin 합성법
5.08	17시 00분 ~ 18시 00분	과학관 102호	항결핵균 약물의 합성법
5.24	15시 00분 ~ 18시 00분	과학관 102호	항바이러스제 약물의 합성법
5.31	15시 00분 ~ 16시 50분	과학관 105호	심장에 작용하는 약물의 합성법
6.07	15시 00분 ~ 16시 50분	과학관 105호	소화기관 작용 약물의 합성법
6.12	15시 00분 ~ 16시 50분	과학관 102호	갑상선 호르몬 조절 약물 및 비만 치료제 약물의 합성법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번 전공 스터디 활동은 튜터와 튜티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의약품 제조화학의 과목은 약물의 합성법을 알아야 하기에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학기에서 배운 유기화학적 메커니즘은 그 양이 매우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메커니즘 경로가 까다로워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힘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터디 활동이 아니었다면 메커니즘을 숙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원들과 함께 메커니즘에 관련해 퀴즈도 보고, 서로의 필기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이번 학기의 의약품제조화학을 끝마칠 수 있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조원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 튜터와 튜티의 짧은 소감을 끝으로 이번 학기 전공 튜터링 활동을 마무리하겠다.</p> <p>유영운: 의약품 제조화학 스터디의 튜터를 시작하면서 은근히 부담감이 있었다. '내가 합성학을 잘 하는 것도 아닌데 튜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다른 조원들이 힘이 되어준 덕분에 이번 스터디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이 조원들과 함께 다른 과목도 스터디 활동을 해 보고 싶다.</p> <p>이상민: 의약품제조화학은 부담감이 큰 과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학기 스터디 활동은 나에게 의약품 제조화학에 대해 자신감을 주었다. 조원들과 함께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니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번 원리를 파악하고 나니 이 과목이 쉽게 느껴졌다. 다음 학기에도 또 스터디 활동을 하고 싶다.</p> <p>이수정: 이번 학기의 전공 튜터링은 매우 유익했다. 의약품 제조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한 보람찬 활동이었다. 다음 학기에도 또 이 조원들과 함께 스터디 활동을 하고 싶다.</p> <p>김나현: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는 여러 반응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혼란스러웠는데 이번 스터디 활동을</p>
-----------------------	--

	<p>통해 어려운 반응들이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다음 학기에도 또 스터디 활동을 통해 학습법을 배우고 싶다.</p> <p>김상욱: 이번 스터디 활동을 통해 약물 합성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조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다음 학기 스터디 활동에서는 내가 튜터가 되어 조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p> <p>홍혜린: 이번 스터디 활동은 나에게 매우 보람찼다. 합성법에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목이었는데 조원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도 이 조원들과 함께 다른 스터디 활동들을 해 보고 싶다.</p>
<p>기타</p>	<p>이번 스터디 활동을 통해 조원들 모두 의약품 제조화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필기를 통합해 50쪽 가량의 필기본이 나왔다. 이 필기본을 후에 약사국시를 볼 때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스터디 활동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의약품 제조화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들에게도 물려줄 생각이다.</p>

팀명: 예비회계마스터

학습과목: 회계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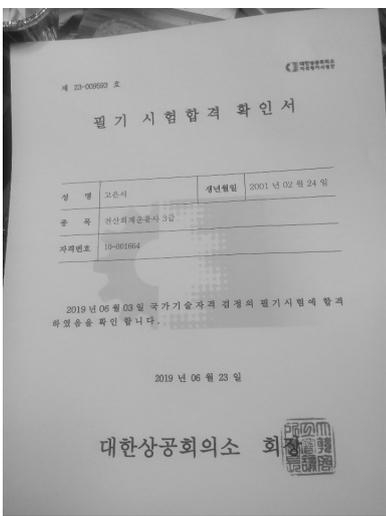
학습장소: 열린마루

학습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5월 28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4.02	12:00-3:00	열린마루	재무상태표 복습/ 더존 TV 1강
04.09	12:00-3:00	열린마루	손익계산서 복습/ 더존 TV 2,3강
04.16	12:00-3:00	열린마루	기출문제 프린트 풀이
04.23	12:00-3:00	열린마루	모의고사 3회분 풀이
05.07	12:00-3:00	열린마루	기말 시험 대비 기출문제 4회차 풀이
05.28	12:00-3:00	열린마루	전산회계운용사 자격증 시험 대비

활동 결과

소감 및 종합 의견	<p>짧다고도 볼 수 있는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6차례 활동을 하면서 회계에 무지했던 우리들이 점점 회계에 대해 알게 되어 무척이나 보람차고 부듯했다. 6번이라는 만남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정기적으로 만나 어렵고 까다로운 회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처음 목적했던 회계자격을 따기 위해 차근차근 공부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자격증인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시험을 모두 딸 수 있게 되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전공 튜터링 소모임 활동을 계속 진행해온 것이 자격증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서 무척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단 둘이서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도 또 다른 목표를 갖고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p>
기타	

팀명: 유기부서

학습과목: 유기화학1

학습장소: 잡카페

학습기간: 2019년 03월 27일 ~ 2019년 06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내용
3/27	6:20	잡카페	유기화학1,2강(원자구조,오비탈,화학구조,형식전하,공명,산과염기)
4/3	6:20	잡카페	작용기 유기화학의 알케인명명법
4/10	6:20	잡카페	유기화학4강지난3강의알케인에서더나아가싸이클로알케인의명명법과형태
5/15	6:20	잡카페	유기화학5강(거울상이성질체, 카이랄, 비카이랄, 메조화합물,...)
5/29	6:20	잡카페	유기화학7강(알켄, 알켄의명명, 시스트랜스,친전자성탄소양이온의구조와 안정성hammond가설)
6/12	6:20	잡카페	기말대비5 ~ 9강(유기화학질의응답시간.)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박홍준: 유기화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스터디를 통해 내용을 나누고 서로 의논 하다 보니 유기화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우리 스터디의 장점인 한 단원씩 맡은 부분을 나머지 스터디원에게 알려주는 스터디 방법을 통해 더욱이 집중도 있는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다음 학기에는 수업과 함께 진행하여 효과가 두 배가 되게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박용기: 한 학기동안의 스터디가 생각보다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많아 쉽지 않았다.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 만큼 이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터디원들이 빠지거나 늦는 일이 거의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스터디에 참여했고, 한 회 차 마다 매우 긴 시간을 공부하며 열심히 임했기에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p> <p>이인표: 제 인생에서 처음 있었던 첫 스터디! 처음 공부라는 것을 모여서 해보았고 서로 알려주고 논의 하는 방식이라 책임감 있게 공부도 해오고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스터디였다. 성적은 좋지 못하였지만 아마 혼자 했으면 더 안 좋아졌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유익한 그런 스터디였고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스터디 하고 싶다.</p> <p>지은서: 혼자 여자였기 때문에 스터디를 시작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다. 하지만 같이 스터디하는 동기와 선배들이 잘해주어서 공부에도 열심히 집중하고 또 친해지는 계기까지 되어서 너무 만족도 높은 스터디였다. 중간, 기말 성적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랐으며 도움이 너무 되었던 스터디였다. 다음에도 또 같이 스터디를 하고 싶다.</p>
기타	유기스터디를 마치며 저의 조원들 모두가 뜻 깊고 성적도 오른 유익한 스터디였습니다. 또 조원들과도 친해지고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팀명: 응급실

학습과목: 일반생물학

학습장소: 분임토의실 등

학습기간: 2019년 04월 04일 ~ 2019년 06월 09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4-4	5시-9시	미래관 분임토의실 504호	campbell biology 1단원
2019-4-7	3시-9시	미래관 분임토의실 504호	campbell biology 3단원
2019-4-11	7시-9시	미래관 4층	campbell biology 4단원
2019-5-27	7시-9시	면학관 2층 206A호	campbell biology 7단원
2019-6-2	3시-7시	미래관2층	campbell biology 8단원
2019-6-9	3시-7시	미래관4층	campbell biology 10단원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연제혁: 고등학교 시절부터 혼자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 스터디를 하면서 그 거부감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거나 사라지진 않았다.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나친 부분을 다시 짚을 수 있다는 점과 내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머릿속에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스터디만의 장점이 마음에 들었고 그로 인해 한 학기 스터디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권민지: 처음에는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게 걱정도 많이 되고 꾸준히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을 맞추어가며 일주일에 한 두 번 씩 만나서 스터디를 진행해나가면서 그런 걱정이 사라졌다. 혼자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을 설명을 듣고 같이 해결해나가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대학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p> <p>정연경: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는 물론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공부방향도 잡아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수업 중에 몰랐던 부분이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을 다시 짚으면서 공부의 효율성도 높였고,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p> <p>하경수: 처음에 전공 멘토링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맞추어 가며 잘 해 나갈 수 있을 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터디를 하다 보니 정말 배우는 점도 많고 공부실력도 어느 정도 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 앞으로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p> <p>조서현: 단순히 학습적인 차원에서의 이점도 있었지만, 처음 전공 멘토링 스터디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스터디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가며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을 배려해주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이점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할</p>
-----------------------	---

때, 그리고 해결이 되었을 때가 스터디를 하며 가장 뿌듯했던 일이었다.

김주환: 혼자 공부를 하는 것 보다 친구들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픈 마음에 이 기간 동안 생물과 화학을 그 누구보다 많이 공부를 한 거 같다. 이로 인해 나는 물론 친구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기뻐다. 내가 공부하는 방식과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이를 주입하는 방식이 모두 가지각색이어서 이 기간 동안 좋은 교수법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 이와 같은 경험이 나중에 교수가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친구들과 많은 공부를 해 나가고 싶다.



기타



팀명: 차취대

학습과목: 세포생물학 1

학습장소: 예비창업자보육센터, 차과이어 동아리방

학습기간: 2019년 06월 04일 ~ 2019년 06월1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6월 4일	14:00 ~ 16:00	면학관 예비창업자보육센터	생명의 조건과 enzyme을 구성하는 component와 기능
6월 5일	14:00 ~ 16:00	면학관 예비창업자보육센터	효소의 촉매작용과 활성화 에너지와 energy barrier
6월 10일	16:30 ~ 18:00	면학관 예비창업자보육센터	효소의 active site와 ES, EP로의 전환
6월 12일	16:00 ~ 18:00	차과이어 동아리방	핵막과 세포질간의 수송, lamina
6월 13일	16:00 ~ 18:30	차과이어 동아리방	importin, exportin의 기작과 관련 요소
6월 14일	9:00 ~ 11:00	차과이어 동아리방	Rough ER을 통한 단백질 수송 과정

활동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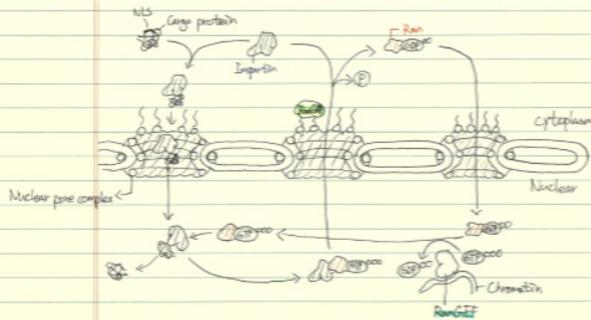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처음에는 어떻게 튜터링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진행해야 튜티가 잘 이해할지, 어떻게 튜터링을 하면 효과적인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을 하다가 튜티가 2명이기 때문에 1:1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봐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토론 형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튜티 위주의 튜터링이 아닌 튜티 위주의 수업이 될 수 있고 튜티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p> <p>세포생물학이 1학년때 배웠던 일반화학의 지식과 일반 생물학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새롭게 접하는 terminology나 pathway등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세포생물학 수업 같은 경우 교수님이 PPT파일을 주지 않고 수업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였는데 튜티들이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해한 부분과 수업 내용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등등 체크하면서 공부하여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p> <p>어떻게 하면 2학년 전공과목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는지, 세포생물학 이외에 다른 전공 공부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등 다른 전공, 2학년 공부 방법 등 다양한 얘기를 서로서로 나누며 공부뿐만 아니라 공부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조언을 들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p> <p>그리고 튜터링이 끝나고 튜티가 노트정리를 따로 하여 복습까지 최대한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p>
--------------------------	---

Chapter 9

- nucleus
 - 유전정보 저장 & 세포 regulation
 - transcription 인접 (mRNA 계통) ↔ translation은 cytoplasm에서 인접
 - nuclear envelope (핵막) - 인지질 이중층 + 막 단백질
 - o lamina + nuclear pore complexes
 - 외막 (소포체 연결, 리보솜 붙어있음)과 내막 (lamina와 결합하는 등) 단백질로 구성
- Nuclear lamina
 - 핵 구조를 지지하는 fibrous (섬유질) 구조물
 - fibrous protein인 lamin과 여러 단백질로 구성
 - lamin - 중간섬유 단백질의 일종
 - lamin dimer (이량체)가 여러 단백질과 연결 → lamina
 - 핵 내막의 emerin, LBR, SUN 등의 단백질에 연결 → chromatin 과 연결
 - 특정 chromatin이 특정 위치에 있도록 상호작용
 - * lamina의 구조가 바뀌면 전사 과정에 문제 발생 → 질병
- The nuclear pore complex
 - 막 구조물, 이온, 단백질, RNA 같은 생체 분자가 핵과 cytoplasm을 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같은 핵막보다는 막 통로)
 - passive diffusion - 작은 분자
 - selective transport - 큰 분자 (대부분의 단백질, RNA)
 - ↳ 특정 신호 사용 (NLS) → 2가지 mechanism
- selective transport
 - Nuclear transport receptor (핵 운송수용체)
 - Nuclear localization signal (핵 위치 신호, NLS)
 - basic amino acid
 - bipartite - 2개 이상의 NLS
 - * nuclear transport receptor가 NLS를 인식

기타

- Importin
 - NLS를 인식하는 receptor (Cytoplasm → Nucleus)
 - Ran 이라는 단백질로 조절
 - ↳ GTP의 결합과 가수분해로 조절 (GTP-binding protein)



- Importin이 NLS (Cargo protein)를 인식
 - Nuclear pore complex를 통해 핵 안으로 이동
 - Ran-GTP가 Importin에 결합 → Importin의 입체구조를 변화시켜 Cargo protein을 방출
 - Importin-Ran-GTP 복합체가 핵으로 나가면 RanGAP에 의해 가수분해
 - Importin과 Ran-GDP로 분리
 - RanGDP가 수화함에 의해 방출
 - Chromatin에 붙어있는 RanGAP이 의해 RanGDP를 RanGTP로 바꾸고
 - 방출된 RanGDP는 Importin에 결합
- * RanGAP이 핵 안으로 들어오면?
RanGAP가 핵 안으로 들어오면?
- * NLS에 Mutagen이 생기면?



리딩리더스

팀명: 로고스 (우수)



팀원: 김예린, 김소림, 박하늘, 방현지, 성진
도서 명: 28, 바람이 분다 가라, 제 10회 젊은 작가상 수상집
활동장소: 강의실
활동기간: 2019년 04월 15일 ~ 2019년 06월 13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05.23.	16:00-16:30	강의실	소설 '28'을 읽고, 작가 '정유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토론.
2019.05.30.	16:00-16:30	강의실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를 읽고 작가 '한강'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토론.
2019.06.13.	12:30-13:30, 15:30-16:00	강의실	소설 '제 10회 젊은 작가상 수상집'을 읽고 '젊은 작가'와 그들의 '이야기와 의미'에 대해 토론.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리딩리더스 팀 '로고스'의 구성원들은, 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넘치나 '입시' 준비로 인해 독서를 하지 못했던 신입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책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었고, '입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정말 책을 읽어보려 했다. 그러다 '리딩리더스'라는 소모임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함께 신청했으며 모두의 취향을 고려하여, 우리의 도서 선정 주제는 '젊은 작가'가 되었다. 그렇게 정해진 작가는 유명 작가 '정유정'과 '한강'이었으며, 우리는 그들을 통해 젊은 작가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p> <p>구성원 모두 책은 여유롭게, 전부 읽고 완전히 이해한 후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모두 책을 읽는 속도가 달랐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모임 시간이 미뤄졌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요일을 정하기로 했고, 모두의 시간이 여유로운 목요일 오후에 토론을 진행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게 요일을 정함으로써, 그 시간에 맞춰 제 생각을 정리하며 토론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활동을 통한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었기에, 첫 활동 이후로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p> <p>우리가 선정한 도서들의 특징은 기존 일반화된 사실을 다르게 보는 '젊은 작가'들이 쓴 글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상 책에서 새로운 사실을 얻기는 힘들었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일반적인 것 외의 것을 탐구해내기를 위해, '젊은 작가'라는 주제로 도서를 선정했지만, 구성원들 모두가 작가의 단면적인 의도에 동의하여, 그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토론 주제를 이끌어내고, 그에 대해 토론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작가 한강의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 모두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야.'라는 주인공의 대사를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뽑은 것에서, 구성원 전부 완전히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일반 소설책이면서, 유명 작가의 유명작품들을 위주로 선정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위 책을 읽고 남긴 평가들을 익히 알고 있기에, 그런 점들이 우리의 토론에 한계를 갖게 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 첫 번째인, '다시 독서 시작하기', 리딩리더스 모임을 통한 3권의 책 읽기는 성공적이었고, 유명작을 읽어보고 유명 작가와 그가 글에서 강조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독서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한 활동이었기에, 이후에 또 리딩리더스 소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책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겠다고 느꼈다.</p>
-------------------	--

기타

일단, 이런 문화적 활동들을 학교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신입생이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또 학교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해당 활동을 통해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느꼈다. 독서에 대한 학습 지원은 물론, 학교생활의 만족 또한 얻어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이었다. 하지만, 리더리더스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 필요도서의 수를 충족하기에는 학교에 배치되어있는 도서의 수가 부족해, 도서를 구하고 읽는 과정에서 꽤 커다란 노력과 시간을 써야 했다는 점이 해당 모임의 한계이자, 아쉬운 점인 것 같다. 그래도 구성원 모두가 친구들과 하나의 추억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리더리더스' 활동이었다.

팀명: 찰떡 (우수)



팀원: 강다린, 박혜원
도서 명: 자존감 수업, 오늘은 이만 좀 쉬게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활동장소: 카페엔젤, 토프레스
활동기간: 2019년 04월 17일 ~ 2019년 06월 12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4. 17	12:00 ~ 2:00	토프레스	첫 공식모임 및 제 1차 독서선정 (자존감 수업)
05. 22	11:30 ~ 1:00	카페 엔젤	두 번째 모임 및 제 2차 독서선정 (오늘은 이만 좀 쉬게요)
06. 12	12:00 ~ 1:00	카페 엔젤	세 번째 모임 및 제 3차 독서선정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우리는 리딩 리더스를 통해 바쁜 대학생활에서 독서를 할 시간적 여유를 찾고, 찰떡 케미로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잡고 싶었다.

독서를 선정 할 때 주제를 먼저 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았다. 매번 다른 주제와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주제는 '자존감'으로 정하였다. 자존감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 중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선정하여 읽었다. 두 번째 주제는 '나에게 주는 위로'로 '오늘은 이만 좀 쉬게요'라는 에세이를 선택하였다. 마지막 주제는 '사람간의 관계와 유대감'으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선정하여 읽었다.

독서 후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책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읽고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한다. 독서 토론은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토론 후 독후감을 작성하였다. 독서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책의 제목만 생각나고 내용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책을 읽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져간다는 사실은 허무하기만 하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독후감이라고 생각된다. 독후감을 통해 정리하면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글로 쓰는 과정을 통해 남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표현력도 생겨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리딩 리더스 모임은 학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토론과 독후감을 통해 책을 이해하는 정도와 사고의 깊이가 달라졌고 함께 성장 할 수 있었다.

기타



팀명: 수소

팀원: 권수민, 이소리

도서 명: 합리적의심, 일단 오늘 한 줄 써봅시다.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작은 책

활동장소: 강의실 등

활동기간: 2019년 03월 25일 ~ 2019년 06월 21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 03. 25 ~ 2019. 06. 11	개별 시간	개별 장소	팀원 각자가 모임하기 전에 책 3권을 모두 읽고 독후감까지 써오기로 하며, 3차례에 걸친 모임에서 진행할 토론 주제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까지 정리해보았다.
2019. 06. 12	05시 00분 ~ 08시 30분	설빙 포천송우점	책의 장르 자체가 법정물인 만큼 책 속의 판결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019. 06. 13	02시 30분 ~ 04시 20분	강의실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골랐기에 독서를 하는 동안 앞으로의 글쓰기 계획을 같이 세우는 활동을 하였다.
2019. 06. 20	02시 30분 ~ 04시 20분	강의실	주제가 자기계발 중에서도 습관이라는 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여름 방학 스케줄을 함께 짜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사실 처음에 리더리더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팀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그런 혼란스러웠던 과거의 우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왕 시작하게 된 것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가 생겼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스스로 선택한 학교 활동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모임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책을 읽기로 한다는 것은 혼자하기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친한 친구와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앞에서는 이끌어주며 뒤에서는 받쳐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 팀은 그것을 느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처음이 어려웠을 뿐 하다 보니 언젠가는 도착 지점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다.</p>
-----------------------	--

팀명: 식사

팀원: 고정연, 여인봉, 진수연, 최윤주

도서 명: 골목의 전쟁, 내 속엔 미생물이 너무도 많아, 생명의 위대한 비밀

활동장소: 미래관

활동기간: 2019년 05월 09일 ~ 2019년 06월 13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05.09	10:45-11:25	미래관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상권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함.
06.13	10:50-11:20	미래관	'내 속엔 미생물이 너무도 많아' 라는 책을 읽은 뒤, 각자 항생제와 장내 미생물을 조사하여 각자의 의견을 발표
06.13	11:25-13:15	미래관	'생명의 위대한 비밀' 이라는 책을 읽고 생물학의 역사와 노벨생리의학상에 대한 주제들, 유전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 4학년의 시각으로 토의함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고정연: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잘 읽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동기를 통해 독서 모임을 접해 신청하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미루기만 하던 전공 관련 서적을 읽게 되었고, 이 외에도 경제, 미생물 등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책에 대해 조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고 그때는 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싶다.</p> <p>최윤주: 이번 연도에는 책을 많이 읽어보자는 다짐으로 시작한 친구들과의 독서 모임은 재미있었다. 혼자였다면 시도하지 못할 종류의 책도 읽어보았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도 읽게 되었다.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을 주제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혼자 읽었다면 나만의 생각에 갇혔을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책뿐만 아니라 친구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종종 책을 주제로 지인들과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독서 모임이 아니었다면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p> <p>여인봉: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많지는 않았다. 어려서 도서관을 하나 정해두고 지속해서 방문하는 활동을 다시금 소모임을 통해 독서 활동을 하니 옛날 생각이 나고 좋았다. 혼자서 생각했던 부분 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계기가 되어서 뜻 깊은 활동이었다.</p> <p>진수연: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늘 해오던 생각과는 다른 분야의 생각을 해서 좋았다.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책을 잘 안 읽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책을 읽게 되어 좋은 활동이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어서 좀 더 공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은 끝났지만 넓은 이해를 위해 과학 외적인 분야의 책들을 읽고 지식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했다.</p>
기타	<p>4명의 학생이 포천에 모두 모이는 날은 시간표상 목요일이었는데, 정말 힘들게 서로 만나고는 했었다. 시간 맞추기 정말 어려웠다.</p>

팀명: 아고라

팀원: 권하윤, 김도희, 박소을, 선인혜, 안현지, 유은하, 이도현

도서 명: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 아몬드, 답스

활동장소: 미래관 등

활동기간: 2019년 04월 11일 ~ 2019년 06월 04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4/11	1:30 ~ 4:00	미래관411호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 그릇〉을 읽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활동지를 작성함. 그리고 그것을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자신만의 말하기 공식(말버릇), 타인의 언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등을 이야기함. 이를 통해 개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것이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됨. 자신의 말버릇 속에 드러나는 삶을 되새겨 보고 서로의 평소 모습과, 입장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5/28	5:30 ~ 7:25	해솔 마당	읽으면서 더 몰입하게 되었던 도서인 〈아몬드〉를 읽고,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상상해보며 주인공의 마음에 입각하여 만일 자신이라면 어떤 점에서 가장 힘들었을 지 함께 이야기를 나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그림을 조원들과 공유하며 이야기 및 공감활동을 진행함. 이 활동을 통해 나의 아픈 기억을 그림과 말로써 표출하고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줄 알게됨.
5/31	1:30 ~ 3:25	행복 도서관 열린 마루	읽은 뒤 많은 생각과 여운을 주었던 소설 〈답스〉를 읽고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아온 교육과 그 과정에서 느낀 부모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활동지를 작성하고 이야기를 나눔. 활동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떠올려 볼 수 있었고 그러면서 교육이 우리 삶에 있어 얼마나 큰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는 지 깨닫게 됨. 마지막으로 소설 속 액슬린 박사의 치료 태도를 보며 미래에 미술치료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꼭 갖춰야 할 태도인 공감, 믿음, 관심 그리고 기다림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마음에 익히게 됨.
6/4	5:30 ~ 7:20	행복 도서관 열린 마루	어렵지 않게 색채와 색채 심리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색채심리학〉을 읽고 여덟 가지 색이 담겨 있는 도형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장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색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신적,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음. 또한 색채 심리 검사 CRR검사를 함께 진행하며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본질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알 수 있었음. 활동을 통해 색의 속성과 시각 및 감정 효과, 색채 상징 그리고 색채 치료의 개념 및 효과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색을 통한 자기 분석, 성찰 및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리딩 리더스 활동을 마치고 난 뒤 가장 좋았던 점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점은 '깊은 나눔'이다. 아마 '깊나'라는 것이 그동안 아고라의 모든 활동을 한 마디로 정리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말 그릇', '아몬드', '딤스', '색채 심리학' 총 네 권의 도서를 읽고 활동을 진행하며 평소 보여 졌던 자신의 모습부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깊은 상처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했고, 또 진심을 담아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며 위로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더 나은,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 고민 하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더 탄탄하고 빛나는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 꿀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책을 읽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루하고 재미없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건강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p>
<p>기타</p>	

팀명: 인간문화재

팀원: 박준석, 조영준, 황지연

도서 명: 관계의 물리학, 현문,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활동장소: 과학관 102호

활동기간: 2019년 03월 21일 ~ 2019년 06월 21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5월 15일	12시 ~ 13시 30분	과학관 102호	「관계의 물리학」을 읽은 후 본 권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느낀 점을 공유하였다. 또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나 생각을 나누어보았다.
5월 31일	12시 ~ 13시 30분	과학관 102호	「현문」을 읽고 본권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느낀 점과 생각을 공유하였다.
6월 7일	12시 ~ 13시 30분	과학관 102호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을 읽고 본권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각자의 느낀 점과 생각을 공유하였다.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책은 시간이 있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것.”이라는 말과 을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차 의과학대학교에 편입을 하고나서 적은 분량이라도 책을 꾸준히 읽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조원들과 함께 조금씩 이룰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찼다. 세 번에 걸친 활동 중 가장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은 「현문」을 읽고 토의하던 활동이었다. 현문은 줄거리 위주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원들 마다 줄거리에 관한 생각과 느낀 점이 달라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알찼다. 또한 이 옛 시대에 기록된 이 글들을 현대의 시점에서 재해석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독서 토론을 준비하면서 책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팀원들과 편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이로써 인간문화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문학을 탐방하고 인간과 문화를 재해석’하는 목표를 잘 실천한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책을 나누면 세 배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책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할 것이다. 인간 문화재 팀 파이팅!!!</p>
-------------------	--

팀명: 책꽃이

팀원: 박수린, 임가연

도서 명: 언어의 품격, 말센스, 나는 세종이다,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

활동장소: 과학관 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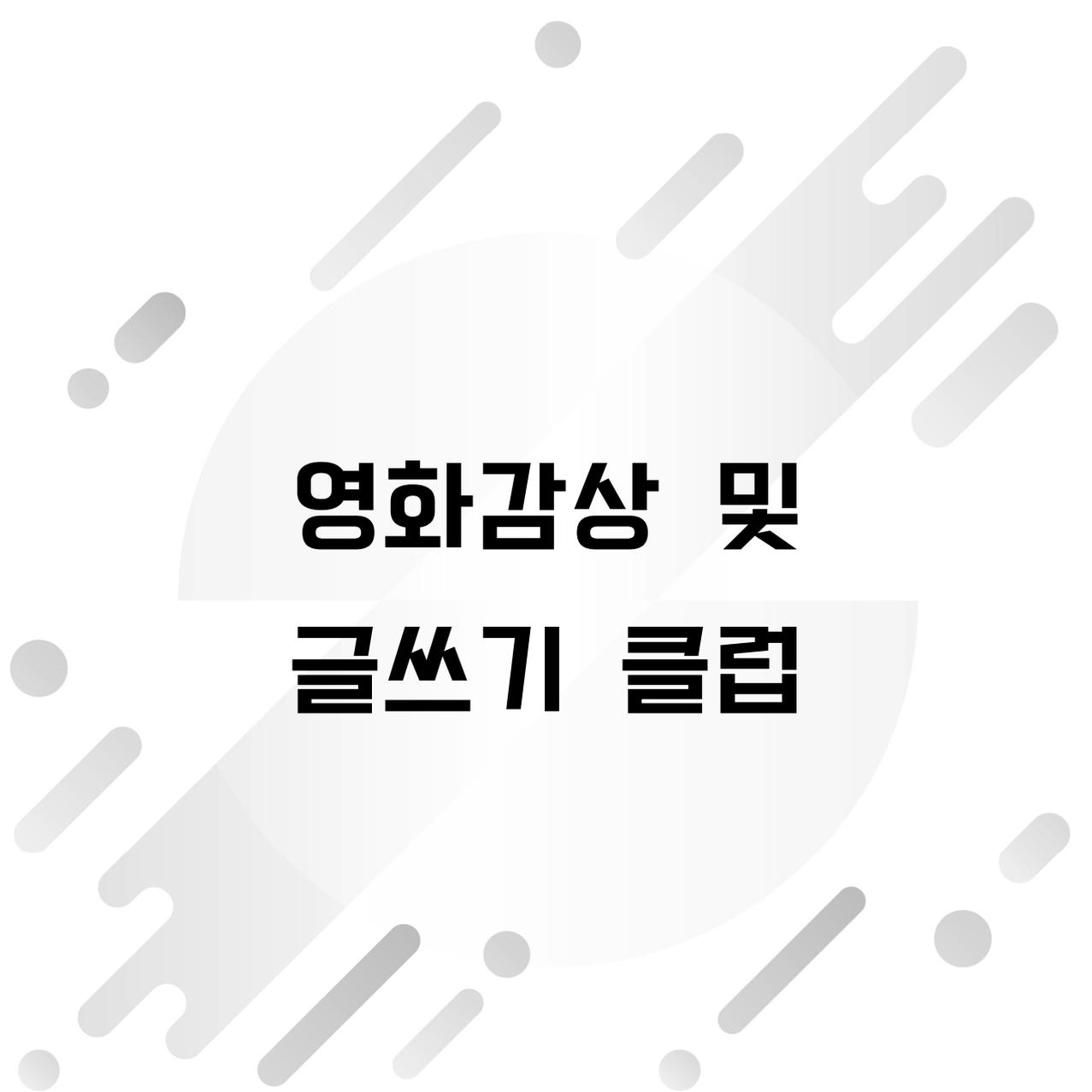
활동기간: 2019년 04월 01일 ~ 2019년 05월 23일

상세일지: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4/4	15:00-18:00	과학관 103호	'언어의 품격'을 같이 읽었다.
5/9	15:00-18:00	과학관 103호	각자 선택한 '나는 세종이다'와 '말센스'를 읽었다.
5/23	15:00-18:00	과학관 103호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를 같이 시간간격을 두고 읽었다.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도서를 선택할 때 어떤 책을 골라볼까 찾아보면서 나름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이 리딩스터디의 묘미이다. 그리고 각자가 고른 책은 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잠시 읽어볼 수 있어서 흥미를 돋운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했었다.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 학기는 모두에게 굉장히 버거운 한 학기가 되었다. 그래서 원래의 목표였던 책을 통한 여유를 가지고자 했던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리딩리더스를 통해서 꾸준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또 의식적으로 핸드폰 할 시간에 책을 읽었더니 뭔가 쓸데없이 시간낭비 안하고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진짜 리딩리더스 덕분에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다음 학기에도 꼭 이어서 하고 싶다. 습관을 들이는 데 3개월 까는 데는 3일이라고 이제 막 형성된 독서 습관을 방학에도 그리고 2학기에도 이어서 습관을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 이라면 도서를 마음이 급급한 채로 읽어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선 안 되었는데 이번 에도 3차 시험도 있고 중간/기말이 있다 보니 좀 미리 빨리 읽어놓으려고 서둘렀던 게 있었던 것 같다. 다음 학기에 다시 이 리딩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간 계획표를 효율적으로 짜서 충분히 정독하고 알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p>
기타	<p>다른 팀에서는 책 선정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우리 책꽃이팀은 색다로움을 주고자 시집인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를 선택하게 되었다. 소설은 이야기의 흐름을 읽고 상상하면서 읽어가지만 이 시집은 하나하나의 시가 수록이 되어서 작가가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의미들을 해석해가는 재미와 숨겨놓은 뜻을 찾아가는 것으로 조금은 힘든 일상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가지게 해주었다.</p>



영화감상 및

글쓰기 클럽

팀원: 강범석, 장수희 (우수)

시청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알라딘, 기생충

활동기간: 2019년 05월 01일 ~ 2019년 06월 20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05.01	18시00분 ~ 21시 40분	양주 메가박스	영화 감상 및 영화 감상평 공유: 영화 감상으로 인해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영화에 대한 토론과 소통을 함으로써 공감능력과 문화적 소통 능력 향상.
2019.05.27	17시50분 ~ 20시 00분	진접 롯데시네마	영화 감상 및 영화 감상평 공유: 디즈니 영화 '알라딘'을 통해 지친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동심과 순수함으로 마음을 치유·위로 받음. 일상 속 쉽게 잊을 수 있는 권선징악, 과유불급 등의 교훈을 영화를 통해 상기시킴.
2019.06.05	18시15분 ~ 20시 50분	진접 롯데시네마	영화 감상 및 영화 감상평 공유: 빈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부자가 될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를 느낌. 강자가 약자를 낚새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평가 할 수 있는 사회의 모습에서 씁쓸함, 암울함을 느낌.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장수희: 평소에 영화를 감상할 때에는, 좋아하거나 흥미 있는 장르로 영화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학습법 소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좀 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감상하려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사회의 내면을 비판하고 하나의 장면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영화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기생충'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리고 도전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기대감과 설렘 없이 시작한 영화는, 막이 내린 후에도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없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봉준호' 감독의 타 작품들 혹은 새로운 장르의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영화감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것이다. 활동을 통해 또 다른 변화점이 있다면, 독서 감상문과 서평등을 기록한 적은 있지만 영화 감상문 작성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영화도 책처럼,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분명히 있으며 영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과 언어갈 점이 많음을 깨달았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영화 내용을 상기시키고 장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생각의 깊이와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었다.</p> <p>학습법 소모임 활동을 통해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자기계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p> <p>강범석: 이 활동을 통해 느끼는 바가 많다. 영화를 보고 난 뒤의 행동과 생각이 활동을 하기 전과 후로 확실히 달라졌다. 지금까지 영화를 볼 때에는 단순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영화 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영화에 대해 잊어버리곤 했었다.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영화를 본 후에 영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상문과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과 장면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려 영화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영화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본 영화보다 활동 후 보았던 영화 세편이 내 자신에게 뜻 깊은 영화로 남게 되었다.</p> <p>영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안목이 넓어져 평소에 몰랐던 영화의 내면을 보게 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소에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하며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p>
------------------------------	---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게끔 해주는 것 같아 뜻 깊었다.
그러므로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에게 소모임 활동을 추천해주고 싶다. 평소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 영화를 좀 더 넓게 보고 싶은 친구들, 영화를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모두 권유하고 싶다. 영화를 볼 때마다 정해진 지원금도 나와 부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도 할 수 있다.

팀원: 김초은, 이수현, 조소영 (우수)
시청영화: 벼랑위의 포뇨, 극한 직업, 나의 소녀시대
활동기간: 2019년 05월 21일 ~ 2019년 06월 06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5.21	12시 20분 ~ 13시 30분	차의과학대학교 도서관	영화 '벼랑위의 포뇨' 감상 및 소감 나누기
2019.5.28	17시 ~ 19시	이수현 학우의 집	영화 '극한 직업' 감상 및 소감 나누기
2019.6.6	18시 ~ 21시 30분	이수현 학우의 집	영화 '나의 소녀시대' 감상 및 소감 나누기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김초은: 우연한 기회로 영글클럽을 알게 되어 동기들과 신청하게 되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다들 학교 생활에 바빠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영글클럽을 통해 서로 시간을 맞춰가며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를 선정하면서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었고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화를 집중하여 보고 난 후 서로의 감상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놓친 장면이나 내가 몰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인공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감독의 생각, 연출 의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공유하면서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화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들을 덧붙여 가면서 이야기 하면서 동기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동기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장점으로 변화되기도 하였다. 극장에서는 조용히 영화를 감상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중간 장면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극장이 아닌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영화를 보면서 어느 장면에서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문화생활 하기에는 많이 버거웠는데 영글클럽에 신청을 하면서 의무감이 생겨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문화생활을 하였고 문화생활이 우리에게 동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p> <p>조소영: 이번 영글클럽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동기들과 함께 학교생활이 바빠서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적었는데 영글클럽을 통해 시간을 맞춰가면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이 영화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한층 더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아서 좋다. 또한 원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보니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더라도 혼자 보고나면 영화 소감이나 느낀 점을 나눌 수가 없는데 이번 활동은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서 영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영화를 보고 좋았던 점을 나누고 별로였던 부분을 말하면서 영화에 대한 감상평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또한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문화생활을 하며 나누는 시간을 통해 교양 수준이 한 층 더 올라간 것 같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p> <p>이수현: 대학생활을 하면서 취미생활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바쁜 일정으로 갖지 못하였는데, 영글 클럽을 하면서 학교생활 속 소소한 취미를 갖게 된 것 같아 유익하였다. 영글 클럽 모임 시간이 기다려졌고 일상생활 속 원동력이 되는 시간이었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를 보는 것은 영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감독이 영화를</p>
-----------------------	---

만들 때의 의미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시간 내면서까지 하지 않는데 해보니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 동기들 간 친목도 더해진 듯하여 뜻 깊었다. 평소 듣는 수업이 달라서 만날 기회도, 대화를 나눌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영글 클럽을 통해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일상생활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로맨스 영화를 즐겨보지 않던 내가 어느새 동기들과 과거를 회상하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애니메이션과 친하지 않은 내가 동기들과 영화를 본 후 영화에 빠져 따로 더 찾아보기도 하고, 더하여 영화관을 가기도 하고, 스스로 많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여 학교생활에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

종합의견: 영글클럽을 통해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바쁜 학교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제공해주는 활동이었다. 또한,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감독의 의도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영화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영화와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글클럽을 하면서 동기들 모두 만족하였으며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영글클럽 1회차 ‘벼랑위의 포뇨’



기타

활동사진





영글클럽 2회차 '극한 직업'



활동사진



영글클럽 3회차 '나의 소녀시대'



활동사진



팀원: 김민정, 도현주, 장미나

시청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주라기공원, 가타카

활동기간: 2019년 03월 18일 ~ 2019년 06월 17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03.31.	19:00 ~ 21:00	자택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 각자 자택에서 관람 후 영화 토론 진행
2019.06.11.	18:00 ~ 19:30	기숙사 휴게실	영화 <주라기 공원> 같이 관람 후 영화 토론 진행
2019.06.16	18:00 ~ 19:40	자택	영화 <가타카> 관람 후 영화 토론 진행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한 학기동안 영글클럽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 다음 영글클럽을 하게 될 학우들에게 '영화 토론'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영화를 같이 관람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짧게라도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신의 느낀 점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 팀은 과학 관련 영화를 선정하면서 평소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번 영글클럽 활동을 통해 과학(SF)영화를 자주 접하면서 팀원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혼자였으면 도전하기 힘든 영화도 팀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평소에 보지 않던 장르 영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같이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p>
------------------------------	--

<p>기타</p>	 
------------------	---

팀원: 김예린, 김수진, 박하늘

시청영화: 신과 함께, 기생충, 걸캅스

활동기간: 2019년 05월 28일 ~ 2019년 06월 18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9.05.28.	9:00-10:00 11:30-13:30 15:00-15:30	차의과학대학교 강의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을 보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관 변화'에 집중해 토론함.
19.05.30.	17:00-21:00	양주 메가박스	영화 '기생충'을 보고 '감독의 의도나 목적파악'에 집중해 토론함.
19.6.16-18.	14:30-15:00	양주 메가박스	영화 '걸캅스'를 보고 '현 사회의 범죄 사건'에 대해 토론함.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영화관에서 영화를 자주 보던 셋은, 부담되는 영화 티켓값도 있었지만, 영화의 의미를 단순히 혼자 본 영화에서 토론을 통해 함께 무언가를 느낀 영화로 바꿔보기 위해 소모임을 신청했다. 그렇게 우리는 의미를 느낄 영화를 찾게 되었고, 그 선택한 영화가 과거 개봉작인 '신과 함께 - 죄와 벌' 그리고 현 개봉작 '걸캅스', '기생충'이었다.</p> <p>우리 소모임은 이렇게 진행됐다. 영화를 보고 바로 저녁을 먹으며 토론하기도 했지만, 보통 주말에 모여 영화를 보고, 각자 시간을 가진 후에 학교에서 스스로 정리한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는 영화를 더 찾아보게 되었고, 영화에 대한 의문점이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토론 과정에서 나누며, 함께 영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영화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그렇게 세 영화의 사건 '사후세계, 가난 그리고 범죄 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등 우리의 일상과 연관이 지어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내, 영화에 우리만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p> <p>처음 영글 클럽 소모임을 신청할 때만 해도, 영글 클럽을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영화 티켓 값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활동을 해보고 나니,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해볼 수 있었던 영화의 해석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고, 걸캅스나 기생충처럼 현실을 비판하는 소재를 다룬 영화를 통해 타인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과 삶을 더 자극적이고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영화 '기생충'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제작 의도, 목적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장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영화 평점이 달라졌던 것이 인상 깊었다. 같은 작품을 보고 같은 해석을 나누더라도, 감독과 관객의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개념에 따라서 두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영글 클럽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게 되었다.</p> <p>또한, 학기 중에 영화감상이나 문화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영글 클럽 소모임 활동이라는 명목 덕분에 신작 개봉작들도 챙겨볼 수 있었고, 친구들과 친목도 도모하며, 영화의 온전한 이해도 도울 수 있었던 고마운 영글 클럽 활동이었다.</p>
기타	<p>우리는 주로 영화감상 후 토론 과정을 학교에서 진행했는데, 그래서 구성원 외의 영화를 본 다른 동기들과도 토론을 함께 했다. 그랬기 때문에 영화감상에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영화감상은 단순 영화를 볼 때뿐만이 아니라 영화감상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그 영화를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자신에게 정립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각자의 다른 이야기로, 다수와 토론을 하며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 구성원대로, 아니면 더 추가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 그렇기에 다음에도 영글 클럽 소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을 모아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p>

팀원: 김은진, 강석원, 김선우

시청영화: 인사이드 아웃, 너의 이름은, 기생충

활동기간: 2019년 05월 18일 ~ 2019년 05월 30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 04. 17	17:00 ~ 20:00	선우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함께 모여서 본 후 각자 줄거리와 자신이 느낀 점,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바라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느낀 점 또한 팀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개인이 영화의 주연들 입장이 되어서 영화에 나오는 위급한 상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나누게 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9. 05. 18	14:00 ~ 18:00	은진이네	은진이네에서 다 함께 모여서 '너의 이름은.' 을 감상했습니다. 감상 하고 나서 같이 저녁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나누었습니다.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다 같이 모여 자신들의 베스트 영화들을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 팀원이 왜 이 영화를 선택했을까?' 생각 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글 클럽을 통해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더욱 친분을 쌓게 되고 내가 몰랐던 명작을 보게 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p>
<p>기타</p>	

팀원: 박민하, 박현정, 조민하

시청영화: 극한 직업, 어벤져스: 엔드게임, 완벽한 타인

활동기간: 2019년 04월 10일 ~ 2019년 06월 10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3/28	17:00 ~ 21:00	메가박스 강동	학교에서 모여 메가박스 강동으로 가서 영화 극한직업을 봄.
5/9	19:00 ~ 23:00	코엑스 메가박스	학교에서 모여 코엑스 메가박스로 가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봄.
6/8	14:00 ~ 17:30	종로 할리스커피	주말에 종로 할리스커피에 모여 노트북에 영화 완벽한 타인을 다운 받아 다과와 함께 시간을 즐김.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동기 현정이의 권유 없었으면 학습지원센터 내에서 하는 영글클럽 소모임을 알고 있었으나 참여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같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칫하면 그냥 시간 때우고 노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영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학습법 소모임을 알면서도 참여하기 싫었던 이유는 여러 문서를 제출해야하고 같이 할 친구들도 딱히 없었고 굳이 권유하고 싶지 않았고 단지 돈을 준다는 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 크다. 돈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3학년 초반에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기분이 부뚝하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알려 권유하고 싶다.</p>
기타	<p>지원비가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정해진 지원비 내에서 활동하다보니 즐기기도 돈 걱정을 먼저해 만날 때마다 살짝 돈 이야기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지원받는 돈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이러한 걱정이 좀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p>

팀원: 배민제, 이권희, 이예지, 최성웅

시청영화: 마스, 어바웃타임, 완벽한 타인, 뷰티인사이드

활동기간: 2019년 04월 10일 ~ 2019년 06월 14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4.10	17:00 ~ 20:00	현암기념관 미디어존	현암기념관 미디어존에 모여 영화 '마스'를 감상한 후, 열린 마루로 자리를 옮겨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20	17:00 ~ 20:00	현암기념관 미디어존	현암기념관 미디어존에 모여 영화 '어바웃타임'을 감상한 후, 열린 마루로 자리를 옮겨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27	17:00 ~ 20:00	현암기념관 미디어존	현암기념관 미디어존에 모여 영화 '완벽한 타인'을 감상한 후, 열린 마루로 자리를 옮겨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14	17:00 ~ 20:00	현암기념관 미디어존	현암기념관 미디어존에 모여 영화 '뷰티인사이드'를 감상한 후, 열린 마루로 자리를 옮겨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번 학기 총 4회의 영어 클럽 활동을 하였습니다. 평소 학업적인 부담 때문에 다들 영화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로 내어 보러 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여 편하게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이를 잘 활용하여 영어클럽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가 주는 여러 감동이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남들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견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편입한 만큼, 혼자 영화를 보고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 사교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기타	<p>이번 학기 영어 클럽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습니다.</p>

팀원: 손령애, 김유정, 김송현

시청영화: 생일, 기생충, 라이프 오브 파이

활동기간: 2019년 04월 30일 ~ 2019년 06월 9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19.04.30	16:50 ~ 19:00	의정부 CGV	영화 '생일' 감상 후 도쿄스테이크에서 저녁을 먹으며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공유함
19.06.06	13:00 ~ 16:00	양주 메가박스	영화 '기생충' 감상 후 학교로 돌아와 영화에 대해 느낀 점을 얘기 하며 블랙홀 떡볶이를 먹음
19.06.09	20:30 ~ 22:30	분임토의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분임 토의실에서 본 후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

활동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본 영글 클럽의 목표는 작년보다 더 바빠질 생활 속에서 영화라는 공통의 취미를 이용하여 좀 더 뜻 깊은 시간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시험과 과제와 동아리 활동으로 바쁘면서도 시간을 맞추고 관심사를 조율하여 영화를 선정하고 영화를 본 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공감하는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조원 모두가 3차례의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에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며 영글 클럽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 회차 영화 선정의 기준은 아무래도 보고서를 쓰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2회차의 '기생충'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명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느낀 점을 보다 더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우식이 가지고 다니던 돌의 의미'나 '마지막에 이선균이 코를 막았던 이유', '가난함과 부유함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장면들' 등등에 대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던 견해가 달라서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영글 클럽을 통해 저희 조는 목표하고 있었던 바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영화를 보다 비판적인 사고와 다양한 시각에서 감상하게 되었습니다.</p>
<p>기타</p>	 <p>1차 활동 사진</p>



2차 활동 사진



3차 활동 사진

팀원: 엄윤주, 박수진

시청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어바웃 타임, 이프온리

활동기간: 2019년 05월 17일 ~ 2019년 06월 14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5/17	114분	노원 롯데시네마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감상
6/14	123분	노원 쿨DVD방	영화 '어바웃 타임' 감상
6/14	96분	노원 쿨DVD방	영화 '이프온리' 감상

활동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평소 영화를 보는 취미가 없어 영화에 대해 잘 모르고 영화도 잘 보지 못했는데 영글클럽을 통해 학기 초 아직은 어색했던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보며 더욱더 친해지고 영화에 취미가 없었던 우리가 영화를 보는 약속을 잡고 영화를 보는 것이 좋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 영화를 볼 때 관심이 없었던 감독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영화에 대한 평점을 주면서 영화의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영화를 보며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영화에 나온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있나와 같이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나를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영화관만 간 것이 아니라 dvd방도 갔었는데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영화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dvd방과 같이 상영기간이 지나버린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영화감상과 같은 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p>
<p>기타</p>	

팀원: 이주영, 함희선, 허선주

시청영화: 동주, 죽은 시인의 사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활동기간: 2019년 04월 17일 ~ 2019년 06월 10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04.17	16:30 ~ 19:00	미래관 411호	영화 '동주'를 함께 감상한 후 주인공 윤동주와 송몽규에 대한 입장 토의를 진행하였음.
2019.06.05	16:00 ~ 19:00	열린마루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함께 감상하고, 영화 제목 의미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음.
2019.06.10	11:30 ~ 14:30	미래관 202호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다함께 감상한 후, 영화 속 등장하는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보는 활동을 하였음.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평소에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같은 장면을 여럿이서 다르게 해석해 보고 서로 나누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사실 세 명이 모여서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까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3번의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영화를 그저 재미로만 보던 전과는 달리, 그 이면의 내용을 생각하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우리 학과를 전공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



팀원: 장윤서, 권민정

시청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항거, 증인

활동기간: 2019년 06월 02일 ~ 2019년 06월 21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6월 2일	19시 30분 ~ 22시 0분	기숙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노래를 불렀다.
6월 20일	22시 20분 ~ 24시 20분	기숙사	영화 항거를 보고, 유관순 열사와 또 다른 애국자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 가지게 되었다.
6월 21일	9시 00분 ~ 11시 30분	기숙사	영화 증인을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잠을 자는 이 일상이 항상 반복되었다. 실험 보고서 작성에 치여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힘들었고 지루한 일상생활에 점점 지쳐갔다. 그러다가 룸메 언니들이 소모임을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영글 클럽이 있으니 너네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었다. 소모임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영화를 보고 조금의 여가 시간을 갖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다. 학기 초반에는 정말 영글 클럽을 생각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고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다. 조금 시간이 지난 6월부터 영글 클럽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찾아서 보길 시작했다. 매일 자기만 했던 기숙사에서 룸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영글 클럽을 통해 조금의 여유와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친구와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2학기 때도 이 활동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말에 심심한 기숙사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활동이어서 영글 클럽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팀원: 최연식, 강은규, 김철우, 김민기

시청영화: 택시 운전사, 군함도, 명량

활동기간: 2019년 04월 02일 ~ 2019년 06월 03일

상세 일자:

날짜	시간	장소	활동 내용
2019.04.17	4:00 ~ 6:00	기숙사	영화 택시운전사를 시청하였다. (근 현대사)
2019.05.21	4:00 ~ 6:00	기숙사	영화 군함도를 시청하였다. (일제강점기)
2019.06.03	4:00 ~ 6:00	기숙사	영화 명량을 시청하며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시대)

활동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처음에는 영화를 보는 소모임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룸메이트 친구들끼리 신청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가며 우리들이 몰랐던 것과 잘못알고 있던 것에 대한 사실들을 반성해보며 영화가 끝나면 그에 대한 토의를 해보는 활동을 통하여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영화를 보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가 부끄러웠으며 우리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는 의견을 지키게 된 활동이었고, 이런 활동이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닌 역사를 알아가고 즐기는 활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p>
기타	<p>활동을 도와주시고 진행해주신 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p>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팀명: 미소 (우수)



학습과목: 전공심화학습

학습장소: 학교

학습기간: 2019년 07월 15일 ~ 2019년 07월 30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7.9	17:30~21:00	학교	<p>7월 9일 활동 전에 친구들과 어떤 방향으로 미소를 진행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매체를 선정하고(매체 선정 방식은 기본이 되는 매체-)개인적으로 다뤄보고 싶었던 매체),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대상을 활동 전에 각자 조사해오기로 하였다. 만나서는 매체를 직접 만지고 다양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뤄보며 매체의 기본 특성 및 효과, 느낌을 생각해보고, 매체 이용방법, 매체간의 만남(사용한 매체들 중 같이 사용하였을 때 특별히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둘이 만났을 때 특별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든지), 자신만의 활용법을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같은 공간에서 매체를 다뤄보고 각자 위의 내용을 기록한 후 다 같이 나누며 서로 놓친 부분이나 나오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생각해보기로 했다.</p> <p>7월 9일에는 자기반응그림을 통한 매체연구를 진행하였다. 매일 하나의 질문을 던져 일기를 쓰고, 그에 대해 서로 코멘트를 달아주는 셀프케어마음일기장을 진행하던 중, 이번 매체활동에서는 '셀프케어마음일기장'을 주제로 다양한 평면 건식매체(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를 사용해서 자기반응그림을 그려보았다.</p>
2019.7.16	17:30~21:00	학교	<p>8월 14일부터 16일에 자폐아동과 지적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름실습 캠프에서 주치료사를 맡게 되어 대상을 연구하고 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기관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초기 활동을 만들었고 후기활동은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참고하여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다. 초기 활동은 첫 만남인 만큼 자연물로 친구얼굴을 만들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후기활동은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이용한 신체 활동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춤을 추며 신체를 이완하고 노래가 멈추면 동작을 멈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p>
2019.7.23	14:00~17:00	학교 및 외부	<p>매체연구와 프로그램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매체연구에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방향을 틀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은 매체 자체의 이용방식에 집중했다면 대상(다양한 연령대와 장애군), 목표 등등 다른 측면에 대해 교수님이 말씀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활동 방향(책을 정해서 공부하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매체탐색과 나눔을 가지는 것으로)을 정했다.</p> <p>그리고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마지막에 '무지개 프로그램'으로 방학실습 프로그램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셋이서 조사하고 의견을 내고 고민하여 그 외에도 5개 정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더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p>

2019.7.30	9:30~13:00	학교	<p>지난 회기에서 결정한 '무지개 프로그램'을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실에서 실제로 그 대상이 되어본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체크하고 바로바로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면서 프로그램을 수정해나갔다. 그리고 곧 있을 실습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며 동선이나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점검하고 함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모색해 보았다.</p>
-----------	------------	----	---

학습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곽재인: 학습소모임을 처음 해보는 거라, 내게는 도전이었다. 더욱이 다른 소모임처럼 공부를 통해 점수를 따내거나 공모전 같이 어떤 목표만 바라보고 가는 활동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장기적으로 매체를 탐색해보는 활동이라 더 모호하고 어렵게 느껴졌다. 예상 못 한건 아니었지만, 중간에 방향을 틀어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모든 게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의 자원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마침 실습(여름캠프)를 앞두고 프로그램을 직접 짜야 되는 상황이라 매체를 탐색하는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사용방식의 경험, 매체 사용 시 주의사항 등등 한 단계 높은 매체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셋뿐이지만 각자 생각도 방식도 달라서 그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의견을 모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p> <p>서지원: 이번 방학부터 미술치료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매체에 대해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같은 과 친구들과 소모임을 하게 되었다. 초반에 나를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두어서 잘 진행 될 줄 알았는데 처음이다 보니 예상외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향성이 모호해 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도 서로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나를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보았고 매체연구는 공부의 방향성이 정해져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교수님께 도움을 청해 길을 다시금 잡아나갔다. 하는 과정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아 불안하고 모호해서 답답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번 소모임을 하면서 매체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을 이제 제대로 잡아놓은 것 같고 실습 프로그램도 열심히 고민한 보람된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p> <p>최경아: 이렇게 좋은 기회로 동기들과 서로 의미 있는 집단을 만들어 보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 있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너무 넘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지만 다 같이 하는 활동이니 만큼 방법과 방향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해서 막막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기에 함께 방향을 다시 찾고 서로 도와 가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바로 올바른,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돌아갈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더 알아보고 찾아보고 부탁해보며 더 많은 것을 얻어간 것 같다. 매체연구 활동은 이 소모임이 끝나도 계속 우리만의 방향성을 찾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단순히 방학동안의 소모임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앞으로를 위한 소모임을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이 마음 잊지 말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싶다.</p>
------------------------------	---

팀명: 두드림 (우수)



학습과목: 전공심화학습

학습장소: CBC, 학교

학습기간: 2019년 07월 04일 ~ 2019년 08월 0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 / 4 (목)	12:00~17:00	CBC B240 하모니아실	스터디 목표 및 방향 논의 웍업의 종류 (일반 웍업, 심층 웍업, 소시오 메트리)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웍업 준비
7 / 11 (목)	12:00~16:00	CBC B240 하모니아실	웍업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기초 웍업: 일주일 동안 가장 감명깊었던 일 소개하기/ 친밀감 웍업: 초성을 가지고 떠오르는 이미지와 연관된 단어 말하기/ 신체적 웍업: 서로 돌아가면서 스트레칭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 언어적 웍업: 사물을 골라 생각나는 느낌 말하기/ 주인공 선정 기법: 전화부스 기법) 1장(심리극 개관), 2장(심리극의 역사적 배경), 3장(심리극의 원리), 4장(웍업), 5장(무대:심리극 극장)
7 / 18 (목)	12:00~17:00	포천캠퍼스 미래관 303호	텔레와 전이의 차이, 원장소, 모체 및 원상태 차이 공부 사이코드라마 진행 (주인공 2명)
7 / 25 (목)	13:00~17:00	CBC B240 하모니아실	일주일 동안 근황 나누기 웍업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연기 받아 이어가기, 기분 날씨로 표현하기, 타임머신, 별 이야기, 부정적 감정 표현, 후회되는 일 나누기, 1:1 즉흥 연기) 6장(주인공), 7장(집단), 8장(보조자), 9장(디렉터-행위에서의 인지), 10장(나누기), 11장(과정분석), 14장(상호작용-소시오드라마) 사이코드라마 참여 및 관람 경험 나누기
8 / 1 (목)	12:00~17:00	서현역 심리예술공간 '살다'	공동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구분 보조자야 훈련 웍업 프로그램 (자신의 현재모습과 미래모습을 천으로 표현하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이야기 / 장면 만들기) 사이코드라마 실습 (주인공 1명)

학습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최문정 (상담심리학과 17학번): 방학 중 5번의 학습법 소모임으로 전공 분야 중의 하나인 '사이코드라마'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방학 전에는 책이나 논문과 같은 자료로만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다 보니 깊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방학 때 직접 사이코드라마 공연을 보러가고, 스터디원을 끼리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해본 결과 더 이해가 잘 되었고, 체화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책으로만 공부를 할 때에는 보조자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와닿지 않았지만, 사이코드라마 공연을 보고나서는 보조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조자아를 맡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들었다. 하지만, 방학 중 학습법 소모임으로 스터디원들과 다양한 워업과 충분한 연습(실습)을 거친 결과, 스스로 점점 더 보조자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사이코 드라마의 소주제에 대해 스터디원들 끼리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달랐을 때, 그 과정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사이코드라마를 참여하거나 관련한 경험을 나누는 과정 역시 스터디원 마다 각자 느낀 점이 달라서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열린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전공 심화 스터디로 시작했지만, 사이코드라마로 9월 말에 있을 과 학술제를 나갈 계획이다. 스터디원들이 학술제 준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바쁜 방학 중 나서서 스터디를 하려고 하고, 본인이 맡은 부분에 대해 스터디원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해왔던 우리 스터디원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p> <p>박예지 (상담심리학과 18학번): 동아리 활동(전공 관련)을 위해 방학동안 시간을 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참여하였지만 동기, 선배,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혼자 공부할 때와는 다른 학습효과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이코드라마의 주인공과 보조자아로서 참여할 수 있어 이론으로 만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사이코드라마의 이론과 실제 경험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고마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다른 방법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끼리의 공부와 토론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사이코드라마 강사분께 질문할 수 있어 책으로만 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p> <p>진영하 (상담심리학과 18학번):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켈카 모레노의 <심리극의 세계>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했다. 각자 한 파트씩 맡았는데 설명하는 스타일이 달라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다. 또한 전공때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응용해볼 수 있었다. 자발성의 의미나 집단무의식, 전이를 프로이트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까지 다양한 주제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험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흥미로워서, 더 알고 싶어서 진행했던 스터디였기 때문에 공부과정이 즐겁게 느껴졌던 것 같다. 사이코드라마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학까지, 토론 주제로 거두된 문제는 사전적 의미와 다른 서적에서의 정의들을 비교해보며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스터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스터디원들이 사이코드라마를 직접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공 경험도 중요하지만 보조자아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좋았다. 연기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작업이었고 주인공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대상이 할 법한 대사를 생각해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첫번 째보다 두번 째 드라마에서 조원들이 확실히 발전한 것이 보여서 뿌듯했다.</p> <p>한수민 (상담심리학과 18학번): 사이코드라마를 학기 중에 동아리를 통해서 배울 때에는 사이코 드라마가 무엇인지를 큰 그림으로</p>
-------------------	---

알아갈 수 있었는데, 방학에 학습 소모임에 참여하여 공부를 하니 사이코드라마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었고, 직접 시연을 해 보면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 느낌과 감을 서서히 익힐 수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 공부할 때와 다르게 직접 극을 통해 역할을 맡아 해보니 안 해본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스테디를 통해 배운 점을 토대로 직접 외부의 심리극을 참여해보니 더 익숙하게 할 수 있었고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이 (상담심리학과 18학번):

하계방학 동안 사이코드라마 스테디를 시작했다. 나는 동아리 부장이니까, 2학기 때 동아리를 잘 이끌어야 하니까, 반강제적으로 내 자신에게 스테디를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이코드라마 이론을 공부 한다면 주인공 경험을 해야 했을 때 썩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을 초월할 정도로 사이코드라마는 단연코 흥미로웠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켈라 모레노의 「심리극의 세계」 책을 같이 분석했다. 혼자서 이해한 내용을 다른 부원들과 공유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토론도 해보고 전문가 선생님께 여쭙보면서 이론을 체화해 나갔다. 부원들끼리 사이코드라마의 '텔레' 개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때에는 텔레의 개념이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 직접 텔레를 느끼고 나니 단박에 이해가 되었다. 사이코드라마 극 진행 초반에, 주인공이 관객들 중에서 보조 자아를 선택할 때 무의식적으로 텔레를 경험하는데, 그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자꾸 한 친구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사이코드라마를 하는 장소와 상황이 변경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마음과 마음이 끌리는 텔레파시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를 그 친구에게 이끌도록 했다는 것이다. 텔레 뿐만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평소에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문제를 꺼내 놓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짐과 동시에 나의 이슈 속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이 편해졌다. 내 감정을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었다.

매 주마다 만났던 사이코드라마의 스테디는 마지막 주인공 경험을 하게 하는 모든 워업이었다고 생각된다. 스스로 이론을 공부하고 생각했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주인공으로 나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방학 중 매번 시간을 내어 만나서 공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스테디 모임이 계속될수록 알게 모르게 위안을 받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 8/1 사이코드라마 촬영

위에 저 사진은 내가 스테디 했던 순간 중 가장 자발성 있게 활동했고,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이다. 아무 형용 없이, 저 때는 왠지 처음 저 공간에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2학기 두드림 사이코드라마 활동할 때도 저 마음을 잊지 않고 활동하기를 바란다.

이경민(미술치료학과 19학번):

이번 학기에 동아리를 가입하게 되면서 '사이코드라마'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신설 동아리인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나름 공부하긴 했지만 투자한 노력에 비해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헛갈리는 부분만 늘어갔었다. 그러다 좋은 기회로 외부 선생님을 알게 되어 그 분의 도움을 받아 학기 중 동아리 시간에 초청해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다대일로 이루어지다 보니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사이코드라마만을 다루는 동아리가 아니다보니 흐름이 끊긴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소규모 모임으로 사이코드라마만을 공부할 수 있다길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방학 때 사이코드라마의 이론적인 부분을 짚 공부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 사이코드라마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스터디 중에 진행된 두 번의 사이코드라마 체험을 통해 내가 이론적으로만 배우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 있을 학술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팀명: U.P (우수)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학교

학습기간: 2019년 07월 22일 ~ 2019년 07월 2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 07.22	05:30~07:30	학교	포토샵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단축키들을 익히며 포토샵의 기본을 다짐
2019 07.23	11:30~01:30	학교 실습실	레이어 마스크, 그라디언트 사용법을 알아보았음. 단축키를 사용하여 문제를 빠르게 간편하게 풀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힘. 문제 1번과 3번을 해결해 보았음.
2019 07.24	11:30~01:30	학교 실습실	어려울 수 있는 액자 제작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출 문제를 통해 반복 연습해 문제2번과 4번 유형을 풀 수 있게됨. GTQ자격증 기출문제를 뽑아서 여러 번 연습하고 실전처럼 제한시간을 두고 풀어보았음.
2019 07.25	11:30~01:30	학교 실습실	자격증 시험 대비 마지막 요점 점검과 피부 보정과 같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을 익히고 직접 얼굴보정, puppet warp을 해보며 포토샵 기본 실력을 향상시킴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1학기 때 2급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 처음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에 필요한 노하우나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주어 도움이 되었다. GTQ자격증을 따기 위해 여름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소모임을 통해 함께 소모임 활동을 했지만 단 한명도 빠짐없이 열심히 활동에 임해 활동분위기가 좋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잘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거나 혹은 함께 찾아보고 나아가면서 소모임을 함께 하는 멤버들 실력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비록 자격증이 목표였지만 마지막 날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피부보정이나 얼굴보정도 해 보면서 포토샵을 실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 함께 활동을 하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방학이지만 방학 동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소모임을 만들고 함께 공부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p> <p>(자격증 결과는 8월16일에 발표되어 그 이후에 취득 자격증 사본 제출가능함)</p>
-----------------------	--

팀명: IMPACT

학습과목: 어학준비

학습장소: 일산교보문고, 일산 소호그린센터

학습기간: 2019년 06월 24일 ~ 2019년 07월 2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6/24 (월) [O.T]	2시간 (14:00~16:00)	일산 교보문고	-소모임 장소와 시간 계획 -교재선택 및 구입 결정 Barron's AP Psychology (8th Edition)
6/26 (수)	3시간 (15:00~18:00)	일산 소호그린센터 마두점	1과 History and Approaches -단어 검색 / 독해 및 문제 풀이
7/3 (수)	3시간 (15:00~18:00)	일산 소호그린센터 정발산점	3과 Biological Bases of Behavior -단어 검색 / 독해 및 문제 풀이
7/10 (수)	3시간 (18:30~21:30)	일산 소호그린센터 정발산점	4과 Sensation & Perception (앞부분: Sensation) -단어 검색 / 독해
7/22 (월)	3시간 (18:30~21:30)	일산 소호그린센터 정발산점	4과 Sensation & Perception (뒷부분: Perception) -독해, 문제 풀이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학습 목표: 전공 관련 심리학 영어 서적 독해 및 적용</p> <p>달성 내용 및 양상: 6월 24일 처음 만나 심리학 영어 서적으로『Barron's AP Psychology (8th Edition)』을 채택하고, 일산 소호 그린 센터에서 방을 빌려서 스터디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주 수요일 6월 26일 만나 해당 서적의 1과 '역사와 접근법'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인 7월 3일에 만나 해당 서적의 3과 '행동의 생물학적 기초'를 독해와 모르는 부분을 나누고 토론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인 7월 10일에 만나 해당 서적의 4과 '감각과 인지'의 감각 부분 독해와 그 중 모르는 부분을 나누고 서로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7월 22일에 만나 4과 남은 부분인 '인지' 부분 독해와 서로에게 스피치를 하며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p> <p>- 소감 및 종합의견:</p> <p>1) 우선 함께 소모임을 끝까지 해준 저의 학과 선배이자 옆집 이웃께 너무나 고맙고 다음 기회에도 함께</p>
-------------------	--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6월 24일에 만나서는 어떤 책이 좋을까, 또 어디서 모여서 해야 하나 등의 걱정도 많았고 목표가 정확히 확립되지 않아서 방학 동안 잘 해낼 수 있을까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나 혼자만 아닌 '함께' 활동을 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제가 결정을 못 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은 채워지고 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걱정과 불확신이 만난 그 날에 사라지고 함께 이 스터디 기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터디를 진행하는 중에도 생각보다 들이는 시간도 많고 노력도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힘들 때는 서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또 서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또 함께 검색도 해보고 머리로 맞대보며 하나하나 돌파해 나갈 수 있어서 다른 일상생활에 지친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좀만 더 힘내자!'라는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난 하루하루 힘을 얻고 또한 지난 1학년 때에 강의를 들으며 처음 배웠던 순간도 추억하고 여러모로 도전이자, 또 기쁘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2) 저 또한 이번 여름방학에 후배와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겼고 감사했습니다. 보통 혼자 부지되었던 지난 방학과 달리, 스터디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공부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공부하기로 다짐했다면 꾸준히 계획을 지키며 독해하기가 힘들었을텐데,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서적을 읽거나 문제를 풀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 후배가 자신이 이해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팀 이름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주면서 지속하여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영어독해를 즐거워하고 열심히 하는 후배의 모습은 저에게 공부 동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는 저의 독해 실력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전 심리학 수업시간에 함께 배웠던 내용들을 영어로 읽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각나는 심리 용어와 정보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에 수업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 빠르게 되었고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스터디를 하며 서로 과제를 정하고 스터디에서의 자신의 목표나 느낀점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터디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스터디를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배와 함께했던 스터디 시간들이 모두 귀했던 시간들이었고 이 시간들을 통해 이전보다 독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남은 방학의 시간과 학기 중에도 스터디를 통해 영어 독해력을 올리고, 전공 관련 지식들을 탄탄하게 쌓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 스터디의 효과: 항상 매 학년 매 학기 후의 방학 기간에 혼자서 '좋아! 나는 이번 학기에 배운 부분을 꼭 복습하고 말테다!'라고 다짐을 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아예 전공 책을 펴보지도 못했던 일이 수두룩했는데 이번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공부할 동지가 있으니 책임감도 더 커지고 또한 혼자 공부할 때보다 서로 익힌 내용을 서로에게 설명하고 예시를 들며 정리를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의지하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함께'라는 장점이 정말 스터디 중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배운 내용도 다시금 떠올리며 정리할 수 있고 또한 문제를 풀면서 어디가 이해가 부족했는지 알고 그 부분을 상대방이 말로 설명해 주면 더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도 정말 좋은 효과였습니다.

팀명: J호

학습과목: 어학준비

학습장소: 미래관

학습기간: 2019년 07월 09일 ~ 2019년 07월 1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7-9	5:00~7:00	미래관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 학습하였고 part5 문제를 풀고 채점하여 서로 몰랐던 문제(문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작성한 오답노트에서 서로에게 “퀴즈”형식으로 말 테스트를 시행하여 암기한 것을 점검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익단어 외어온 것(10일 분량)을 랜덤으로 뽑아낸 테스트지를 만들어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고 틀린 것은 다시 외우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2019-7-10	5:00~7:00	미래관	<p>-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의 구별 등위 접속사: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로 그 종류에는 and, or, but, yet, so, for 이며, 문맥에 맞도록 선택·사용한다. 상관 접속사: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함께 쓰이는 접속사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로 사용되며, 그 종류에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이다. 또한 상관 접속사는 맞는 짝끼리 쓰임이 같아야 하며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필요하다.</p>
2019-7-11	5:00~7:00	미래관	<p>-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에 대해 학습하였다 먼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목적어의 유무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면 타동사이고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없고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는 자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자동사보다는 타동사가 많으므로 빈출 자동사와 그 짝을 이루는 전치사까지 함께 외워두는 것이 편하다.</p>
2019-7-12	5:00~7:00	미래관	<p>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관계대명사는 두 절을(문장 구조 2개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서, 접속사와는 다른 성분이었다. 접속사는 두 완벽한 문장을 전혀 생략되는 성분 없이 그대로 연결만 해주는 것이고, 접속사는 문장의 처음에逗를 달고 나와서 두 절을 차례로 끌어오기도 되고 첫 절이 완성된 바로 뒤에 나오기도 된다. 그러나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격에 맞는 성분을 생략하면서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것이며, 문장의 처음에는 나올 수 없음.</p>

학습소감

지선영: 방학기간 동안에 모여서 토익공부를 하니 더 자극이 되었고 다같이 열심히 해서 서로 알려주고 시험도 보고 시간도 재며 test를 푸니 더 공부가 잘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김수완: 방학 중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토익공부를 함으로써 꾸준히 영어공부를 할 수 있었고 서로 도와가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장윤정: 학기 중에도 실시한 스터디가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어 이번 방학에 처음 함께 스터디를 하게 되었다. 이번 역시 모두 열심히 해주어 복습하는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모두 열심히 해주어 고마움을 느낀다.

황민: 2달 정도 되는 긴 방학동안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학기중에 하던 스터디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어도 공부의 호흡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종합 의견 *****

이번 하계 소모임을 통해 토익을 공부함으로써, 다들 바쁜 시간에도 모여 단어와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연어, 숙어, 전치사,... 등을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간을 재며 토익 테스트를 다 같이 푸는 것도 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을 했다. 이로써 각자의 토익 목표 점수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다.

오행시로 우리의 모임내용을 말해보겠다

**소감 및
종합 의견**

하: 하하 호호 웃으면서 하지 않고 진지하게 임하여

계: 계속해서 공부를 하였다!!

소: 소모임을 통해 토익에 대한 단어, 연어, part1~part7까지 시간재고 풀어보면서 공부했으며 한명도 빠지지 않고

모: 모여 열심히 하여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주면서 열심히

임: 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다:)



팀명: Ohio

학습과목: 전공심화학습

학습장소: 서울역 커피하우스, 강남 스타벅스

학습기간: 2019년 07월 13일 ~ 2019년 08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월 13일	2시~4시	서울역 '카페 후암동'	<p>1회차 모임은 스터디를 시작하는 첫 모임이었기 때문에 어쩌서 미생물 공부에 라틴어 지식의 선 습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속적인 물음을 던진 결과, 과학의 근간이 되는 언어는 영어도, 한자도, 한국어도 아닌 라틴어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논문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근원이 되는 언어이며, 더 이상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없는 '死語'이기에, 더 이상 단어의 뜻이 바뀌지 않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공용어가 라틴어가 된 이유이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라틴어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정확히 미생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아무래도 크게 분류되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전공 심화 학습'의 취지에 맞게 '1회차 박테리아 (Bacteria), 2회차 진균(Fungi), 3회차 원충(Protozoa), 4회차 바이러스 (Viruses)'로 나누어 각각 학습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p> <p>Bacteria의 학명과 계통명을 라틴 어원과 어근 분석을 통해 학명에 실제 미생물의 모양과 성질 그리고 발병 메커니즘이 반영되는 방식을 표로 정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하여 'Firmicutes'라는 계통을 가지는 'Staphylococcus aureus'가 포도의 형태를 띠는 구균이고, 두꺼운 세포벽을 가진다는 것을 라틴어명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p> <p>그 외에도 'Shigella sonnei, flexneri'처럼 미생물과 연관된 사람 이름, 지명 등이 학명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처럼 학명에 일반 명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 고유명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p> <p>마지막으로는 이후의 스터디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7월 20일	2시~4시	서울역 '커피하우스'	<p>2회차 모임에서는 예정대로 미생물 중에서 진균(Fungi)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Fungi는 동물의 분류에도, 식물의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생명체 인데다가,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조사와 자료 정리에 있어 난항을 겪었습니다.</p> <p>일반적으로 숙주의 내부에서 병을 일으키는 Bacteria와 다르게 병변 부위가 가시적인 경우가 많은 Fungi는, 발병된 질병의 모습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Trichosporon beigelii'의 이름을 통해서 머리카락에 작은 씨앗 모양의 결절이 반지 모양처럼 생긴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과, Trichophyton rubrum'의 학명을 통해서 병변 부위의 색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예들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p>

			<p>한편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cystis carinii’ 두 가지 학명을 혼용으로 쓰는 이유를 학기 중부터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학습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생물학은 기존 학명이 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처럼 공존하는 경우는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설을 파헤쳐 보니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 진균성 폐렴인 ‘Pneumocystis carinii’의 ‘Pneumonia’는 PCP로 줄여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학명이 재정의되어 ‘Carinii’가 ‘jirovecii’로 바뀌자 PCP가 PJP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늘 그랬듯이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아 의학계에서 PCP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Pneumocystis pneumonia’의 약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arinii’를 학명에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틀리지만, 혼용에 가깝게 사용되는 이유였습니다.</p> <p>학명 중 유일하게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tomatis’라는 라틴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알 수 없었기에, 잘 활용되지 않는 언어의 한계를 느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고 남는 것도 없지 않냐?’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조원 모두 이제는 자신 있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스티디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느껴 정말 뿌듯하였습니다.</p>
<p>7월 27일</p>	<p>2시~4시</p>	<p>강남역 ‘스타벅스’</p>	<p>3회차 모임은 원충(Protozoa)의 학명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정리가 학습 내용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Protozoa의 경우에는 학명에 세계 지리의 여러 장소들은 물론이고, 타 학문과 접목된 경우들도 발견되어 이전의 활동들과는 다루는 내용이 그 궤를 달리하였습니다.</p> <p>Protozoa의 학명은 ‘1. 감염 부위의 이름 2. 발견한 사람 3. 전염병이 퍼진 장소 4. 감염된 동물의 이름’으로 그 근원이 다른 미생물과 다르게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학기 중 배웠던 Protozoa를 4개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가장 우선으로 하였습니다.</p> <p>1. 감염 부위의 이름</p> <p>① Entamoeba histolytica: ‘histolytica’의 경우 ‘histo’는 ‘tissue’를 뜻하고, ‘lytica’는 ‘dissolve’를 뜻하므로 통틀어 ‘조직을 녹임’이라는 뜻.</p> <p>② Acanthamoeba keratitis: ‘keratitis’의 경우 ‘kerato’는 ‘각막’을, ‘itis’는 ‘disease’를 뜻하므로 통틀어 ‘각막에 발생한 질병’의 뜻.</p> <p>③ Balantidium coli: ‘coli’의 경우 장을 크게 소장과 대장으로 나누었을 때, 대장을 ‘colo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coli’는 ‘colon’의 뜻.</p> <p>④ Trichomonas vaginalis: ‘vaginalis’의 경우 ‘vagina’는 여성의 질을 뜻하고, ‘lis’는 ‘disease’를 뜻하므로 ‘질에 발생한 질병’의 뜻.</p> <p>2. 발견한 사람</p> <p>① Giardia lamblia: ‘Giardia’는 ‘Alfred mathieu giard’를, ‘lamblia’는 ‘Vilem dusan Lamblia’의 이름을 딴 것.</p> <p>② Naegleria fowleri:</p>

			<p>'Naegleria'는 'Mathieu naegler', 'fowleri'는 'Dr. Fowler'의 이름을 딴 것.</p> <p>③ Trypanosoma brucei, cruzi: 'brucei'는 'David Bruce'의 이름을 딴 것이고, 'cruzi' 역시 'Dr. Cruzii'의 이름을 딴 것. (여기서 'Trypanosoma cruzi'가 흥미로운 점은 종명이 'cruzi'이지만, 병명은 'Chagas' disease'라고 불리는 점. 그 이유는 이 원충이 'Chagas'라는 연구원이 연구하였고, 'Dr. Cruzii'는 이 'Chagas'가 일하는 기관의 책임자였기에, 병명은 'Chagas'로 불리고 종명은 'cruzi'로 불린 것!)</p> <p>④ Leishmania donovani: 'donovani'의 경우 'Charles donovan'의 이름을 딴 것. (특이한 것은 사람이름을 적절히 가공한 후, 마지막에 'i' 또는 'ia'를 붙여 라틴어화 한 것. 위에서 언급한 점은 'Giardia, Lamblia, Naegleria, fowleri, Brucei, Cruzii, Donovanii'에서 다시 확인 가능.)</p> <p>3. 전염병이 퍼진 장소</p> <p>① Trypanosoma gambiense, rhodesiense: 'gambiense'는 세네갈, 감비아, 기니를 거쳐 흐르는 강인 'Gambia river', 'rhodesiense'는 잠비아의 'Rhodesia' 지역을 뜻함.</p> <p>② Leishmania tropicalis, braziliensis: 'tropicalis'의 경우 'tropica'를 뜻하는데,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서 발견되었고, 이 나라의 열대우림을 뜻하므로 'tropicalis'라는 이름을 붙임. 'braziliensis' 역시 'Brazil'에서 발견되었고, 'ensis'의 경우 'disease'라는 뜻을 가져, 직역하면 '브라질에서 발생한 질병' 정도로 해석 가능.</p> <p>4. 감염된 동물의 이름</p> <p>① Toxoplasma gondii: 'gondii'는 'gundi' 즉 '설치류'라는 뜻. '설치류'라는 뜻을 가진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는데, Toxoplasma gondii에 의한 톡소플라즈마증은 고양이의 분변이나 고양이의 핏몸 등으로 인한 상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고양이는 설치류가 아니기 때문임.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므로 원래는 설치류에 있던 원충이 먹이사슬 위에 있는 고양이에 감염하여,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옮긴 것임.</p> <p>② Babesia microti: 'babesia'는 'Victor babes'라는 과학자의 이름이고, 'microti'는 'microtus'라는 설치류 중에 작은 설치류로서, '밭쥐속'에 주로 속하는 설치류에 감염하는 질병임. 이때 우리가 배우는 감염증은 감기와 같이 모두 사람만 걸리는 질병이거나, 인수공통 감염증이기에 이 역시 사람에게도 감염한다고 볼 수 있음. 이렇게 여러 분야에 학명의 근원이 걸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조사가 필요했던 미생물 분야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조사를 수반하였고, 적지 않은 시간을 공들였기에, 작업을 끝마쳤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p>
8월 3일	2시~4시	서울역 '커피업'	<p>4회차 모임에서는 바이러스(Viruses)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Viruses는 앞서 학습하였던 미생물들과 다르게 놀랍게도 학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학명을 쓰지만 분류를 할 수 없기에 그 의미가 없다고 보는 편이 옳았습니다. 'Adenovirus'를 예로 들면, '종-속-과-문-강-문-계'의 원칙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Adenovirus (Genus) - Adenoviridae (Family) - Incertae sedis</p>

		<p>(Order) - Incertae sedis (Class) - Incertae sedis (Phylum) - Virus (Unranked)'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Incertae sedis'의 뜻은 'unknown'이고, Virus 또한 'Unranked'이기에 사실상 'Adenovirus의 분류학적 특성은 뭐야?'라고 묻는다면 '바이러스야!'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반적인 분류체계인 ICTV(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를 따르기보다, 1971년 'Baltimore'가 제창한 볼티모어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I-VII로 분류한 후, 바이러스는 Common name으로 부르는 것입니다.</p> <p>한편 Viruses는 Common name을 쓰지만 특이하게도 이 역시 라틴어를 쓰는 점이 특이한데, 이를 병명과 연계해서 살펴보는 활동을 특별히 수반하였습니다. 이때 앞서 했던 것처럼 크게 7가지로 분류하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이러스 명과 질병이 일치하는 경우 2.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의 명칭 3. 같은 common name에 다른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 4. 축약어인 경우 5. Common name이 2종인 경우 6. 바이러스 명과 질병이 서로 뒤바뀐 경우 7. 유명한 질병의 경우 <p>로 분류가 가능합니다.</p> <p>각 항목별로 Viruses를 분류하였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7번 항목은 질병을 적었지만, 밑에서 다시 한 번 Viruses를 언급할 것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aposi-Sarcoma virus, Influenza 2. Coxsackie, West Nile, Japanese encephalitis, Zika, Ebola, Marburg, Hantan 3. Herpes류, Hepatitis류 4. ECHO, SARS, MERS, HIV 5. Lenti 6. Rubella, Measles 7. Cold sore, Chicken pox, Small pox, Cervical cancer, Common cold, Hand-foot-mouth disease, Infantile paralysis, Influenza <p>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mmon name = 질병 2. Coxsackie = 뉴욕의 지역 West Nile = 나일강 Japanes encephalitis = 일본 Zika = 우간다의 숲 Ebola = Yambuku 근처의 강인 'Black river'를 Lingala어로 표현 Marburg = 전초기지이름 Hantan = 한국의 한탄강 3. Herpes = Simple herpes Varicella-zoaster
--	--	---

		<p>Cytomegalo Epstein-barr kaposi's sarcoma Hepatitis A, B, C, G 4) ECHO = Enteric Cytopathogenic Human Orphan SARS = SevereAcuteRespiratorySyndrome MERS = MiddleEastRespiratorySyndrome HIV = HumanImmunodeficiencyVirus 5) Lenti virus = HIV 6) Rubella = German measles Measles = Rubeolla virus 7) Cold sore = 단순 헤르페스 (입주변의 발진) Chicken pox = 수두 = Varicella-zoaster virus Small pox = 천연두 = Variola virus (천연두가 'Small pox'라고 불린 이유는 기존에 'Pox'라고 불렀지만, 매독균인 'Treponema pallidum'이 활개를 치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Pox'를 'Small pox'로, 매독을 'Great pox'로 분류하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함.) Cervical cancer = 자궁경부암 (HPV) = Human papilloma virus Common cold = 감기 = Rhino virus Hand-foot-mouth disease = 수족구병 = Coxsackie virus Infantile paralysis = 소아마비 = Zika virus Influenza = 독감 = Influenza virus</p> <p>4회차 Viruses까지 마치면서 미생물학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이지 크게 늘어났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학습 활동과 차원이 다르고,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었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기쁨도 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	--	--

학습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한승훈(약학과 17):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하면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 무슨 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균이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सर्दहःके बेवेस ureरणिम'이 어떤 뜻인지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 단어 역시 한국어로 '황색포도상구균'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언어가 있지만 과학은 세계 공통이기에 하나의 통일된 용어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 과학의 공통된 단위가 통일되지 않았을 때, 미국은 'inch 단위'를 사용하고 유럽은 'm 단위'를 사용하여 우주선을 개발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정밀한 계산을 통해 컴퓨터에 모든 값을 입력했고 마침내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은 발사되자마자 추락하였고 그 이유는 유럽에서 'm 단위'로 보낸 수치를 미국에서는 'inch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1m로 설계되어야 하는 값이 1inch로 설계되어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과학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와 다르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단어의 뜻이 변하면 안 되기에 死語를 사용하여야만 했습니다. 그 적절한 예시가 라틴어였고,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어가 아닌 모든 나라의</p>
-----------------------	--

과학 용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라틴어를 배워두면 다른 많은 과학 용어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다른 동기들이 단순히 암기하는 단어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 라틴어를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도 “학명의 라틴어 기원은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기에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들이 돌아왔기에 절망적이었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아나갔습니다. ‘1. 미생물학 전공 책, 2. 라틴어 사전, 3. 각 파트별 명명 학회, 4. 미생물 발견 당시의 날짜에 맞는 논문의 저자’ 이 정도가 어원을 찾는 것의 기본절차였고, 부가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지역 이름, 유래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찾았기에 정형화된 방법이 아닌 정말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완성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 표를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를 하며 재밌고 즐겁기에 유익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어떤 과목의 어떤 부분을 공부할지, 어떤 부분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한주(약학과 17): 전부터 미생물 이름들은 이유 없이 무작위로 지어지는 것이 아닌, 저마다의 원인과 규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막연한 호기심만을 가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번 소모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직접 해소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자료를 들여다보며 분석해보니, 이러한 명명 체계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체계적이었으며, 미생물의 학명에 담긴 의미와 이름에 얽힌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되고 나면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학명들이 한층 친숙하게 다가왔고, 암기 또한 비교조차 되지 않게 쉬워졌습니다.

미생물 이름들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정보이며, 이 때문에 약사 시험에서도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하계 소모임으로 인해서 우리 조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곧바로 잊어버리는 일 없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학대학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부가 도움이 될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동계 방학 소모임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기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탐구와 학습을 하려 합니다.

고준영(약학과 17): 처음 미생물 학명의 어원을 분석하는 소모임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미생물학은 썩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었고, 한 학기 동안 학명을 외우는 것에 지쳐 있었는데 그것을 분석까지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들여 외운 것을 그대로 기억 저편으로 흘려보내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한편으로는 의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방향성을 잡기 힘들어 헤매기도 하였지만 갈수록 어원을 찾는 작업에 숙련되었고, 익히는 과정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그것도 방학 중에 하고 있는 점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학기 때 미생물학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될 텐데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동계 소모임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학습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팀명: 그놈의 자격증이 뭐길래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고양아람누리도서관

학습기간: 2019년 07월 03일 ~ 2019년 08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3	14:00~16:00	고양아람누리 도서관	한글 Windows의 개념 키보드 키의 기능
7/17	14:00~16:30	고양아람누리 도서관	한글 Windows의 기본 계산작업
7/31	14:00~16:00	고양아람누리 도서관	입력 및 편집 수식 활용
8/3	15:00~17:30	고양아람누리 도서관	데이터 분석 메크로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조병훈: 1학기 중에 교과스터디를 해보았지만 방학 중의 소모임은 교외에서 모임이 이루어져 만나는 것이 힘들었다. 그리고 마땅한 모임장소를 찾지 못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였는데, 스터디 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교재가 A,B,C로 중요도가 구분이 되어있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복습을 해야 할지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 자격증 공부를 처음 해보았는데 목표치를 정확하게 계획하고 공부를 하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이런 소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p> <p>이명준: 방학동안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사실 처음에 컴활 필기 자격증 책을 사고 '아..외울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고 실기 책을 훑어보았을 때 막막했다. 그러나 팀플로 각자 공부를 하고 이해가 된 것을 구두로 전해 들으니 나 혼자 인강으로 배우는 것보다 습득력이 좋아졌다. 방학에 총 4번을 만났는데 자격증을 위해서 빠듯한 일정으로 달려왔지만 연습 차원으로 생각하면 목표치를 정해두고 완수하여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방학에 무언가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후에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p>
-------------------	---

팀명: 논문보개기

학습과목: 대외공모전

학습장소: 강남역 스테디룸

학습기간: 2019년 07월 14일 ~ 2019년 08월 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14	13:00-15:00	강남역 스테디룸	방학 동안 읽고 분석할 논문 선정
7/21	13:00-15:00	강남역 스테디룸	각자 읽어온 논문에 대한 토론
7/28	13:00-15:00	강남역 스테디룸	각자 읽어온 논문에 대한 토론
8/4	13:00-15:00	강남역 스테디룸	각자 읽어온 논문에 대한 토론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방학동안 추계 학술대회를 대비하여 논문 분석 실력을 향상시키고 논문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학습법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방학동안 조원들끼리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스터디 활동을 했고 알차게 방학을 보낸 것 같아 부듯하다. 방학동안 약학 관련 논문을 읽고 논문 분석을 하며 논문을 읽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조원들과 함께 진행하다보니 해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다.</p> <p>이번 소모임에서는 비슷한 주제의 논문 4개를 정하여 각각 조원들끼리 읽고 분석한 후 서로에게 설명하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분석하다 보니 각 논문들의 장점 및 단점을 비교 하기가 쉬웠고 이를 토대로 논문 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기존의 논문 분석틀인 consort2010은 영어로 되어있고 문항이 너무 많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한글화 및 세분화 등의 수정을 진행하여 앞으로의 논문 분석을 준비하였다.</p> <p>개강 후 교수님과 상의하여 논문 분석틀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방학 중 진행하고 있던 임상 용어 및 약학 용어의 정리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p>
-----------------------	--

팀명: 데이터분석 준 전문가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차 바이오 컴플렉스 B1

학습기간: 2019년 07월 14일 ~ 2019년 08월 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14	13:00~16:00	차 바이오 컴플렉스 B1	이론 공부
7/21	13:00~16:00	차 바이오 컴플렉스 B1	이론 공부
7/28	13:00~16:00	차 바이오 컴플렉스 B1	이론 공부 + 예상문제 풀이
8/4	13:00~16:00	차 바이오 컴플렉스 B1	예상문제 풀이

학습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이 스터디의 목적은 2019.08.31.에 있는 국가공인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조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원 전원이 “윤종식(2017),『2018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ADsP』, 데이터에듀.” 교재를 구매한 후 인강을 신청하여 함께 들었습니다.</p> <p>각자 일주일 간 공부를 한 후 주 1회 모여 정해진 분량만큼 공부하였는지 체크하여 동기부여가 되도록 했고, 주요 내용 및 모르는 내용은 토론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p> <p>특히 1회차 스터디 내용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서로 퀴즈를 내 주면서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였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니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고 한 번 공부할 때 깊이 공부해야 함을 깨닫고 공부 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p> <p>스터디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상문제를 풀이할 때였습니다. 이론 공부는 어떻게든 혼자 할 수 있었지만 예상문제는 서로 생각했던 바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풀이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R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 힘들었는데 4명이 모이니 가장 이상적인 풀이를 낼 수 있었습니다.</p> <p>아직 시험까지는 약 3주가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은 교재에 실려있는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예상문제를 풀 때처럼 함께 토론하고 꼭 알아야하는 문제 및 틀렸던 문제를 모아 오답 노트를 만들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조원 모두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p>
--------------------------	---



팀명: 미생완생

학습과목: 전공심화학습

학습장소: 스타박스

학습기간: 2019년 07월 15일 ~ 2019년 08월 0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7.15	13:00~15:00	스타박스	오리엔테이션 및 항생제 표 리뷰 및 모의시험 범위 설정
2019.7.22	13:00~15:00	스타박스	항생제테이블 암기방법 공유 및 테스트
2019.7.29	13:00~15:00	스타박스	약품 미생물학 5단원 면역체계 예습 및 항생제 테이블 테스트
2019.8.5	13:00~15:00	스타박스	약품 미생물학 7단원 항미생물제 예습 및 항생제 테이블 테스트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김선주(약학과 17):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다각도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교수님께 강의를 듣고 해당 내용을 복습하는 학기 중 소모임과 다르게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예습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선입견 없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단백질 합성 저해제에 대해 학습할 때 여러 특징에 따라 구분되는 항생제의 종류를 하부르타로 학습하여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미생물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개강 전 미리 프리뷰 할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학기 중에 이어 방학기간에도 소모임 조장을 맡아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학기 중에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더욱 나은 조장으로써 활동한 것 같아 뿌듯하다. 방학기간이라 시간 내기 쉽지 않았음에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모두 참여해준 조원들에게 감사하다. 비단 성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공부 자체에도 다양한 변화의 시도를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습법 소모임을 추천하는 바이다.</p> <p>오윤정(약학과 17): 미생물학은 약학과 3학년 수업 중에서도 암기할 내용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1학기 스터디를 하며 2학기 스터디의 필요성을 느꼈고, 함께 했던 동기들과 2학기 스터디 역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있었던 미생물 테이블 암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2학기 때 하게 될 항생제 테이블 암기를 미리 해보며 2학기 수업을 조금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었던 방학 동안 동기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만나 공부하면서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었고, 비록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2학기에 배울 내용을 조금이라도 예습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효율적인 공부법이나 암기법에 대해 공유하기도 하면서 학습방법 역시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2학기에도 역시 기회가 있다면 스터디를 결성해 1학기처럼 미생물학 공부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p> <p>유정위(약학과 17): 미생물수업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수강합니다. 만약 미생소모임이 없었다면 2학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났습니다. 2학기 때는 1학기 때 못한 남은 수업을 이어하고 기존 2학기 수업도 있기 때문에 공</p>
-----------------------	---

부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소모임을 신청해 많은 공부를 하였고 학습법 소모임에 선발 되어 공부를 하고 장학금도 주는 방식이 매우 좋고 다른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라 생각합니다. 단순 한번만으로 끝낼 것이 아닌 다음 방학 때도 계속 이어가 학업에 보탬이 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희(약학과 17) : 저번학기에 있던 미생물학 강의의 내용은 새로운 부분이 많아 처음 보고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습의 필요성을 느끼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학 소모임을 통해 다음 학기 강의를 예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기들과 같이 만나 공부함으로써 혼자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배울 수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 내에 쌓아온 것들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소모임이 효과적이었다고 느꼈으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은혜(약학과 17) : 약학과에 입학하여 미생물학 강의를 처음 접하면서 많은 양의 암기분량에 적지 않게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학기 중 학습법 소모임에 이어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에도 미생물학이라는 동일 과목을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같은 내용이라도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고 느꼈고, 서로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다른 관점과 사전지식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이 배우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학 중이라 서로 시간을 맞추고 적당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학교 외의 장소에서 만나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만큼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 중에도 기회가 된다면 학습소모임에 또다시 참여해 동기들과 함께 공부 하고 싶습니다.

팀명: 바돌이

학습과목: 어학준비

학습장소: 강남 카페

학습기간: 2019년 07월 03일 ~ 2019년 07월 2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7/03	14:00~15:00	강남 카페	part5 수일치, 태, 시제에 대한 문법 part6 시간재고 풀기 part7 주제목적 찾기 문제
2019/07/10	14:00~15:00	강남 카페	part5 명사, 형용사, 부사 part6 시간재고 풀기 part7 안내문/광고/메세지
2019/07/17	14:00~15:00	강남 카페	part5 가산, 불가산 명사/ 전치사 part6 시간재고 풀기 part7 공고/ 이메일/ 연계지문
2019/07/23	14:00~15:00	강남 카페	part5 접속사/ 부사절 part6 시간재고 풀기 part7 회람/ 안내문/ 연계지문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이번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학우들과 토익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4학년 마지막학기를 앞두고 있고 토익점수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라 처음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계방학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토익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매번 스터디를 시작하기 전 단어시험을 진행하였고 part6,7을 풀 때도 시간을 재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정답에 대한 감을 익힐 수 있었으며 푸는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part5는 스터디원 각자의 강점과 이해도가 달라서 스터디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파트 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고 부족한 설명은 다른 사람이 풍부하게 채워주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고 빠르게 토익 문법적 요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원과 병행하면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학생도 있어 다른 학생들도 실용적인 스킬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점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스터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공동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8월말 토익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스터디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

팀명: 빅데이터공모전팀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혜화역, 강남, 학교

학습기간: 2019년 07월 03일 ~ 2019년 07월 2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3	12-17시	혜화역	전년도 공모전 분석 및 보충
7/10	12-17시	차의대 강의실	통계데이터 이론 공부 및 앞으로의 방향 설정
7/17	14시-17시	강남역 스테디룸	추가적인 자료 탐색 및 주제 선정
7/22	15-19시	강남역 카페	2회차 내용을 갖고 공모전 주제에 적용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조해람-방학기간을 소모임을 통해 의미 있게 보내게 되어 좋았습니다. 빅데이터 이론을 배우면서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이론도 채울 수 있어서 어느 방학보다도 성실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p> <p>최문혁-통계가 매우 매력적인 학문으로 다가왔다. 쓸모없는 자료 더미를 유용한 쓸모를 갖춘 정보로 가공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공부를 하여 통계적 능력을 갖춘 약학도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하였지만 책도 읽어보고 빅데이터도 감을 잡게 되면서 앞으로의 통계가 익숙해질 것 같다.</p> <p>박설- 입학 자기소개서에 빅데이터를 썼을 정도로 흥미가 있던 분야였는데, 마침 뜻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 소모임을 꾸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엔 너무 낯선 빅데이터였지만 함께 알아보고 학습하니 훨씬 친근하고 이해하기도 수월했습니다. 만약 소모임이 아니었다면 금방 그만두고 방학 내내 놀러만 다니다가 개학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 이 소모임 덕분에 알찬 방학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이미 빅데이터는 일상에서 많이 쓰일 뿐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약학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부분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학 중 공부한 빅데이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학기 중에도 꾸준히 학습해 경쟁력 있는 약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홍선기-저번 방학에 지원하였던 서울시 빅데이터 공모전에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에 수상작과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족한 통계지식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함으로써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물론 국가 공인 자격증인 빅데이터 준 전문가 자격증이 생각보다 공부 어렵지만 스테디와 함께 단체로 공부하면서 상당히 좋았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 할 것 같아서 좋았다.</p>
-----------------------	--

팀명: 수지와 동준이

학습과목: 대외공모전

학습장소: 차바이오텍플렉스

학습기간: 2019년 07월 14일 ~ 2019년 08월 04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7.14	1시 30분	차바이오텍플렉스	지난 학기까지의 활동내용 전달 및 앞으로 활동 계획 수립
2019.7.21	2시	차바이오텍플렉스	논문 평가서 번역 및 개정 방향 논의
2019.07.28	02시	차바이오텍플렉스	논문 평가서 번역/개정안 제시
2019.08.04	01시 30분	차바이오텍플렉스	논문 평가서 개정안 적용

학습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김동준(약학과 17): 매일 많은 양의 논문이 쏟아져 나옴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논문들이 좋은 논문이 아닌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좋은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을 구별해서 읽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나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약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걷는 약대생으로서 언제나 좋은 질의 정보를 원했으며 같은 고민을 하며 이 길을 걷는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것을 남겨보고자 이번 활동에 참여했다. 각 논문 자체의 가치를 정량화하여 신뢰도를 측정해 보자는 아이디어에 참신함을 느꼈으며 실제로 그것을 구체화하면 후에 양질의 정보를 논문에서 체계적으로 뽑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느꼈다. 하나의 논문을 검토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논문을 기준을 두고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평가서를 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데이터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전도 크다 생각하며 하나씩 자료가 쌓일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p> <p>박소영(약학과 15): 지금까지 논문을 읽고 논문분석틀을 이용해 논문을 평가하고 관찰하면서 의아했던 문항이나 부분을 조원들과 의견을 공유해가며 몰랐던 것들도 알 수 있었고 비판 능력도 키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개정된 논문분석틀이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논문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p> <p>장윤지(약학과 15): 작년까지는 논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벅했는데 이번에 논문 평가서를 개정하면서 그 동안의 스터디를 통해 논문 비평 능력을 많이 늘었다고 느꼈다. 논문 평가서를 정밀화하기 위해 팀원들과 많은 토론을 하였고, 논문을 평가하는 기준을 잡는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 논문 스터디를 하면서 많은 논문을 읽어본 경</p>
--------------------------	---

험을 통해 팀원들과 기준을 하나씩 잡아갔고 이를 통해 논문을 비평하는 능력이 더 향상됐다고 느꼈다.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이번 공모전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영미(약학과 16): 작년에는 뭣 모르고 시작한 것이 컸지만 방학동안 실습 프로그램을 하면서 논문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체감하였다. 여러 논문들을 접할수록 논문을 바라보는 틀이 조금씩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꾸준한 스터디 결과로 실력이 많이 상승했으니 올해는 작년의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팀명: 암정복조

학습과목: 전공심화학습

학습장소: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CBC) 도서관 및 연구실 (625호)

학습기간: 2019년 07월 04일 ~ 2019년 08월 0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04(목)	오후 1시 - 3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CBC) 도서관 및 연구실 (625호)	바이러스학 (류왕식 저) 중 인체의 방어 시스템 개요 공부 및 토의 진행.
07-22(월)	오후 1시 - 3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CBC) 도서관 및 연구실 (625호)	바이러스학 (류왕식 저) 중 바이러스의 면역회피와 전망에 대한 이해 공부 및 토의 진행.
08-02(금)	오후 1시 - 3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CBC) 도서관 및 연구실 (625호)	바이러스학 (류왕식 저) 중 innate immunity(선천면역) 공부 및 토의 진행.
08-07(수)	오전 9시 - 오후 3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CBC) 도서관 및 연구실 (625호)	지난 스터디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mini-prep, enzyme cutting, ligation, gel purification, pcr purification 등의 실험 진행.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박주동: 방학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기회였다. 현재 실험을 진행 중인 부분에서 필요했던 기본적인 지식과 면역학적 공부를 하여, 실험에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3학년 2학기에 듣게 되는 면역학 수업을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어서, 다음 학기에 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p> <p>홍지현: 이번 여름방학에 스터디 조원들과 함께 스터디와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병행하였다. 교수님이 추천 해주신 바이러스학 책 내의 면역반응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역활성 유도 사이토카인 복합체의 자가발현 살해세포 제작 및 해당 세포의 항암면역기능 강화 증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실험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인체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면역회피에 대해 공부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mini-prep, enzyme cutting, pcr purification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거의 한달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론들을 토대로 기본적인 실험들을 해보며 공부한 내용을 깊이 익힐 수 있었다.</p>
-------------------	--

김혜령: 1학기에 이어서 방학 때도 이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싶어서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번에 이어서 또 진행했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좋았다. 또한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판교에 있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실험도 진행하게 되어서 좋았다. 보고서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miniprep이나, interleukin에 대하여도 공부하게 되었고, 실험 결과도 예상대로 잘 도출해내어서 뿌듯했다. 다음 학기 때에도 스터디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여태까지 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학우들과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소속감에 만족하였다.

팀명: 어벤져스

학습과목: 대외공모전

학습장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5 1층 2호 테라스토리 강남점

학습기간: 2019년 06월 29일 ~ 2019년 07월 1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6.29	19:00~23: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5 1층 2호 테라스토리 강남점	공모전 과제의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았으며, 각자 몇몇 주제들을 선정하여 왜 이 주제가 우리에게 적합한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공모전 과제 주제를 정해 과제 해결을 위한 단계를 정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였으며 상세한 업무 계획을 정리하였다.
2019.07.01	19:00~23: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5 1층 2호 테라스토리 강남점	이전에 수상했던 기획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자 자료조사 한 것을 토대로 상황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자료조사 한 것 중 우리가 쓸 것과 안 쓸 것을 선별하는 작업도 하였다.
2019.07.04	19:00~23: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5 1층 2호 테라스토리 강남점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후 만들어 낼 실행방안을 위해 설득력 있는 상황분석을 만들고 기획서의 뚜렷한 윤곽을 잡았다. 상황분석과 문제점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여러번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후 타당성 있는 실행방안 컨셉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끊임없이 했으며, 타 경쟁사 사례를 찾아보거나 지난번 수상작, 인사이트 자료 등을 찾아보며 우리의 전략에 맞는 컨셉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07.11	19:00~23: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5 1층 2호 테라스토리 강남점	프로모션의 방향성 확정 및 공모전에 제출할 PPT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단계 이 단계를 위해 각자 컨셉과 캠페인 실행방안 아이디어를 골라오거나, 생각해오는 개별 작업 후, 회의에서 컨셉과 캠페인 실행방안을 확정지었다. 이 후, PPT템플릿 설정 및 목차(및 세부 내용순서)를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나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마지막 회의를 하여 PPT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기관에 제출하였다.

학습 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 데이터 경영학과와 의료홍보미디어학과에서 서로 전혀 몰랐던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 참여하다 보니 처음 주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과제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이는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p> <p>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쉬웠지만 이를 토대로 앞으로 과제를 진행할 때 어떻게 단계를 나누고 실행할지에 대해 좋은 공부가 되었다.</p>
------------------------------	--

팀명: 워아이니

학습과목: 어학준비

학습장소: 스타벅스

학습기간: 2019년 07월 15일 ~ 2019년 08월 0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7.15	15:30~17:30	스타벅스	오리엔테이션 및 한자로 이름 쓰는 연습
2019.7.22	15:30~17:30	스타벅스	150개의 단어를 모양을 통한 연상 암기법 공유
2019.7.29	15:30~17:30	스타벅스	단어 시험 및 모의고사 풀이
2019.8.5	15:30~17:30	스타벅스	150개의 단어 빈칸시험 및 모의고사 채점 후 토의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김선주(약학과 17) 중국어 문외한인 내가 스테디에 누가 되진 않을까 하며 시작했던 소모임이 어느새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되었다. 언어를 배운다는 일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조장과 다른 팀원의 격려와 응원으로 끝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약대생에게 중국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단순히 장래의 도움을 위해 시작했던 공부가 점점 재밌는 일로 느껴졌다. 물론 처음엔 단어를 외우고 생소한 오디오 음성을 들으며 받아 쓰기를 하는 일은 힘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소했던 한자도 익숙해지고 문제도 풀리니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멘토로 고생했던 조장에게 감사하고 특히 어려운 구문이나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노하우를 잘 알려주어 좋았다. 단순히 방학기간뿐 아니라 학기 중 까지 이어서 중국어를 좀 더 배워봤으면 하는 욕심이 들었고 어학 공부를 위해 소모임할 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학교에 감사함을 느낀다.</p>
	<p>오윤정(약학과 17)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배웠던 중국어를 다시 공부하기로 한 건 중국어에 능통한 동기가 도움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면 의욕을 잃을 것 같아 가볍게 HSK 1급을 따자는 목표를 세웠고, 함께 단어를 외우고 문장구조를 공부하며 자칫 지루할 수 있었던 언어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어에 대한 감을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좋은 조장을 만나 다양한 암기 팁과 노하우를 배워 무사히 목표량만큼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곧 시험을 볼텐데 열심히 한 만큼 함께 했던 동기들 모두 좋은 결과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p>
	<p>유정위(약학과 17) HSK 어학소모임은 처음 계획부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이끌어가고 한 번에 시험을 붙을지 많은 고민을 하여 시작하였습니다. 2시간이란 학습시간을 매주잡고 공부와 복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떡 하면 짧은 시간에 큰 효율을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원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어려움 없이 공부 할 수 있었고 소모임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내준 숙제는 완벽히 소화 해냈고 처음 벌칙으로 정했던 벌금도 전혀 나오지 않아 모두들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최소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고 숫자 세는 법과 색깔, 기본 동물 등을 한자로 읽고 쓸 수 도 있습니다.</p>
	<p>저희는 동계 방학 때는 HSK2급을 따낼 목표로 어학 소모임을 다시 만들어 최종 졸업 전까지는 남다른 어학능력을 갖춰 졸업하는것 최종 목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이은혜(약학과 17)

조만간 HSK 1급 시험이 시행되는데 합격여부를 떠나서 주어진 두달 간의 방학동안 HSK 1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목표로 중국어를 공부했다는 사실자체가 너무 보람차다. 또한 공부하는 중간중간 방학인데 공부를 해야하나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기들과 함께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 겨울방학에도 방학 학습소모임이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HSK 2급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동기들과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개강때 기쁘게 만나고 싶다!

팀명: 위캔두잇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신촌역, CBC

학습기간: 2019년 06월 30일 ~ 2019년 7월 31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6/30	12-17시	신촌역 투썸플레이스	심리학개론 오답 문제 확인 / 문제별 이론 정리 - 연구방법론 - 사회심리학 - 인지 및 학습심리학 - 성격심리학 - 발달심리학,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임상심리사 2급 제 2과목인 이상심리학 파트에서 기본개념과 이상행동의 유형 정리해오기 2018/8월,3월 & 2017/8월,3월 이상심리학 파트 필기 기출문제 풀어오기
7/7	12-18시	신촌역 탐앤탐스	이상심리학 오답 문제 확인 / 문제별 이론 정리 - 이상심리학 기본 개념 - DSM-5 범주/ 차원별 진단기준 정리. 다음 시간 숙제 및 진도 공지: 임상심리사 2급 제 3과목인 심리검사 파트에서 심리검사 기본개념과 지능검사/다면적 인성 검사/신경심리검사/기타심리검사 유형 정리해오기, 2018/8월,3월 & 2017/8월,3월 +16년도 심리검사 파트 필기 기출문제 풀어오기
7/13	13-18시	CBC 카페	각자 공모전 계획 세웠던 것 공유하기 교수님께 계획 피드백 받고 수정 및 논문 전체 틀 세우기/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심리검사] 파트 공부 및 정리, 2018년, 2017년 임상심리사 필기 기출문제 [심리검사] 파트 풀어오기 및 오답 정리, 금요일까지 논문 공모전 초록 서로 작성 뒤 공유
7/15	13-18시	신촌역 투썸플레이스	심리검사 오답 문제 확인 / 문제별 이론 정리 - K-WAIS-IV - MMPI-2-그 외 검사 도구 - 임상심리학 이론 정리 /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임상심리사 2급 제 4,5과목인 임상심리, 상담심리 파트에서 기본개념과 이상행동의 유형 정리해오기, 2018/8월,3월 & 2017/8월,3월 임상심리, 상담심리 파트 필기 기출문제 풀어오기
7.21	13-18시	CBC 카페	공모전 계획 및 자료정리 공유, 논문 공모전 서론 작성 및 교수님께 피드백 받기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관련 통계 자료, 중독 관련 이론적 배경, 연구 주제 및 문제 작성, 다음 시간 숙제 및 진도 공지: 2018/8월,3월 & 2017/8월,3월 임상심리, 상담심리 파트 필기 기출문제 풀어오기
7.28	13~18시	신촌 탐앤탐스	임상심리학/상담심리학 오답 문제 확인 - 2017,18년도 2개년임상심리 및 상담심리 문제 확인하며 오답 체크 및 의문점 나누고, 조사해온 자료(이론 정리) 공유, 문제별 이론 정리 - 임상심리학 기본개념 파트: 관련 학자 및 역사 정리 및 오답, 상담심리학 주요 이론 파트: 정신분석/인지행동/애착 등 주요 이론 정리 및 문제 유형 파악,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임상심리사 2급 하위 과목인 심리학개론 / 이상심리학 / 심리검사 / 임상심리학 / 상담심리학 총정리 및 의문점 나누기
7/31	13-18시	을지로입구 투썸플레이스	2019년도 기출문제 각자 풀 후 오답 문제 확인/ 문제별 이론 정리 - 심리학개론 - 이상심리학 - 심리검사 - 임상심리학 - 상담심리학 총 정리하기/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19년도 하반기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 실시, 서로 정답 공유 및 합격 여부 확인하기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준비할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전공을 통해 대부분 다루었던 내용들이었지만 한 달 이내에 많은 범위의 내용들을 혼자 정리하고 공부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를 하면서 학과 동기와 함께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범위를 나누고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면서 진행하다보니 큰 부담 없이 필기시험을 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특히나 혼자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나 오답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며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어서 시험 도중에도 관련된 이론들이 더 잘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 예습 및 복습의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p>
-----------------------	---

팀명: 차이나조

학습과목: 어학준비

학습장소: 강남역 카페

학습기간: 2019년 07월 13일 ~ 2019년 08월 03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 13	14:00~16:00	강남역 카페	학습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시점에서 1주 동안 책의 듣기 부분을 각자 학습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터라, 연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각자 틀렸던 문제를 공유하여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후, 장소 및 직업, 관계, 숫자 및 시점, 행동이나 상태, 상황 등의 단어가 정리된 표를 보고 짝을 지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과제로 '필수어휘 1200 단어장'에서 2주 분량인 280 단어를 외워왔던 것을 시험 보는 것으로 스테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7. 20	14:00~16:00	강남역 카페	전 주에 듣기 부분 스테디를 마치고, 이후부터는 독해 부분을 학습하였습니다. 스테디는 듣기 부분에서 어려웠던 표현이나,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독해 부분 스테디에서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부터 시작해 양사의 사용법, 부사와 구조 조사의 위치에 따른 해석하는 방법 등 각 품사에 대한 호응관계를 배우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각자 풀이해온 연습 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1회차에서 외운 단어를 누적한 560 단어를 시험 보는 것으로 스테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7. 29	14:00~16:00	강남역 카페	이번 스테디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법 부분을 학습하였습니다. 각자 문법 학습을 마친 후 요약정리를 통해 기본적인 작문의 토대를 다지는 것을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요약정리를 통해 중국어는 한 단어가 명사, 동사 등으로 형태 변화 없이 사용된다는 것과 시제변화가 간단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실제 작문을 하였을 때는 술어문과 의문문의 구조를 함께 암기해 보며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요약정리를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재 속의 간단한 문장을 함께 쓰고 익히는 시간을 스테디 대부분의 시간에 할애하였습니다. 이번 스테디에서도 저번 회차에서 외웠던 단어를 누적하여 추가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8. 6	14:00~16:00	강남역 카페	스테디를 위해 모이기까지 일주일의 시간동안 그 동안 학습하였던 듣기, 독해, 문법 부분을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실전모의고사를 해결하기 위한 실력을 쌓아 나아갔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통해 단 기간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였을 때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었고, 채점 후 각자 토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에서 외워야 할 단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외워왔던 모든 단어의 복습을 통해 실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하였습니다.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고준영(약학과 17): 처음 중국어 스터디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회의적이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았던 터라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 사소한 감정에서 비롯된 생각이니, 중국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이상 중국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올라갈 것이기에 배워두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약사 면허를 가지고 영어에 능숙한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에, 만약 중국어를 잘 배워둔다면 그것은 현재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에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강점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겨우 한 달 만에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최소 시간 최대 효율을 위해 모든 언어 학습이 그렇듯이, 암기를 방 향성으로 잡고 스터디를 진행하였다.</p> <p>박설(약학과 17): 예전부터 중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들어왔기에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지만, 너무 낯선 언어라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막막하여 미뤄두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회가 닿아 이렇게 중국어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특히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므로 서로 의지하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예 처음 배워보는 중국어이다 보니 외워야할 것도 정말 많고 조금 공부하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혼자 하는 공부 아닌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소모임이 아니었다면 금방 그만두고 방학 내내 놀기만 하다가 개학을 맞이했을 것 같은데, 이 소모임 덕분에 알찬 방학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중국어와 같이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언어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방학 중 공부한 중국어가 밀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학기 중에도 꾸준히 학습해 유창한 중국어 실력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이권희(약학과 17): 예전부터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한번쯤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여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학소모임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가 생겨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기들과 같이 만나 공부함으로써 혼자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서로 도와가면서 배울수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 내에 쌓아온 것들로 중국어 자격증을 목표로 하여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흥미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하고 싶습니다.</p> <p>정서경(약학과 17):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에는 기본 단어조차 발음하기 어렵고 헛갈려서 많이 헤맸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회화 연습을 하다 보니 재미도 붙으며 욕심이 생겼다. 때문에 기본적인 과제를 넘어 좀 더 학습해보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또한 평소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앞으로 약학을 전공하여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p> <p>최성웅(약학과 17): 방학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특별한 취미생활 없이 집에서 보내는 일상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도서관과 카페를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하며 자기개발을 하니 방학이 너무 짧게</p>
-----------------------	---

느껴졌습니다. 때론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에 막히면 그만두고 싶어졌지만, 조원들 간의 피드백과 도움을 통해 계속해서 중국어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닌 조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했기에 더 유익했고, 차대의 이러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팀명: 차차라추추

학습과목: 대외공모전

학습장소: 선릉역 커피빈,공차

학습기간: 2019년 06월 25일 ~ 2019년 7월 16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6/25	18시 - 21시	선릉역 커피빈	심리통계 1-3단원 내용 복습/ 단원별 O&A 정리 (이후, 교수님께 연락) /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서울대 기출문제 예시 답안 작성해오기, 1-3 단원 내용 포함된 대학원 기출문제 최소 1문제 준비 4단원 예습해오기, 전공영어 AP PSYCHOLOGY 1-3단원 해석해오기
7/4	14시 - 18시	선릉역 커피빈	각자 작성해온 연구계획서 상호간 피드백 / 연구계획/기대효과/연구요약 세부 작성 / 수정과 작성 반복 / 계획안 완성
7/9	12시- 14:30시	선릉역 공차	설문지 폼 양식 검색해서 공유하기 / 기존 논문을 참고하여 설문지에 들어갈 내용 정리하기 /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전공원문서 3강까지 해석해오기, 교수님 피드백을 바탕으로 소논문 설문지 완성하기 . 통계 복습하기
7/11	14시 - 18시	선릉역 스타디카페	설문조사 작성을 위한 문항 목록 작성. 미리 작성해둔 소논문 초안 참고함. 구글 폼 공동작업. 서로의 계정을 초대하여 동시에 작업 및 수정함. 교수님의 피드백(전화 통화). 수정을 위해 내일 7.12 교수님과 면담 일정을 잡음. '먹방'이라는 소재는 재미있고 참신함. 그러나, 연구의 목적과 연구 절차가 부합하지 않음. 주제를 살리기 위해 소논문보다는 에세이를 추천. 보다 구체적인 에세이 작성법을 위해 면담을 신청.
7/12	11시-15시	CBC 카페	학습제 주제에 맞는 riss 참고 논문자료들 조사(구글 설문지 폼 작성법 참고) / 교수님께 연구계획서 제출 후 피드백, 교수님과 면담 신청 후 면담 진행 / 다음 시간 숙제, 진도 공지: 소논문 수정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계획 수정하기. 설문지에 들어갈 내용 생각해오기, 원문서 해석해서 공유하기
7/16	17시 - 19시	선릉역 할리스커피	설문조사 작성을 척도 문항 설정(자극추구/소외감/스트레스/강박/자존감/애정 결핍). 각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 문항 3개씩 추림(TCI (기질 및 성격 검사), K-IIIP (한국형 대인관계 검사), 성인애착유형척도, Rog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 소외감 척도 등). 설문 응답자 기프티콘 제공 관련하여 회의. 총 50분께 추첨을 통해 2000원 상당의 CU기프티콘 제공. 구글 폼 공동작업 (서로의 계정을 초대하여 동시에 작업 및 수정함). 교수님께 최종 전달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더 체계적으로 학습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소논문은 처음 작성해 봐서 막막했지만, 덕분에 기존의 연구나 논문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앞으로의 대학원 진학에 있어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세워 조금씩 진행 하면서 요령이 생긴 탓에 어려움이 점차 줄게 되었고 다음에 소논문과 비슷한 형식의 글을 작성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 큰 막힘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논문 작성을 위해서 통계를 비롯한 심리학개론 이론 공부를 했는데,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할 수 있었고 더 많은 관련 지식을 알 수 있어 대학원 입시에도 보탬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처음해본 탓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게 진정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습지원센터의 도움(진행사진, 결과물 제출을 유도하는 일) 없이는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이번 스터디를 토대로 체계적인 공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팀명: 최씨니어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카페

학습기간: 2019년 07월 14일 ~ 2019년 08월 0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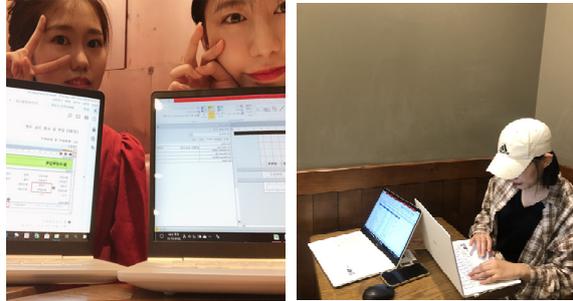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07.14	3:00~6:00	목동하이퍼리온점 스타벅스	각자 공부하던 책(2019 시나공필기,실기,박주희의 컴활 기출문제)을 가지고 와서 공부계획을 세움
07.21	4:00~6:00	목동하이퍼리온점 스타벅스	기출문제 푼 것을 토대로 틀렸던 부분 오답, 기출 문제 같이 풀기
07.31	1:30~6:30	목동하이퍼리온점 스타벅스	시나공 실기 엑세스 책을 보면서 직접 프로그램으로 직접 실행(쿼리, 폼,보고서)
08.04	2:30~7:30	목동하이퍼리온점 스타벅스	시나공 실기 엑셀 책을 보면서 함수부분 공부, 부족한 부분 인강 보충, 2018 상설 모의고사시험 보기

학습소감

<p>소감 및 종합 의견</p>	<p>최현경: 처음해보는 소모임 활동이라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다. 일학년 때 배웠던 창의 컴퓨팅과 정보분석관리 수업에서 배운 엑셀과 엑세스를 토대로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다. 다시 엑셀과 엑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다 보니 기억도 안 나고 시험을 준비하다보니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예원이와 함께 만나서 서로 모르는 부분도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다보니 혼자 할 때보다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다. 물론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라서 아직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꾸준히 공부하다보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을 것 같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최예원: 소모임과 같은 학교행사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통학생이어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가까운 동네에 사는 학교선배랑 방학동안 소모임을 하면서 선후배간의 돈독함도 생기고 혼자였다면 나태해져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고 실행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언니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서 너무 고맙다.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학교한테도 너무 감사하다. 시간이</p>
--------------------------	--

너무 촉박하여 아직 자격증을 따지는 못했지만 남은시간동안 지금껏 해왔던 것과 같이 열심히 한다면 컴활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다.



팀명: 컴온컴활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카페

학습기간: 2019년 07월 03일 ~ 2019년 08월 09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7.03	14시~16시	각자 집	1차 소모임의 학습목표는 전반적인 필기 시험에 관한 내용을 알고 1회독을 하는 것이었다. 각자 집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정미현 교수님이 올려주신 학습 자료를 가볍게 1회독 한 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물어보기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2019.07.08	16시~18시	각자 집이나 카페	2차 소모임의 학습목표는 실제 시험 보듯이 기출문제를 여러 개 풀어 보며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2시간을 진행하며 총 6개의 기출을 풀어보고 틀린 문제는 답지를 보며 왜 틀렸는지 얘기하며 오답을 진행하였다.
2019.07.16	13시 30분 ~ 15시 30분	집이나 카페	3차 소모임의 학습목표는 전반적인 실기내용을 1회독하며 노트북으로 실습해보는 것이었다. 실기는 교재만 잘 따라하면 별로 어렵지 않기에 시나공 교재를 중점으로 직접 엑셀 파일에 1번씩 따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9.07.21	14시 30분 ~ 16시 30분	각자 집	4차 소모임의 학습목표는 실기 시험에 대비하여 실제로 기출을 시간 제한을 두고 풀어보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보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이 함수에 취약했기 때문에 함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학습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활동 소감></p> <p>이재은: 방학을 안일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자격증 취득 소모임에 참여해 팀장으로 활동했다. 이 소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2달 남짓한 방학기간을 허무하게 보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혼자 하려고 했으면 막막했을 자격증 취득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 책임감도 커지고 모르는 부분이나 의문이 드는 부분은 함께 얘기해보며 해결할 수 있었기에 빠른 시일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점이 바로 소모임의 장점인 것 같다. 또한 전 학기 때 컴퓨터 활용 관련 강의를 들었고 그 때 교수님께서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급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는 1급에 도전해 보고 싶다. 기회가 되어 다음 방학 때도 이런 소모임 활동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1급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p> <p>이해지: 학기 중 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인 방학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2급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관련 소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1학기 때 교양 수업</p>
-------------------	---

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과 관련된 수업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별거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던 분야도 아니었으며 수업 때 모든 부분을 배웠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라서 생각보다 어려웠다. 완전히 혼자 공부했다라면 매우 막막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소모임을 통해 다 같이 하는 것이라서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의문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물어보거나 서로 머리를 맞대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다. 이게 바로 소모임의 최대 장점인 것 같다. 약 한 달 정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소모임이었지만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뿌듯하다! 다음 학기에도 이러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임시윤: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컴활 2급 자격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냥 휴식으로 보낼 수 있었던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엑셀에 관해서는 거의 지식이 전무 하다고 봐도 무방했었는데 밤낮으로 연습해보며 엑셀 함수를 활용하는데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또한 매크로 지정이나 도표 만드는 것을 연습한 것이 컴퓨터에 대한 실무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소모임을 할 기회가 생기면 또 참여를 하고 싶다. 또한 이번에 아쉽게 자격증을 취득하진 못했지만 컴퓨터에 대한 자신감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간호사로 취업을 했을 때나 간호사 말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도 더 다양한 컴퓨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다음 겨울 방학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 도전해보기로 스스로 약속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종합 의견>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모임의 장점인 것 같다. 혼자라면 막막했을 문제들을 함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토론해 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시간을 단축해 주었다. 또한 이런 소모임이라는 큰 틀에 잡혀있지 않고 혼자 자격증 취득하기로 다짐했다라면 분면 방학이라는 상황에 매우 안일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채찍질을 해 주니 더 쉽게 마음을 다 잡을 수 있었고 의미 있는 방학기간을 보낸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소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팀명: 컴활마스터

학습과목: 자격증

학습장소: 그린컴퓨터아트학원

학습기간: 2019년 07월 12일 ~ 2019년 08월 02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7.12	14:00~17:00	그린컴퓨터 아트학원	ch.1 엑셀 기초 ch.2 기초 계산과 기초함수 셀서식 등의 기본 작업을 익혔으며 sum, average, count 등의 엑셀 기본 함수 다루는 법을 학습함.
7.19	14:00~17:00	그린컴퓨터 아트학원	ch.3 주요함수 VLOOKUP,HLOOKUP 주로 입력된 값에 해당하는 다른 값을 불러오는 기능의 함수를 학습하였고 숫자값을 문자열 형태로 변환하는 CHOOSE 함수를 학습함.
7.26	14:00~17:00	그린컴퓨터 아트학원	ch.3 주요함수 sumif, dsum, if등의 조건부 함수등을 학습하였고 ch.4 기본작업 에서는 조건부 서식, 고급필터, 그림, 하이퍼링크, 외부데이터 등의 작업 수행에 대해 학습함.
8.2	14:00~17:00	그린컴퓨터 아트학원	ch.5 분석작업 데이터의 집계표인 피벗 테이블을 형성 및 수정하는 법을 배웠고 목표값과 데이터표를 분석, 시나리오(가상분석), 통합, 부분합 등의 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법을 학습함. ch6. 매크로 절차, ch.7 차트에서 매크로 입력법과 차트 형성 및 활용을 학습함.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대학에 와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생회 업무를 처리할 때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약학통계학' 수업 때는 엑셀을 다루는 것이 주요 과제였는데, 엑셀에는 많은 기능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제 수행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엑셀 활용 능력의 필요성과 어깨너머로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에 한계를 느껴 방학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컴퓨터 활용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다.</p> <p>독학 보다는 학원에서 전문적인 수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학원에 등록하여 4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테디를 진행하였다. 엑셀 프로그램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능이 있었는데, 이는 머리로 외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체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스테디는 주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 연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가끔 정확한 수식을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데이터가 얻어지고는 했는데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각자 입력했던 식을 확인해보는 작업도 거치며 공부했다.</p> <p>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하여 답답함을 많이 느꼈지만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공부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하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에 선발되면서 스테디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우고 일지도 작성하면서 학습에 열중할 수 있었다. 이 소모임을 통해 엑셀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이 능력을 2학기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개강이 기다려진다.</p>
-----------------------	--

팀명: 한중영보개기

학습과목: 어학준비

학습장소: 브라운홀릭 카페 차바이오킴플렉스

학습기간: 2019년 06월 24일 ~ 2019년 07월15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2019.06.24	18:00~19:30	현대백화점 인근 스타벅스	토익 한 세트 풀기, 오답풀이, 숙어 및 문법 공부, '치아문단순 적소미호' 드라마 시청 후 대화 복기로 회화공부 진행
2019.07.09	18:00~19:30	브라운홀릭 카페	토익 한세트 풀기, 숙어 및 문법 공부, '치아문단순적소미호' 드라마 시청 후 대화 복기로 회화공부 진행
2019.07.13	18:30~20:00	차바이오킴플렉스	토익 part 5,문제풀이(20분), 오답 해석 및 암기, part 6 직독 직해, 드라마 중국어회화 핵심패턴 233을 통해 중국어 회화 공부 진행
2019.07.15	18:00~19:30	브라운홀릭 카페	토익 part 7 문제풀이, part 5,6 오답노트 작성, 토익 단어 공부, 중국어 회화 공부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기존에 서로 보유하고 있던 토익 점수의 만료기간이 다가옴과 동시에 새로 토익 공부를 방학 중에 꾸준히 해 2학기 중에 시험을 볼 생각으로 스터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꾸준히 만나 서로의 숙제를 체크하고 서로 모르는 점을 물어보고, 같이 모여 토익 문제를 풀어서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하계방학 학습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공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많은 시간을 모임에 사용할 수 없었고, 토익과 같은 어학공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혼자 토익 공부를 독학하기엔 한없이 늘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스터디를 숙제를 체크하거나, 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물을 정하고 나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주일간 숙제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놓쳤던 부분을 상대 학우를 통해 되짚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스터디를 방학 중 4주를 진행 하였지만, 2학기에도 다른 팀원을 모아 계속 진행해 토익 성적 획득에 노력하겠습니다.</p> <p>토익뿐 아니라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중국어를 서로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김성연 학우의 제안으로 중국어 회화스터디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드라마를 통한 공부를 하였는데, 실제 중국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발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거주 경험이 있는 김성연 학우가 부연 설명을 해주어서 더 재미있는 스터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p>
-----------------------	--

팀명: 함께해요! 약학연구

학습과목: 전공심화학습

학습장소: 차바이오킴플렉스

학습기간: 2019년 06월 24일 ~ 2019년 07월 19일

학습일지

날짜	시간	장소	학습활동 내용
6/25	3	차바이오킴플렉스 도서관	실험: 항생제의 활성을 측정하는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이해하고, 세균의 항생제 내성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실험 내용에 대하여 복습 및 토의
7/4	4	카페	실험: Transformation을 통한 유전자 전달 실험기법을 배운다. transposon mutagenesis를 통해 삽입 변이주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한다. 실험 내용에 대하여 복습 및 토의
7/12	3	차바이오킴플렉스 도서관	실험: 목적물이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실험하는 방법을 배운다. aseptic microbiology techniques를 습득한다. 실험 내용에 대하여 복습 및 토의
7/19	4	차바이오킴플렉스 도서관	실험: Virulence의 개념을 이해하고 Virulence measurement를 실습한다. 실험 내용에 대하여 복습 및 토의

학습 소감

소감 및 종합 의견	<p>김나현: 실습시간에 직접 수행해보았던 세균의 접합 과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transformation 과정과 효율성이 달라지는 것이 신기했다.</p> <p>임혜영: 항생제의 활성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보람찼다. 생화학 및 미생물학에서 배운 내용이 다시 나와서 이해가 더 쉬웠다.</p> <p>이수정: 바이러스의 독력을 측정하는 공식에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직접 그리면서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p> <p>태소정: biofilm 형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특히 어려웠지만 지난 학기에 실험한 내용을 복습하니 재미가 느껴졌다. 실험은 직접 해봐야 훨씬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 같다.</p> <p>종합 의견: 4학년 1학기 실험 실습 과정을 다시 한 번 복습하고, 더 나아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원리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실험 과정을 더욱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실험을 서로 설명하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 보람이 많이 느껴졌다.</p> <p>약학실습은 매 학기 전공 필수 수업으로 커리큘럼에 짜여있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약학 연구입문을 하는 친구들끼리 시간을 맞춰 함께 복습하고 토의할 수 있어 참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갖도록 의견을 나누었다.</p>
-------------------	---

2019학년도 1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발행일 : 2019년 8월
발행인 : 김억환
발행처 : 차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화 : (031) 850-8950
이메일 : chactl@cha.ac.kr
팩스 : (031) 543-2397
홈페이지 : <http://chactl.cha.ac.kr>